청 • 동 • 주 • 물 • 기 • 와
기존 동관기와보다 10배나 두꺼운
청동주물기와는
한번 시공으로 반년을 보장합니다.
대원청동주물기와 ☎ 739-8745/735-2344

현대불교

55 세부터의 월급,
국민은행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개인 연금 신탁
가입문의 : 080 - 023 - 4000

영예회장 : 노태행 / 발행인 겸 편집인 : 김광삼 / 논설고문 : 고은 / 편집국장 : 최정희 / 인쇄인 : 김규석 / 등록번호 : 다-3379 /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 737-8881 / 편집국 :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 737-0692 / 구독신청 : 737-0693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39년(서기 1995년) 1월 18일 수요일 (주간)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금후의 법구

지극한 마음으로 임하면
구하는 바를 반드시 얻는다.
(잡보장경)

법회 안내

거임정사포교원 (02)379-6940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자장재일 매월 18일 오전11시
교리법회 화 오전10시30분
기초교리법회 화 오후8시30분
견진법회 매월 마지막 일 오전10시30분

불교문학포교원 (02)308-9520
초8무법회 매월 1일 오전10시
문학법회 네째주 일 오후2시
주부문학교실 매월 셋째주 금 오전11시
어린이창작교실 일 오전10시

홍은사 (02)922-1990
초하루법회 매월 1~3일(음)
지장재일법회 보름~18일(음)
가족법회 매월 첫째 · 셋째 토 오후7시

보리사 (02)562-9939
초하루법회 매월 1~3일(음)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관음재일법회 매월 24일(음)
일반신도법회 화 오전10시30분
어린이 · 중고생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여의도포교원(02)784-9136
일반신도회 일 오전10시30분
경전공부 목 · 일 오전10시30분

부산관음사 (051)205-0069
관음재일법회 매월 24일(음)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관음학생회 매주 토 오후3시
보문청년회 첫째 · 셋째 오후2시
금강경강좌 매주 수 오전11시
합창단법회 매주 목 오전11시

대전대승심인당(042)282-5918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경기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자녀불사법회 일 오후7시

송광사포교당(0694)857-2328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중 · 고등법회 토 오후3시30분

※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 · 포교당은 전화(722-4162) 팩스(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구독료납부은행지로
3054464

뉴미디어시대 포교혁명 예고

불교TV 5일 시험방송 … 8일 BBS 부산 · 광주도

정보화시대 '정신문화 길잡이' 기대 … 개국준비 O.K

올해년의 새해와 함께 뉴미디어포교의 새시대가 열렸다.

불교텔리비전이 지난 5일 오전10시 정각 "큐" 사인과 동시에 시험방송을 시작, 안방 포교사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또 성도절인 지난 8일 오후 4시에는 부산과 광주 불교방송이 시험방송을 시작해 두 지역에 법음의 첫 전파를 발사했다.

(관련기사 14면)

불교텔리비전은 5일 2백여 교계인사와 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시험방송을 시작했다. 이날 시험방송은 불교텔리비전 이사장 태윤스님, 총무원장 월주스님, 종회의장 설정스님 BBS이사장 종하스님, BBS 김태호사장, 진흥원 서돈각 이사장, 특별청소년회관 관장 광우스님, 금호전기 박영구회장, 국회정각회 권익현회장등이 카운트다운과 함께 자켜보던 내외빈의 큐사인으로 방송개시 버튼을 함차게 누르면서 시작됐다. 이날 불교텔리비전을 포함한 케이블TV의 시험방송은 서울의 종로 · 중구등 14개구와 부산 · 창원 · 대구 · 제주 · 목포 · 전주 · 춘천등 25개지역에서 가입자들이 시청했다. 이달 30일부터는 15개지역이 2월 13일까지는 10개지역이 추가 개통돼 3월 1일 개국이전까지는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케이블TV의 시청이 가능하게 된다.



◇ 지난 5일 태웅, 월주스님등이 불교텔리비전 시험방송개시 버튼을 누르면서 본격적인 영상포교의 새 시대가 열렸다. (사진 = 박재완 기자)

이날 시험방송에서 이사장 태윤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자들의 성원과 발원으로 불교텔리비전이 장도에 오르게 됐다"면서 "불자들의 신행을 바로 이끌고 비불자를 교화시키는데 불교텔리비전은 큰 몫을 담당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8일 오후 4시에 거행된 부산불교방송(FM89.9 MH2) 시험방송에는 김태호사장과 지역 스님들, 김기재부산시장등 각급 기관장및 내외빈 3백여명이 동참 첫 전파 발사의 기쁨을 나눴다 같은 시간 광주불교방송의 시험방송에는 이삼진 지사장, 강한필 불교방송전무등 임원과 지역 스님과 불자및 기관장들이 동참했다. 광주불교방송은 시험방송에 앞서 2층 법당에서 부처님 점안식 및 시험방송 기념법회도 가졌다.

부산불교방송은 18일 오후 2시 KBS홀에서 개국축하 법요식 및 공연을 성대하게 갖는다.

신년 벽두에 불교텔리비전과 불교방송 부산 · 광주 지국의 시험방송이 성공적으로 출지됨으로 청단 매체를 통한 포교의 문이 한층 넓게 열리게 됐다.

이날 전국의 케이블TV 가입자와 부산 · 광주지역 불자들은 불심 가득한 첫 전파를 접하고 기쁨과 감격의 박수를 보냈다.

그간 개신교등 타종교에 비해 방송을 통한 포교의 영역이 좁았던 것을 감안할 때 두 매체의 출발은 한국불교의 미래를 밝게 열어준 쾌거로 꼽히고 있다. 이들 매체의 본격적인 활약은 정규방송의 시작을 기점으로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란게 방송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불교텔리비전의 경우 시청권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예정이고 영상매체란 점에서 더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부산 · 광주 지역의 불교방송 지국도 내달 개국과 함께 그간 형성하지 못했던 서울과 지역 불자들간에 방송청취를 통한 신행, 정보 공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불교방송은 내륙지역에도 중계소를 점차 확산해 갈 계획을 세우고 있어 장기적으로 전국 가청권화를 실현해 나갈 발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불교신행과 포교한장의 영역을 확산시켜 나갈 두 매체의 출범은 계속적인 불자들의 성원과 관심이 뒷받침될 때 더욱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임연태 · 정성운 · 도필선 기자〉

목어

'탄생 불교TV'

지난 5일 오전 10시 불교텔리비전 시험방송의 첫 화면에 이 자막이 클로즈 업 되는 순간 불자들은 감격과 환호의 박수를 쳤다.

이 땅의 2천만 불자들은 참으로 오랫동안 불교병원 · 불교방송건립을 입버릇처럼 아나 주문처럼 외워왔다. 그것은 발심이고 발원이었다.

수없이 반복되는 주문 앞에 이제 을해년 벽두에 우리는 가히 포교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영상포교시대를 열게 됐다.

숙원사업들이 이처럼 하나씩 하나씩 풀리고 있는 것은 어떤 함에 의해서일까. 시절인연이 도래했기 때문인가. 시절인연이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돌아오는 것일까. 아니다. 2천만 불자들의 간절하고 지극한 원(願)이 결집되고 사회의 주변여건이 성숙되면서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쉽게 얻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도약의 계단을 밟아온 우리는 여기서 자족할 것인가.

을해년을 맞아 곳곳에서 '원년'이란 말을 쓰고 있다. 그리고 정보고속도로, 인공위성대담등이 우리의 직장과 안방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런 정보통신시대에 불교가 해야 할일은 무엇일까. 우주 화엄법계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는 불자들이 위성통신시대에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

이제 새로 발심합시다

이제 새롭게 발심할 때다. 화엄경은 발심의 이유를 이렇게 일러준다.

"중생의 괴로움을 길이 없애고 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 발심을 한다"

맑고 향기롭게

현대불교신문이 을해부터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을 함께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세상과 자연을 본래 모습 그대로 맑고 향기롭게 가꾸며 살아가자는 이 운동은 작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됐습니다. 운동본부는 회주 법정스님의 지도 아래 지난 한해동안 연꽃스티커 보급, 소책자 '맑고 향기롭게' 보급, 어려운 이웃돕기, 소년소녀 가장돕기 자선음악회(2회) 등 다양한 운동을 펼쳤습니다. 또 부산 경남 모임과 청주 · 충북, 춘천 · 강원 지역에도 모임을 구성, 운동의 확장을 넓혔으며 금년에는 전주, 광주, 대전, 제주, 대구, 구미, 천안, 원주, 뉴욕에도 지역모임이 발족될 예정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삽시다

맑고 향기롭게 … 운동본부 현대불교 공동 연중 캠페인

국내외로 퍼져 나가는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에 현대불교가 동참, 보다 큰 성과와 효과적인 운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현대불교는 지면을 통하여 이 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알리고 맑고 향기로운 이야기들을 꾸준히 찾아내 게재할 것입니다.

한해동안 우리 곁에 나눠주기, 묘목심기, 농촌 일손 돕기, 알뜰시장 개설, 환경문화 강좌, 환경보호실천대회, 자선음악회 등 다채로운 운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은 실천을 앞세우는 운동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실천해야 할 맑고 향기로운 실천 지침을 다양하게 계발하여 작은 것부터 함께 행하는 자리도 마련할 것입니다. 불자님이 계시는 가까운 곳에서 펼쳐지는 이 운동에 열린 마음과 환한 웃음으로 동참하시어 아름다운 인연의 씨앗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동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지방승가대에 비교종교학 신설

조계종 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도법스님

조계종 교육원 산하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교육위원장에 도법스님(선우도량 상임대표)을 선출하고 기초산원 설립, 강원 현황조사, 비교종교학 과목채택등 교육현안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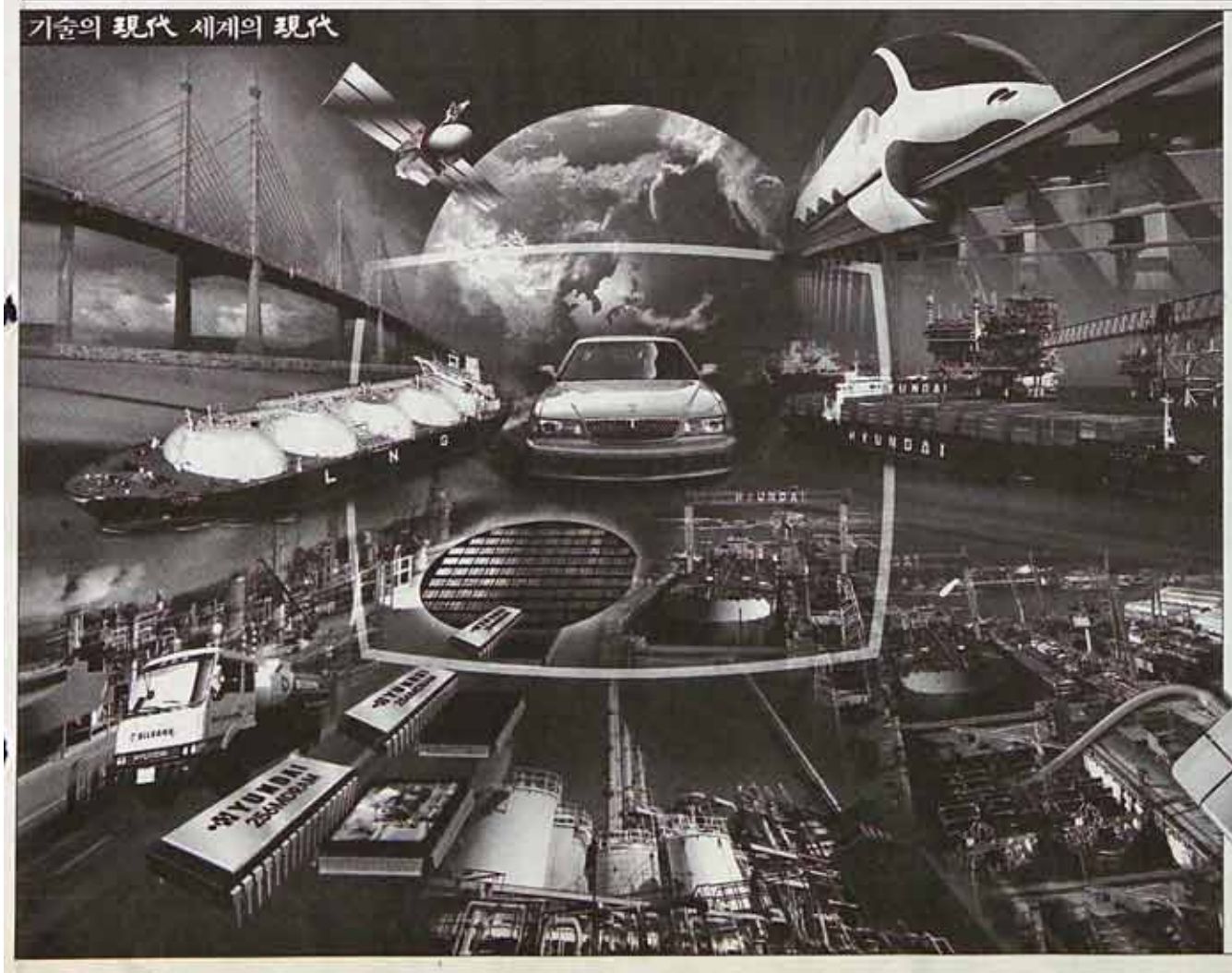
이날 결의된 내용은 ▲재교육을 위한 교육장 설립 ▲기초선원설립 ▲출가자 학력조사 ▲강원현황조사 ▲지방승가대에 비교종교학 과목 채택 ▲비구니 사분계율 강의 ▲교육교재 출간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지방 승가대학의 강사스님들의 신분보장과 교권확보를 위해 강주회의를 열기로 했다.

한편 교육원은 17일부터 23일까지 태안사에서 종진스님(해인사 율원장)을 강사로 비구 사분계율 특강을 실시한다.

본사 사령

한영우
김중근
김채경
이은자
도필선
박미영
임 기자
명 편집국 근무
〈1월 4일자〉

도약위한 조계종 종무계획 발표 15면



저희 現代 임직원은 새해에도 열심히 일하며

밝고 힘차게
세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십시오
1995년 元旦

現代

열린마당

깨달음의 사회화

끊임없는 자기정화가 첫걸음

사 설

종교의 영역은 삶과 죽음,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를 초월한다. 사회과학은 이에 비하여 현재 존재하는 것에 집착하고, 경험적,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원소들의 집합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중생에게 법을 전하는 방법을 찾아내시느라 골몰하셨다는 사실은 경계에 물든 중생의 집착이 보편적임을 의미한다. 유한의 방편을 써서 유 무한을 초월한 진리를 알게 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나 중생의 제도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다.

불교는 궁극적으로 깨달음의 종교이며, 깨달음의 실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에서는 여전히 깨달음을 사회화하는 문제가 남으며, 이를 사회에 환원하여 적용하면, 사회과학의 이론과 실천의 상호관계에 직결된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해 온 수많은 부처님 가운데에서 중생을 돌보지 않고 스스로의 깨달음만을 즐긴 경우를 우리는 듣지 못하였다. 부처님은 중생 속에서 깨달음을 실천하고 중생을 위하여 인욕하신 것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깨달음을 얻은 순간 바로 그 사회화의 과제가 놓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깨달음의 올바른 실천은 불교의 교리가 이세상에서 규범으로 정착되게 하는 데에 그 일차적 목표가 있다. 불교의 규범은 간단하게 5계로 요약되고 있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술마시지 말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깨달음의 사회화가 곧 모든 중생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끊임없이 자정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다른 종교에 비하여 불교가 일상생활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서울에만 해도 최근 도심의 포교원이 제법 수를 늘려가고 있으나 혼인, 교육, 장례, 제사 등 우리들의 중요한 행사에 불교는 멀리 떨어져 있다. 불교신자가 타종교재단의 병원·영안실을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체계적으로 신도들의 집안 일을 챙겨줄 수 있는 절이 몇군데 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이점에서 깨달음의 사회화는 사회의 불교화와 궁극적인 순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깨달음의 사회화가 궁극적으로 확산되기 위하여는 사회의 변화에 대한 불교계의 지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승가의 현대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최근 신도들 사이에서 물고기나 새를 살려보내는 방생 대신 어려운 이웃이나 환경에 대한 보살핌과 관심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의 문제에 대한 불교계의 지식이 성숙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의 사회화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사회이념이나 사상에 종교가 도구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한때 종교는 아편이라는 사상이 풍미한 적이 있었으나, 불교야말로 아편에 물든 중생에게 올바른 각성을 촉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현대만평

박구원



다함께…

사부대중의 목소리

불자들이 솔선수범 보여야 가능



시 현

종정스님께서는 신년법어에서 "남을 위해 목숨을 버리면 진리의 몸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다. 이 가르침을 받들어 날로 황폐해져 가는 시민의 식을 회복할 수 있는 운동이 바로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하나됨'을 지향하는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이다. 이 운동은 일회성 또는 어느 한 종단만의 운동이 되어서는 안된다.

범불교적 범국민 자각운동으로 확대 실천해 나가도록 우리 불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한다.

자연과 하나되고 세계가 하나임을 깨달아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사회공동체 실현은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 한사람의 자각과 중생구제에 대한 철저한 원력과 실천으로서만이 가능하다. 〈조계종 문화사회부장〉

21세기 정신운동의 출발점 돼야



재 범

21세기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앞두고 세계는 벌써부터 새로운 세계질서의 개편을 예측하고 자기 시스템의 치열한 변화에로 나아가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국가, 기업, 각 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빠른 속도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종교 또한 다종교의 실존 상황속에서 21세기 주도적 종교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철저한 자기 준비와 혁신의 몸부림으로 각자 심혈을 쏟고 있다.

이같은 시대변화의 기점에서 불교의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도 각 단위분야 사회구제 활동의 기능적 실천으로부터 보다 종합적이고 보편적 21세기 새로운 시민정신운동으로, 새로운 인류정신운동으로 확대 심화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이 21세기를 맞이하는 불교의 종교적 준비운동의 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월간 '글럼쇠 어린이' 주간〉

공동체 사랑 사회구석까지 비치길



노귀남

조계종 종무행정의 목표가운데 「깨달음의 사회화」는 종단개혁의 결과를 모든 사회구석까지 빛을 던질 폭넓은 운동으로 기대된다.

왜, 중생 구제의 첫째 서원을 새삼스럽게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으로 강조해야하는가. 생명마저 조작 가능한 후기산업사회의 신화를 만들어 사는 세계의 급변이 우리 삶의 공동체 의식은 파편화하여, 이익과 경쟁이 지배하는 사회, 새로운 사회적 모순과 고통이 문제인 가운데 진정한 깨달음은 무엇일까? 이 사회의 주체로서 문제를 바르게 보여 주권 시민의 깨달음은 가장 확실한 운동의 힘이 될 것이다.

〈경불련 정책위원〉

겉치레·구호보다 발원이 더중요



정의홍

한국 불교의 큰 맥을 이루고 있는 대승(大乘) 정신은 함께 잘 살아가는 사회 구현의 기본이 될 것이다.

깨달음이란 진리의 본체를 확연하게 알아내는 것에서 비롯해서 그 본체를 미혹한 중생들에게까지 보여 주는 행위에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통틀어 얘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때문에 깨달음의 사회화란 당연히 이뤄져야 할 수행의 본바탕이고 신행의 근원일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대승적 회향의 담위성은 복잡한 현대인에게 생소하게 느껴지고 있다. 깨달음의 사회화, 이는 불국정토 실현의 첫 발걸음인 만큼 행사나 의식에 치우치기 보다 정신적인 각성과 발원이 더 중요할 것이다

〈대전대 국문과 교수〉

시 론

'世界一花'와 세계화

올해 을해년은 「세계화」를 화두로 밝아왔다.

김영삼대통령이 세계화를 국정목표로 선언하고 올해를 세계화 원년이라 하면서 이 화두 참구는 시작되었다 하겠다.

전자공학등 정보통신 기술혁명은 지구의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좁혀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이 됐으며 세계화는 이 시대의 징표가 되었다. 그런데 무한경쟁의 세계화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국민이 공감하는 세계화의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것, 세계화에 앞서 선결되어야 할 '상식이 통하는 민족자주사회 형성' 등이 그것이다.

또 하나는 지금까지 주로 경제분야 등에서 세계화를 추진해 온 국제기업 등 세계적 거대자본이 하나의 세계시장을 무대로 자유자본 축적운동을 벌여온 점으로 보아, 이 세계화가 또 하나의 물신숭배로 가기 때문에, 주인정신의 입장에서 불교의 세계일화(世界一花)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세계화」란 화두를 위해 잠깐 옛일을 돌아보기로 하자.

중국 6조 혜능대사가 한 때 사찰의 마당에 있었다. 그때 두 제자가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을 보고 한 제자는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라 했으며, 다른 제자는 '깃발'이라고 하여 서로 다퉜다. 이를 보고 혜능대사는 "움직이는 것은 바람도 깃발도 아닌 (非風非幡) 마음"이라고 갈파한 것처럼, 진정한 세계화는 그 근본을 구호나 물신숭배가 아닌 세계일화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고 준 환
〈경기대 법학과 교수〉

바람이냐 깃발이냐

세계화의 개념이 처음엔 국제화보다 상위개념이라는 정도로 애매하여 정부의 즉흥성이 언론에 의해 교집하기도 했다.

여기서 세계화가 국경이 없고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국경이 있는 세계화'라면, 우리나라가 세계일류국가가 되는 것이요, 우리국민이 주역으로서 일류세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한국 중심의 평화세계 즉, 팍스 코리아나(PAX KOREANA)다. 올해를 고비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연간 수출 1천억달러 시대에 들어간다.

올해는 또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의 7년에 걸친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결과 자유공정을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우리나라가 참가한 가운데 출범했다.

무한경쟁시대·소유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세계화에 앞장서 멀티미디어 슈퍼하이웨이 등 기술혁신과 시장적응 등 경영혁신으로 고도성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전환기를 마련, 국부를 무한 늘려야한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는 세계거대자본에 의한 국가주권의 제약이 가능한 체제라는 점과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자율성, 공평성, 신의성, 민족자주성, 문화 정체성 등이 희생되지 않도록 함에 우리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세계화에 앞서 '상식이 통하는 민족자주사회 형성'을 위하여 먼저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사건, 지존파 살인사건, 전국세도사건 등 줄이어 터진 대형사고 사건이 보여준 정신세계의 황폐화를 바로잡아야 한다.

잠든 민족혼을 깨우자

종교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신불(神佛)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고 가볍게 여기며, 법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도 고쳐져야 한다.

우리는 가치체계가 붕괴된 아노미(Anomie) 현상에서 새로운 이정표로서 민주화 위에 남북해외 8천만 우리 동포가 광복 50년을 맞이하여 세계의 주역이 되도록 잠든 민족혼을 깨우자. 민족통일을 위한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며, 청정국토 위에 행복한 삶을 이루는 민주통일정토(民主統一淨土)를 구현해 나아가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계화를 통하여 지향할 사회적 가치는 소유의 삶이나 물질이 아니라, 무소유(無所有)의 삶이나 정신 즉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부처님 가르침은 본래 세계적이 아닌 우주적이다. 그분은 우주의 진리를 깨치고, 실천하라고 가르치셨다. 그 가르침은 모든게 마음에 달렸고,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고, 세계는 청정심(淸淨心)이 피어난 하나의 연꽃 즉 세계일화(世界一花)라는 것이다.

이 연꽃은 진흙속에서도 더럽혀 지지 않는 청정함과, 꽃이 피며 동시에 열매 맺는 동시인과(同時因果)를 그 특성으로 한다.

우리는 세계일화를 위하여 인류 최고의 문화요 미래세계의 통일종교가 될 선정(禪定)을 날마다 실천하고, 기쁨 속에서 선정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해야 한다.

우리는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선정을 통하여 깨닫고, 기쁘게 자비에 터잡은 보살도(菩薩道)를 실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보살도로서 석굴암 등 세계적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역경 도제 포교 등 3대사업을 크게 일으키며, 불교 중앙 일간신문 발간과 불교 전국 TV방송 설립 등을 추진하여 통일과 세계화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또 전인류에게 공감을 주는 보살도로서 보스니아 체첸 르완다 소말리아 등 냉전(cool war)과 냉평화(cool peace)로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전달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한다.

특히 핵전쟁의 위협과 환경파괴 등을 예방하여 평화로운 한반도 등 동방정토와 함께 서방정토를 달성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화의 새해를 맞이하여 주인공이자 창조자로서, 또 세계인으로서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불자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관찰하며 해답을 제시하는 세계일화 즉 불국정토를 구현해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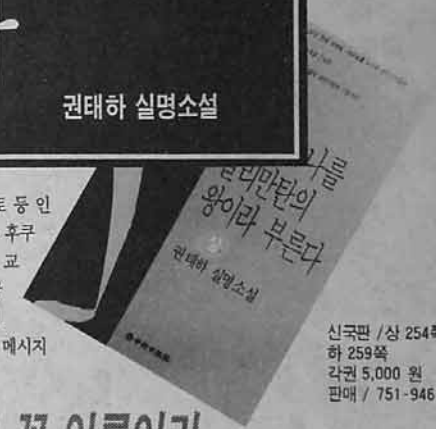


일상의 평범을 거부하고 세계속에 뛰어들어 자신의 꿈을 이룩한
大韓國人 최계월의 불꽃같은 인생드라마

그들은 나를 칼리만탄의 왕이라 부른다

권태하 실명소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섬(옛 보르네오)에 경상북도만한 정글을 개척, 원목·조림사업을 하는 한국인을 아는가. 인근 자바해 마두라 지역에 횃불을 밝히고 「産油 한국」의 국가적 과업에 마지막 승부를 거는 사업가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가. 동경 시절 낮에는 야쿠자의 두목들을 휘어잡고 밤이면 일본 정계 거물들과 천하대세를 논했던 통 큰 사나이. 서슬퍼런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건습사관(소위) 임관식을 앞두고 「나는 이 전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버티던 기개와 배짱의 사나이. 일찌이 수카르노·수하르토 등 인도네시아의 전·현직 대통령, 기시·사토·미키·후쿠다·스즈키·다나카 등 일본 역대 수상들과 맺은 교분을 바탕으로 이미 수십 년전 사업의 영역을 국제무대로 넓힌 세계인 최계월. 이제 그가 바쁜 일상속에서 자꾸만 왜소해지는 우리들에게 뜨거운 메시지를 전한다.



신국판 /상 254쪽, 하 259쪽
각권 5,000 원
판매 / 751-9468

한국인이여, 그대 가슴에 꿈을 품어라. 그리고 그것을 꼭 이루어라.

中央日報社

자연은 '삶의 안식처' 푸르게 보존을

부처님의 지구 사랑 1

프롤로그



전재성

환경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독일에 체류할 당시 한 참사람의 엷렵한 구도자적 삶을 지켜보면서였다. 부처님처럼 길위에서 아나가리까의 집없는 삶을 실천하는 노이야르선생이 바로 그분이다.

그는 영원을 꿰뚫어 보는 듯한 형형한 눈빛을 낡은 망토속에 감추고 신성하기 그지 없는 북구의 황혼을 걷고 또 걷곤 했다. 노이야르선생과 라인강의 한 지류인 지그강과 끝없이 펼쳐진 평원을 따라 걷노라면 한겨울의 추위도 봄눈 녹듯이 녹아내렸다. 차가운 별빛은 붉은 꽃비가 되어 쏟아지는 듯했다. 가로수의 앙상한 나무가지에 걸린 달빛은 무한히 투명한 우주를 머금고 있었다.

저멀리 농가의 불빛이 아스라히 보이는 지그강 언덕위의 차가운 벤치위에 앉아서 그는 내게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이 부처님의 말씀을 또박 또박 전했다.

"수행자들이여, 체험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거룩한 이를 인정하지 않고 거룩한 가르침을 알지 못하며 거룩한 가르침에 이끌려지지 않고, 참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참사람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고,참사람의 가르침에 이끌려지지 않아서 땅을 땅으로 여기고, 땅을 땅으로 여기고 나서, 땅을 생각하고, 땅에 있어서 생각하고, 땅으로부터 생각하고, 땅을 내것이라고 생각하고 땅을 즐거워한다. 왜?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거룩한 말씀은 빠알리 경전 중 부아함경의 첫머리에 나오는 귀절이다. 이 탁월한 부처님말씀은 땅, 물, 불, 바람, 생명현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전개된다. 그는 아주 낡아빠진 망토를 달빛아래서 실과 바늘로 꿰매며 이 귀절을 독일어로 읊조리고, 이어 아주 유창한 영어와 불어로 반복했다.

아직은 서너개의 별이 아름답게 반짝이는 우주는 그 거룩한 말씀에 이끌려서 황홀하기 그지 없었다. 한곳에 오래 앉아 있다보니 한기가 온몸에 스며들어 우리는 또 지그강을 따라 걸었다. 그러나 어디를 가나 30분도 못되어 거미줄처럼 쳐진 고속도로와 엄청난 소음, 매캐한 가스냄새와 만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님에게 내어 주고 빈 털터리가 된 구도자. 형형한 눈빛과 따스한 두 발로만 걷고 또 걸으며 추운 겨울에도 하나의 망토를 걸치고 나무밑에서 잠을 청하는 이 예언자적인 참사람에게 산업사회의 문명은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었다.

노이야르선생이 숲속으로 잠을 청하러 간뒤에 나는 곰곰히 생각했다. '세상사람들이 참사람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고… 땅 물 불 바람 생명을 내것이라고 생각하고 땅 물 불 바람 생명을 즐거워한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나는 곰곰히 생각하며 아무도 없는 차가운 겨울숲을 지나 집으로 돌아왔다.

독일은 원자재가 없지만 유사시에는 울창한 숲의 나무만 팔아도 1백년은 지탱한다고 자부하는 나라이다. 그러나 숲속의 나무들은 어느새 반이상이 모두 공해로 병들게 되었다. 가난한 멍상자의 안식처였던 숲이 언제 사막화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녹색운동'의 물결은 독일을 시발로 80년대초에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환경오염은 전세계의 자연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보다도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최상의 목표로 하는 더불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참사람의 터전마저 파괴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약력
△ 서울대 졸업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13년차 회장 역임
△ 독일 본대학 인도학·티베트학 박사과정
△ 역서로 〈인도사회와 신불교〉〈붓다의 가르침〉등이 있으며 〈빠알리어 사전〉 편저.
△ 현 한국불교대 교수. 정신문화원 객원교수

'95 신행캠페인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모든 악행을 짓지말고 착한일을 받들어 행하라"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불교 신행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교는 현생에서의 착한 일을 강조하는 것에 신행의 촛점이 맞춰진 종교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설하신 인과의 법이라든가 연기법등이 모두 선한 행위의 소중함을 근본으로 하고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현생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해 지은 업들에 대한 과보는 내생의 성불을 가능케 하는 뿌리란 의미에서 '선근(善根)'이란 말도 나온 것이다.

금주의 주제 선행하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루에 한번씩이라도 착한 일을 하겠다는 서원을 해야한다. 그리고 그 서원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불자로서의 바른 길은 작은 선행에서 시작된다.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행한 나의 선행들이 모여져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참다운 불자를 만드는 것이다. 사회구조나 남의 허물을 탓하기에 앞서 스스로 착한 일을 해나가는 자세가 먼저 갖춰질때 부처님의 높고 넓은 가르침도 진정한 향기를 피워낼 수 있을 것이다.

불교에는 착한 일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의식과 풍습이 전해지고 있다. 예수재라든가 선강(善綱), 선월(善月)등이 그것이다.

또 10선계도 정해져 있다. 착한 일을 강조하는 열가지의 계율은 우리의 삶을 부처님의 삶으로 닮아가게 하는 것이다.

새해, 참불자로 살아가기를 서원하며 〈정토경〉의 가르침을 가슴에 담아보자.

"이 세상에서 하루동안이라도 착한 일을 하는 것은 극락 세계에서 백년동안 착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다."

아름다운 사회의 뿌리
"작은 것부터 매일 실천" 서원 세워야

그러나 현대사회는 인간에게 선한 뿌리를 갖추기 보다는 악한 업을 짓는 쪽으로만 흐르고 있다. 이런 현실속에서 우리는 스스로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악행 불감증'까지 갖게 됐다는 심리학자들의 지적은 흘려 들을 문제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악행 불감증'을 '선행 중독증'으로 변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개인과 사회에 선행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참다운 인간세상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자는 구호는 선행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신행수첩

비구니 스님들만의 기행
유홍준씨가 폐사지 안내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면 느낀다고 했다.

(재)대원정사는 최근들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성지순례의 천편일률적인 답사를 지양하고 불교문화의 얼을 되새겨 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영남대 유홍준교수가 안내하는 '제3차 대중불교 산천기행'이다.

이번 순례는 관광버스를 타고 유적지를 찾아 휑하니 둘러보고 또 버스를 타고 떠나버리는 정체된 순례가 아닌 문화재·신앙적 측면의 불교문화를 함께 호흡하는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성지순례를 하게 된다.

경기도 여주, 강원도 원주일대의 폐사지인 법천사지, 고달사지, 거돈사지를 답사하게될 이번 순례에는 비구니스님들에게만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다.

겨울, 비구니, 폐사지가 적절히 감성의 고리를 엮어갈 것으로 보이는 이번 성지순례는 불교계에 새로운 장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행단은 1월26일 압구정 현대백화점 주차장에서 오전8시 출발한다.(02)773-5731

옛가르침·예절 배워요
봉화산 한문서당 열어

온고지신(溫故知新), 옛것을 배우고 익혀 새로운 지식이나 도리를 찾아낸다는 말이다.

날로 혼탁해져 가는 현대사회에서 예절과 자아를 상실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옛 선인들의 가르침이야말로 때로는 변질돼 가는 우리의 윤리를 바로잡는 가장 훌륭한 치료제라 할 수 있다.

봉화산 청소년수련원(원장 선진규)은 2월5일부터 25일까지 '봉화산 한문서당'을 마련하고 이렇게 옛 가르침과 바른 예절을 배우기 위한 초·중·고생들의 형형한 눈동자를 담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봉화산 한문서당'은 3주간 합숙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어 참가자들은 예절교육과 인성계발, 극기훈련은 물론 참선을 통한 자아계발의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된다.

규칙적이고 엄격한 단체생활속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고 돌아가는 길엔 1천5백자의 한자와 그 속의 가르침을 품에 안게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진정 무엇이든 해낼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세계로 웅비하는 연주곡의 서곡이 들리지 않는가! (0525)42-2991



◇ 고달사 터에 남아있는 혜진탑비 이수 및 귀부(보물제6호)

부처님 체취를 따라서
구룡사 인도 4대 성지 순례

부처님이 머무시고 설법하신 발길을 따라 순례하며 불자들의 신앙심을 돈독 높이는 구법의 기회가 마련돼 불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법도량으로 알려진 구룡사(주지 정우)는 오는 2월17일~3월3일까지 인도 성지순례를 통해 불자들에게 새로운 불법의 세계를 체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성지순례는 부처님께서 설산 수도하신 히말라야를 시작으로 룸비니동산, 불교 최고의 기도 도량이자 성불지 부다가야, 초전법륜지 녹야원, 열반지 쿠시나가라등 4대성지를 둘러본다.

구법의 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염화시중의 미소로써 부처님의 이심전심의 마음법이 살아 숨쉬고 있는 법화경의 설법지 영축산과 죽림정사, 나란다대학등을 참배하게 된다.(02)575-7766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
실천 불교사상 강좌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대학생들에게는 저마다의 위치와 목표에 따라 달라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필수적이다.

정토불교대학생회(회장 권유정)는 새로운 삶을 찾는 대학생을 위한 '제12차 실천적 불교사상' 강좌를 마련했다.

1월9일부터 2월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반 정토포교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근본 불교 교리」를 주제로 7차에 걸쳐 강의가 진행되며, 1월 20~22일 겨울 산행(지리산)과 2월 17~19일 수행수련등의 특강도 준비하고 있다.

1월9일 불교의 윤리와 지향점을 제시하는 '불타론'을 시작으로, 연기와 삼법인, 인연과(因緣果), 사성제, 오온, 12처 18계, 증도(證道)·6바라밀·8정도의 순으로 강의가 진행되며 용두리 정토수련원에서는 발우공양과 함께 불교의 전통 수행법도 체험케 할 예정이다.(02)737-0853

신심넘치는 불자되고파
스카우트지도자 수련회

각양각색의 다양한 사회속에서 자신이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삶은 실로 신심 넘치는 불자의 삶일 것이다.

올바른 청소년 교육의 틀을 불교를 통해 보다 알차게 하고자 하는 한국스카우트 불교지도자회(회장 김혜인)는 오는 20일부터 23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부산 범어사에서 제5회 수련회를 개최한다.

한국스카우트 불교지도자회 회원 1백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동계 수련회는 '스카우팅과 종교' '찬불가 공부' '사찰예절' '법회시범집전' 등을 통해 불교교리와 스카우트 기본원칙에 충실을 기하게 된다. 한국스카우트불교지도자회는 수련회를 통해 다져진 신심을 바탕으로 각종 스카우트 훈련에서 청소년 대원 지도에 더욱 힘쓰게 될 것이다.

(02)735-8165

고대 민족문화의 숲 헤쳐 보자
부산불교교육원, 매주금요일 삼국유사강의

우리나라에는 많은 역사책이 있다. 그중에서도 〈삼국유사〉는 고려시대 일연스님이 혼자서 직접 이룩한 국가적 보고이다. 〈삼국유사〉는 특정한 사관이나 대상 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의 관심사를 기록하였다. 그래서〈삼국유사〉를 일컬어 '우리 고대사의 원형을 보여준다'고 한다. 육당 최남선은 "〈삼국유사〉를 읽고 있노라면 마치 원시 문화의 숲을 헤쳐 가는 듯한 기분"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삼국유사〉는 한국불교문학의 결정체이며 한국불교통사이기도 하다.

이처럼 고귀한 책 〈삼국유사〉를 살필수 있는 기회가 부산불교교육원(지도법사 성재도)에 의해 마련되었다. 새해들어 매주 금요일 오후7시 교육원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삼국유사 강의가 그것이다. 이번 강좌는 한문학자이자 서예가인 경재 조영조 선생이 직접 강의한다. '한문공부와 불교공부를 함께 하자'는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금번 삼국유사강의는 수시로 개강한다.

(051)466-4080

나와 이웃 자연은 하나

생활 속의 불교 ⑬
협찬: 대우자동차 전농판매

좌천이냐 승진이냐

사람이 나고 죽는 걸 윤회라고 하지만 태어나서 늙는 것도 윤회이고, 사계절이 돌아드는 것도 윤회이다.

물방울이 돌고 돌면서 천차만별로 생명체를 먹여 살리는 것도 윤회이다. 별들의 생성과 소멸도 윤회이다.

일체 만물 만생이 다 그렇게 하면서 산다.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끝간 데 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한 윤회의 고리가 없다면 진리라는 말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죽음과 탄생은 헌 옷을 벗고 새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다. 헌 옷을 벗고 새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헌 몸 벗고 새 몸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구름이 모였다가 바람 불면 흩어지고, 다시 모였다가 빗방울이 되어 떨어지고, 뭇 생명체의 몸 성분이 되었다가 또다시 수증기로 올라 구름이 되듯이 우리 모두는 이 집에서 한 철, 저 집에서 한 철 돌아가며 산다. 그러므로 같이 산다 해서 내 자식, 내 부모요, 따로 산다 해서 네 자식, 네 부모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서로 뒤섞여가며 수억겁을 거쳐 왔으니 내 부모 네 부모, 내 자식, 네 자식 가릴 게 없다.

돌고 도는 사이에 때로는 사람이 새가 되는 일도 있고 새가 사람되는 일도 있다. 마음 씀씀이에 따라 미물에서 고등 동물로, 식물에서 동물로 천차만별 층층으로 오르내린다. 승진이냐, 좌천이냐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한철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좌천을 두려워해야 한다. 승진의 길은 불법의 생활화에 있다.

불법의·생활화·현대화·세계화

대우자동차 전 차종 특별판매



대상차종
아카디아·브로엄·프린스·에스페로
씨에로·르망·티코·다마스·라보

- 리스 할부
- 인도금 없이 전액 자체 할부(국민차)
- 차종에 따라서 무이자 할부도 가능(한정판매)

대우자동차 전농 판매
전화 : (02) 215-1472
215-1071
팩스 : (02) 215-1076

교 차 로

간병인협회 회장



정진스님(보문사 주지)은 구랍 20일 불교간병인협회 전체임원회의에서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다.

'사형수 편지' 펴내



삼중스님(전국교도소재소자 교화후원회장)은 최근 태일출판사에서 〈사형수들이 보내온 편지 1, 2〉를 묶어펴냈다. 이 책에는 사형수 27명의 편지를 비롯, 사형수 아버지의 구명을 호소한 어느 소녀의 애절한 사연들이 실려 있다. 삼중스님은 편지글을 통해 사형제도의 폐지와 범죄예방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 책을 묶었다고 밝혔다.

'미주불교' 초청강연



법성스님(대승원 원장)은 '미주현대불교' 초청으로 지난 7일 미국으로 출국. 원각사 등에서 강연을 한다.

'선의 원류와~' 강의



박종 학장(한국불교통신대학)은 지난 2~5일 3박4일간 대성리 중앙교육원 상락향수도원에서 열린 제 38차 동계출석수업에서 「선의 원류와 정신건강」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이번 동계교육은 재학생 1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선과 동방문화' 출판회

오형근교수(동국대)는 지난 12일 앰배서더 호텔 2층 서궁에서 동국대와 북경대가 공동으로 만든 논문집 「선과 동방문화」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선무도 도량 개원



강찬선법사(골굴사 선무도 서울포교원장)는 지난 7일 서울 신사동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골굴사 선무도 서울포교원을 개원했다. 강법사는 선호흡, 선요가, 불교무술등을 통한 생활선을 보급할 예정이며 제 1기 선무도학교를 17일 개설한다. (02)3442-3715

호암미술관장 취임



홍라희 회장(불이회)이 지난 1일자로 호암미술관 관장에 취임, 미술관 경영 전반에 나섰다. 홍회장은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부인으로 그동안 삼성미술문화재단 비상근 이사로 일해왔다.

한편 홍회장은 지난 11일 미술관 계업무차 미국으로 출국했다.

한국국민윤리학회장에 선출



송재운교수(동국대 국민윤리학)는 한국 학술진흥재단 강당에서 열린 한국 국민윤리학회 정기총회에서 제 14대 한국 국민윤리학회장에 피선됐다.



대원불교대 신임 학장

허 성 구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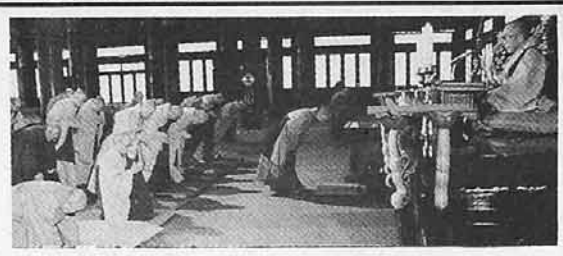
"본격적인 영상포교시대를 맞아 대중불교운동의 기수를 양성한다는 지부심으로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대원불교대학 제5대 학장에 취임한 신임 허성구학장은 "고 장경호거사가 한국불교 대중화의 원력으로 설립한 대원불교대학의 교육책임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학교운영의 포부를 밝혔다.

허 신임학장은 "20년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사설 불교대학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은 과도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런 측면에서 "단기간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 정규대학으로 성장한 신학대학들을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학장은 "올해부터 일반 불교교양대학을 폴업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학원 과정의 연구반을 신설, 평생교육의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대원불교대학은 73년 대원불교강원(2년지)을 개설, 원전강독을 실시했으며 74년 대원불교교양대학으로 개칭하고 82년에 현재의 교명으로 변경해, 19년동안 전국 방방곡곡에서 생활불교의 기수로서 활약하고 있는 총 1천5백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조계종 통도사서 신년 하례법회

조계종은 지난 6일 통도사에서 종정 월하스님을 모시고 신년하례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는 월주 총무원장 정락 포교원장 설정 중앙종회의장 탄성 전 개혁회의 총무원장 혜인사주지 지관스님과 총무원 각 부장스님 등 1백여 스님들이 동참했다.



5백여 불교지도자, 하례식서 불교중흥 다짐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윤)는 지난 7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95 신년하례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박서봉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과 김광삼본사 사장, 김태호 불교방송사장, 각신행단체 대표등 5백여명이 동참해 성황을 이뤘다.



제 10회 불이상 일진스님등 4명 시상

제 10회 불이상 시상식이 지난 8일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실시됐다. 불이회에서 인재양성을 위해 매년 성도절에 실시하는 불이상의 올해 수상자는 연구분야 이봉춘교수(동국대) 실천분야 조길조법사(육군제2군 사령부 군종참모), 장학분야 이성렬씨(동국대 박사과정) 출가 면학분야 일진스님(일본불교대 대학원 재학중)이다.



시민 · 사회운동 9개단체 11일 신년하례

시민사회운동 9개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인 신년하례 법회가 지난 11일 서울호텔 화락에서 성료됐다.

불교시민 사회운동을 위해 노력하는 각 단체 회원 2백여명이 함께 한 이날 모임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법어를 통해 "환경보존, 인권, 공해추방 및 불교 중흥을 위해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95 불교계 샛별 ★

불교임종복지 개척자

김 영 희 교수



일본서 연구 · · · 체계적 전문교육 펼칠 터

"최근 일부병원에서 말기환자 치료와 간호활동이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타종교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어 불교인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올해년 벽두부터 불교임종복지 활성화를 위해 숨돌릴틈없이 바쁜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불교임종복지분야의 선구자로 일컬어지는 김영희(동남보건전문대학)교수이다.

현재 불교계에서 임종복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곳은 불교간병인협회, 불교자원봉사연합회등 보급에 있어서는 초기단계이지만 임종복지에 대한 불교인들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임종복지를 불교에서 찾아본다면 비하라(BIHARA) 즉 승려가 의사를 겸하는 승의 또는 비구 비구니가 간병을 한데서 기인합니다. 인도 최고의 불교사원인 기원정사의 무상원, 조선시대의 한인원등에서는 무의탁노인, 행려병자들을 위해 간병활동을 했었고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는 편안히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으로 간병을 해주었습니다"라고 역사적 사실에서 예를들어 불교가 임종복지에서 원래 선구자였음을 설명한다.

"비하라 교육은 입원치료보다는 가정간호가 우선시되고 모든 사람들의 당면해야 할 과제인 만큼 앞으로 점점 교육생의 참여도가 높을 것"이라는 것이 김교수의 평이다.

임종환자에 대한 종교인의 중요성을 인식한 카톨릭에서는 30년전 강원 강릉 갈미리의원에서 수녀들에 의해 시작, 현재 많은 곳에서 말기환자들을 위한 장·단기적인 전문의료활동을 해오고 있다.

또한 1992년 3월에는 한국호스피스 협회가 공식적으로 결성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여 호스피스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한국불교계의 임종복지분야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활성화 시켜야 할 때에 이르렀습니다. 체계적 전문교육을 통해 재가 승가의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의료보살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라는 김영희교수는 한국사회의 발전으로 볼때 이쪽 분야에 대한 활성화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개척자로서의 포부를 펴보인다. 〈김중근 기자〉

탐 방

불교 어머니회

따뜻한 어머니의 품을 그리며 고된 훈련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신출내기 군인들의 허한 가슴을 자비하고 부드러운 부처님의 가슴으로 보듬어 안아 내고 있는 곳. 바로 불교어머니회(회장 김평련)다.

불교어머니회는 우리사회의 어둡고 소외된 곳을 찾아 부처님의 자비광명과 어머니의 봉사정신을 널리 펴서 밝은 마음, 명랑생활의 불국정토를 실현하기 위해 1979년 창립됐다.

자비롭고 평등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에서 몸소 실천하고자 하는 불교어머니회는 소외되고 어두운 곳을 찾아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왔다.

불교어머니회는 교도소와 구치소등에 수감된 재소자들을 위한 교화불사를 널리 확산시킨 장본인들이다.

여기에 지난 90년부터 군포교를 시작했다. 많은 훈련병들이 거쳐가는 육군 제2 논산훈련소의 호국 연무사에서의 특별법회를 시작으로 불교어머니회는 군포교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열심히 활동해 왔다.

처음 3백여명으로 시작한 호국연무사의 법회참여 군인수가 지금은 열배도 훨씬넘는 5천여명에 달한다. 매달 넷째주 토요일이면 5천여명이 넘는 군인들은 연무사 법당을 가득 채우고도 모자라 1, 2부로 나누어 법회를 진행해야할 처지다.

또한 매회 훈련을 마친 훈련병들의 수계식은 아예 연병장에서 치른지 오래다. 매회마다 5천명분의 떡과 음료수를 준비하는 경비도 만만치가 않다.

법회에 참여하는 군인불자수가 평균 5천여명이 넘게 되자 불교어머니회는 5천여 군인들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설법전 건립의 원력을 세웠다. 불교어머니회는 그러나 1천 2백평 규모로 건립될 설법전의 건립기금이 턱없이 모자라 고심해 오던중에 지난 7일부터 10일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논산훈련소 설법전 건립 및 불우이웃돕기 '고승 명인 서화도예전'을 열었다. 설봉스님, 수안스님등이 자신들의 작품을 무상으로 내놓아 그 전시관매 수익금으로 설법전 건립에 보탬이 되도록 한 것이다.

머지않아 논산훈련소에는 수많은 이땅의 청년불자들이 부처님법에 귀의 발원하는 설법전 불사가 완성되어 메마른 연병장 곳곳에 따뜻한 불음을 심게된다. 불교어머니회는 기복에 치우친 치마불교 라는 오명을 당당히 벗어던지고 범사회적 신행활동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담은 군포교사업을 전개하며 불국정토 건설을 앞당기고 있다.

〈이은자 기자〉

논산훈련소 설법전 건립에 다 함께 나서

재소자교화등 그늘진 곳에 자비손길 · · · 79년 창립



◇ 연병장 가득 들어선 논산훈련소 훈련병들, 불교어머니회의 주선으로 귀한 불자의 인연을 맺고 있다.

게시판

▲「증도가」강좌=정토법당(원장 환희)은 영가(永嘉)스님이 지은 「증도가」를 백남석법사의 강의로 1월 17일~2월 28일(매주 화)까지 오전 10시부터 1시에 서초정토법당에서 진행한다. (02)522-2841

▲출판인재 모집=도서출판 시공사는 불교책 편집에 능숙한 인재를 찾고 있다. (02)588-6592~3

▲놀이치료교실 개소=삼전복지관(관장 보각)은 10세이전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놀이치료교실을 개소한다. 상담 및 접수는 1월 23일~2월 3일까지. (02)421-6077~8

이 전 ▲오계파지운동 국제본부=사무실을 강남구 삼성동 44-10 소암빌딩 203호로 이전했다. 새전화 (02)545-8105~6

1995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모집안내

1. 모집학과 및 안내

◎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 집 인 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5매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승려 포교사도 가능) •출가희망자
	4년	•통신 40명		
유아교육과 (유아 포교과)	2년	•주간 60명 •통신 40명		
중국어과	2년	•주간 40명 •야간 2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20명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 40명 •통신 2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전문부 주간 · 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2. 8 본교 학생 29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유아교육과 95% 취업
93. 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 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 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예정
95. 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 · 불교 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성적 우수자 본대학 포교원 · 유아원개설시 재정지원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차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5년 1월 27일까지
· 2차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95년 2월 23일까지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면접(미술과는 작품 1점 제출)

5. 원서교부 문의처

본교:511-1080, 511-2026 · 2027 · 2028, 조계사앞 삼보원:732-9904, 견지불교사:739-3032
부산영광도서:816-9500, 대구 제일서림:424-0801, 인천 대한서림:762-7337
광주 나라서적:222-2828, 대전 문경서적:252-8558, 수원 교학사:251-3928
마산 학문당:46-2925, 전주 홍지서점:88-5311, 청주 일선문고:53-2360
울산 세뚱서점:74-1265, 포항 학창서림:46-2120, 강릉 강릉서점:645-4373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 바람 (511-1080, 511-2026 · 2027 · 2028)

삼 화 불 교 대 학 135-1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 FAX 511-1080



삽화 · 이기선

목정배 교수가 쓰는

오늘의 불교 ⑪

"성불하여 저 중생 모두 건지리"

부처님 광명 삼천대천 끝까지 비춰
등광빛 따라 가면 보리수아래 당도

우담발화가 피는 첫새벽.

북두의 별빛이 몇광년의 빛살을 무지개로 만드는 아침이다.

온통 우주가 환하게 되었다. 장엄법계다. 황홀 법열이다. 웬일인가. 부처되신 날이다. 필발과 나무에 깨달음의 등광(燈光)이 저 건너에 있는 갈숲에도 밝게 비춰지고 있다. 이 원만하고 거룩한 금강보좌에 삼매(三昧)드신 고오타마가 백호(白毫)에서 각광(覺光)을 나투시다.

부처님 성도절. 부처되신 광명이 저 삼천대천세계 끝까지 빛을 발광하셨다.

6년의 긴 고행, 이것은 현겁의 고행이다. 부처님은 과거인행시부터 다생겁의 보살행을 부단하게 정진하셨다.

본래 광명을 본시 무명으로 착각하고 사는 중생. 어디 삶의 길이 따로 있고 삶의 뾰족한 수가 있을거라고 생각하는 중생. 사바 고해에서 파랑을 막지못하고 표류하는 방랑자. 노도 잊어버리고 돛폭은 찢기고 널관자 하나에 얽매어 발버둥치다 파도에 휩쓸려 사라진 말도자(末度者). 이러한 중생을 새롭게

업식벼랑에 선 중생

인식시키려고 다겁생의 수행정진으로 연기의 길을 열어 보이신 부처님이 되신 날이 납월 팔일이다. 중생은 세상을 오래 살면서 업식의 벼랑에서 떨고만 있다. 업식을 벗어나려는 일로향상(一路向上)이 없다. 업식을 제 삶의 밥이라고 생각한다. 업식은 육체의 정염을 활활케 하는 힘은 있어도 정신의 해맑은 법열을 품수하지는 못한다.업식을 진여세계로 전환시키는 법을 먹여야 한다. 하늘에 매이고 신에 부대끼고 창조에 절을 하면 인간은 예속된다.

하늘은 공무아(空無我)이고 신은 자재관(自在觀)이며 창조는 연기법(緣起法)이다. 이것을 깨쳐야 한다.

그런데 중생은 다생겁동안 사만(四慢)에 잘 길들여져 이것을 귀중한 재산과 재물로 간직하려고 한다. 간직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용하려고 한다. 이러한 것을 복수용이라고 한다. 복이 물질적으로만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러나 중생의 별다른 복이 있을 수 없다고 집착해 버렸다. 오욕락(五欲樂)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왜일까. 무명(無明)때문이다. 무명은 욕망과 갈애로 엉클어 있기에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는 암흑세계다. 암흑세계에서 앞뒤 갈피잡지 못하고 뒤엉켜 뭉클고 있는 세계가 사바고해다.

납월팔일에 찾아온 광명은 모든 중생이 생명의 바른 길을 비춰 준 등광이다. 이 등광의 빛을 따라 한걸음 한걸음을 나아가면 보리수 아래에 당도하게 될 것이다. 갈숲에 바람이 불고 강가강에 물이랑이 조금은 일렁거린다 하더라도 빛의 이랑은 지울 수 없을 것이다. 물이랑이 잠들어 고요해지고 명징되면 거기엔 빛살이 환하게 감싸고 있을 것이다. 이 빛살 비추인 강을 단걸음에 건너야 한다. 보리수는 우뚝하게 서 있다. 우주의 처음 나무처럽서 있는 광명등대. 우리는 이 등대에 나아가서 빛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내 도 이루지 아니하면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 내도 깨치면 저 중생 모두 건지리"

라는 부처님의 서계(誓戒)를 가슴에 아로새겨야 한다. 과거 인행은 근력이 되어 해인삼매에 드시어 마왕파순이 8만4천 군사를 이끌어 내리려 하였지만 부동지(不動地)에서 금강정좌하신 빛의 순수무구여. 우리는 부동지계(不動地戒)를 공부해야 한다.

발원성불은 우리 몫

부처님의 깨침은 일체 중생의 불성개발을 발원하셨는데 우리는 망각의 늪가에 앉아서 사상(四相)의 그림자를 낚시질하고 있다. 마음에 송신증이 나면서도 아상(我相)의 대어를 낚아올리려고 망심의 떠밥을 주물고 있다. 부질없는 업식희론을 불살라 버려라. 배화교 가섭형제들이 불방망이를 강가강에 버리듯이 우리도 망상의 낚시를, 아상의 떡밥을 던져버려야 한다.

성도의 소식을 들으면 성불의 음신을 받아라. 성도가 부처님의 것이라면 발원성불이 우리의 몫이라고 각증(覺證)해야 한다.

우담발화가 피는 첫 새벽. 천하대지에 겨울의 햇살이 옮겨오는 새벽. 하얀 빛으로 목욕하고 정계의 살림을 사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내 마음깊숙히 우담발화의 향기와 가릉빈가의 첫소리 암(唵)을 노래하여야 성도가 나의 성불이 될 것이다.

'신행 365일' 내삶의 스승

BBS 개국부터 매일 '5분 포교사'…사물보는 시각 달라져

산문밖의 禪

탤런트 김 용 림



연기자라는 선입견때문일까. 처음 만난 드라마 밖에서의 김용림씨(55)의 눈빛이며 손짓이며가 무척 자연스럽고 생동감있게 느껴진 것은.

불교방송 '신행 365일'을 녹음하러 온 김용림씨는 이 프로가 자신에게 불교공부를 시켜주는 스승이라고 첫 마디를 꺼낸다.

아침 7시55분부터 8시까지, 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경전 한구절과 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의 비유를 들어 풀이해주는 '신행 365일'은 메시지가 있는 포교 프로로 청취자가 많기에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말 하나하나에 신경을 무척 쓴다고 덧붙인다.

"한번은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가 반색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불교신자가 아니었는데 '신행~'의 내용이 너무 좋아 매일 듣다보니 절에 나가고 싶어지더래요. 그러면서 김용림씨 덕분에 불교신자가 됐다구 빙그레 웃더군요."

연기자인 만큼 드라마에 대한 반응이 좋을 때 당연히 보람이 크지만 '신행 365일'에 대해 좋은 평을 들을 때마다 그는 불자로서 긍지를 느낌과 아울러 이 프로와 인연 맺어준 부처님의 가피를 새삼 느낀다. '신행 365일'은 개국부터 불교방송 포교프로그램의

"설사 단역일지라도 연구분석하고 나서 카메라앞에 서지요"

대표주자 중의 하나지만 개국부터 지금까지 진행자가 안바뀐 유일한 프로라는 기록도 갖고 있다.

지금은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한시간 동안 일주일치 녹음을 하지만 초창기에는 월요일에 녹음을 했었다.

"10시쯤 미리 나와 3층 법당에 들러 예불을 드린 후 17층 녹음실에 올라가곤 했어요.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에 하는 '신행 365일' 덕분에 일주일 내내 마음이 편안하고 드라마 연기도 한결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드라마속에서는 노역을 많이 하는 탓에 목소리도 늙게 만들어야 하는 탓일까. 드라마속보다 불교방송을 타고 흐르는 그의 목소리는 한결 감미롭고 잔잔하다.

김용림씨는 1961년 KBS 성우 4기로 연기생활을 시작했다.

천부의 연기자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의 '끼'는 일찌감치 발휘됐다. 국민학교 시절부터 동네아이들을 불러모아 곧잘 학예회를 열곤 했었다. 중 고등학교 때 연극반에서 재능을 키우던 그는 성우생활을 거쳐 65년 TBS TV 개국과 함께 탤런트로서의 본격 길을 걷게 된다. 그는 탤런트생활과 함께 연극무대에서도 열심히 활동한다. 81년엔 동료연기자들과 극단 「사조」를 창단하기도 했다.

김용림씨가 요즘 출연하는 드라마는 MBC 주말연속극 「여울목」. 여기에서 그는 차분하면서도 인내심 깊은 한국의 어머니 상을 연기하고 있다.

'전통적 어머니 연기'하면 단연 김용림을 꼽을 만큼 그의 어머니 연기는 독보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완고한 시어머니, 억척스럽고 강인한 어머니, 무뚝뚝하지만 속정깊은 어머니, 때로는 팔자 센 과부….

「후회합니다」「억새풀」「사랑과 야망」「그 여자」「산너머 저쪽」「여울목」등등. 방영당시 시청률에 있어서 톱을 차지하며 화제를 모았던 이 작품들에서 한결 드라마 맛을 살려주었던 것이 그의 연기이다.

하지만 젊은 나이인 20대때부터 나이든 중년여인네나 노역을 주로 맡아온 김용림에게는 비슷비슷한 배역이 지루한 일은 아니었을까.

"전혀 아닙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없는 것처럼 똑같은 배역이란 없습니다. 쌍둥이도 외모는 같지만 성격이나 취향이 다르듯 같은 어머니역이라도 똑같을 수는 없지요."

그는 대사 NG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만큼 사전 연습을 철저히 한다. 일단 역을 맡으면 세심하게 그 역할을 분석 연구한다. 몇 장면 없는 단역이라도 역을 어떻게 완벽하게 소화해낼 것인가에 골몰한다.

35년 연기자 생활을 하며 깨달은 것이 연기자는 장거리 선수여야 한다는 것이다.

"연기자의 길은 단거리가 아니지요. 장거리를 뛰는 선수마음으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인내가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스타'라고 조명을 받을 수가 있지요. 스타가 된면 명예라든가 상이라든가 보상이 뒤따르는 것이지 명예나 돈이 먼저가 아니지요."

그러한 그의 눈에는 한 작품으로 금방 유명세를 타는 요즘 일부 젊은 연기자들의 조급한 연기관과 신데렐라 풍토가 걱정스럽기만 하다.

"오래 연기생활을 하니까 싫증이 나지 않느냐는 질문을 간혹 받는데 한번도 그런 적이 없으니 천직이라 생각합니다. 연기란 것이 하면 할수록 재미있으니 묘하지요."

남편도 같은 길을 걷는 연기자이고

"허물 용서할 수있는 이해심과 여유가 나이 들면서 생겨요"

아들 역시 연기자의 대를 잇고 있는 인연 또한 생각할수록 기쁘다.

모든 일의 근본은 마음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김용림씨는 언젠가 '신행 365일'에서 들려주었다며 〈법구경〉중 위의 구절을 나지막이 들려준다. 오십 중반에 접어든 요즘 다시금 가슴에 담고 사는 경구라며.

하루하루 주름이 잡혀가는 외모, 젊음을 잃고 나이먹어 가는 것에 그 자신 한 때 몹시 초조했었다. 보통사람들도 그러할텐데 하물며 연기자, 더구나 여자 연기자에게 있어 스러져가는 외모와 잃어가는 젊음은 얼마나 괴로운 일이었을까.

그러나 김용림씨는 나이드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요즘 느끼고 있다.

젊음이란 물론 좋은 것이지만 젊었을 때 갖지못했던 이해심과 여유가 나이드니까 생기더라는 것이다.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남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관용 같은 것이 마음에 생기는 것을 느끼게 돼요. 물론 '신행365일'이라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의문이지요."

그는 인간으로서, 연기자로서 중요한 고비였던 오십대 초반에 '신행 365일'과 인연맺은 것을 부처님 가피로 돌리며 거듭 고마워했다.

〈이경숙 기자〉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2년제 야간, 전문과정 •교계 최고의 강사진 •20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 교육기관

1. 모집학과: 불교학과 { 출강과정 ○○명 / 통신과정 ○○명
2. 지원자격: 불교를 배우고자 하는 자.
3. 전형방법: 서류전형후 개별통보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2월말일까지
5. 교 과 목: 주 5일 수업

1학년	1학기	불교학개론	신 종 사 상	한국불교사	인도불교사	불 전 개 설
	2학기	불 교 입 문	화 엄 사 상	밀 교 사 상	법 화 사 상	정 토 사 상
2학년	1학기	의 식 이 론	반 야 사 상	포교방법론	불 교 미 술	유 식 철 학
	2학기	의 식 실 수	불교상담학	불교복지론	종교사회학	원전강독 I

6. 특기사항: 졸업후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호 수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 바람
140-190 서울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776-7156, 773-9171, 754-1613 FAX : 756-7258

대원불교대학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 대원불교대학

'95 학년도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 과정)

동산 百日法門대학 신입생 모집

1. 대학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 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성철스님의 백일법문(上,下)을 부교재로 선택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6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강사

1년 교과목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유식사상, 정토사상, 반야사상, 법화사상, 화엄사상	정승석(동국대교수), 권탄준(동국대교수), 권기종(동국대교수), 한보광스님(동국대교수), 김영태(동국대교수), 무진장스님(전포교원장,) 오형근(동국대학원장), 종범스님(승가대교수)
2년 교과목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종사상, 포교방법론, 밀교사상, 근본불교, 대승불교, 비교종교론	홍윤식(동국대교수), 한정섭(불교교화원장), 정병조(동국대교수), 암도스님(전포교원장), 서윤길(동국대교수), 청락스님(포교원장), 김용표(동국대교수), 성본스님(승가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1995년 1월 3일~ 2월 8일(고려제공)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총무원 불교회관 1층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가능

4. 개강일시: 1995년 2월 11일(토) 오후 6시(총무원 1층 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 본대학 사무국 (732-1206, 1207, FAX:732-1207)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733-0333)
▶ 부산 : 불서보급사 (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257-0161)
▶ 광주 : 금강불교백화점 (671-0451)

6. 원서접수처: 본대학 사무국(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총무원 1층)
※특전사항 : 상기과정을 졸업한 자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법사증 수여

대한불교조계종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조계종 초대종정 한암스님 '선문답 21조' 본지 단독입수 (중)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제6문〉 이미 깨달음이 철저한 후에는, 어떠한 것이 여실한 수양(修養)입니까?

〈답〉 옛 사람이 말하기를

"이미 관문을 지난 자는 굳이 다시 나루터를 물을 것이 없다."고 한다. 이미 깨달음이 철저하다면 어찌 수양을 논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구름과 달은 한가지이나 시내와 산은 각기 다르니, 또한 아래 문장의 주해를 들을지어다.

한 줌 버들가지 거두지 못하여
봄바람에 날리어 옥 난간에 실려 있다.
一把柳絲를 收不得하야 和風搭在玉欄干이니라

〈제7문〉 이미 수양(修養)한 후에는 어떠한 것이 여실한 증득(證得)입니까?

〈답〉 어떤 스님이 조주스님에게 물었다.

"잣나무도 또한 성불을 할 수 있습니까?"

조주스님이 말하였다.

"있다!"

"어느 때 성불할 수 있습니까?"

"허공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어느 때 허공이 땅에 떨어집니까?"

"잣나무가 성불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는 옛 사람이 무생(無生)의 도리를 철저하게 깨쳐서 거꾸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들어 쓰는 시절이겠지만, 오늘 날은 어떻게 해야 할까? 속히 일러라. 속히 일러라. 허공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생각과 잣나무가 성불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손가락을 한 번 튕기고 이르시기를.

"하마터면 주해를 잘못 쓸 뻔했다."

〈제8문〉 이미 증득한 후에는, 어떠한 것이 여실히 원만하게 끝을 잘 맺는 것입니까?

〈답〉 옛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눈앞에는 스님이 없고 여기에는 노승이 없으니, 이는 눈앞의 법이 아니오 이목(耳目)으로 이를 바 아니다."고 하니, 제방의 선지식들이 이 말을 가지고서 어떠한 사람의 경지인가를 말들 하곤 한다. 나는 여기에 이르러 모두 다 잊어 버렸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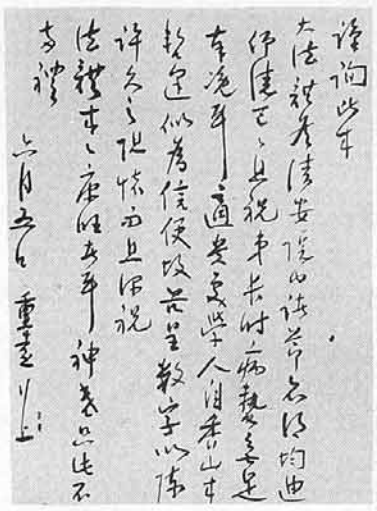
〈제9문〉 처음 발심으로부터 끝을 잘 맺는데 이르기까지, 어떠한 마음이 제일 긴요하며 귀중한 경구(警句)가 되는 것입니까?

〈답〉 석두[17]화상의 〈참동계(參同契)〉[18] 맨 끝 구절에

"삼가 참선인에게 고하노니,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하였는데, 후일 법안(法眼)[19]스님이 이 말을 들어 말하기를,

"여실한 은혜를 참으로 갚기 어렵다."고 하셨다. 나 또한 여실한 은혜를 참으로 갚기 어렵다. 하지만 어떻게 하여야 세월을 헛되이 보내지 않는 소식인가.

한 차례 큰 기침을 하고서 게송을 내렸다.



◇한암스님의 서간문. 자유자재한 필체가 선사의 걸림없는 경지를 보여준다.

근원으로 돌아가면 일과 이치 둘 아니야

달콘한 복숭아와 감을 먹지 아니하고
산을 따라 올라가 시큼한 배를 따노라.
不喫甘桃柿하고 緣山摘梨니라

〈제10문〉 간화(看話)와 반조(返照)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매양 참선인들이 서로 논쟁하니, 바라건대 자상히 논변하여 밝혀 주소서.

〈답〉 나는 웃으면서 말한다. 위에서 물은 바는 엇비슷이 곡조가 같아서 들을 만 하지만, 여기에서 물은 뜻은 또다시 바람이 별조(別調)로 부는구나. 하지만 나의 한 마디 말을 들어보아라.

큰 코끼리가 강을 건넘에 흐르는 물을 가로지르니
토끼와 말이 밑바닥에 닿지 못함을 관계치 말라.

알겠는가. 만일 알지 못한다면, 나는 오늘 날 그대들과 더불어 자세히 말하리라.

옛날에 앙산스님이 위산[20]스님에게 물었다.

"어떠한 것이 참부처(眞佛)의 주처(住處)입니까?" 위산이 말하였다.

"생각과 생각이 없는 오묘함으로써 신령한 불꽃의 무궁함을 반조(返照)하여서 생각이 다하여 근원(根源)으로 돌아가면, 성품과 법상(法相)이 상주(常住)하여 일〈事〉과 이치〈理〉가 둘이 아니요, 진불(眞佛)이 여여하다."

앙산이 그의 말에 곧바로 대오(大悟)하였다. 그 후 심문분(心聞賁)[21] 선사가 이 화두를 들어서 말씀하셨다.

"생각과 생각이 없는 오묘함으로써 신령한 생각의 무궁함을 반조하여서, 생각이 다하여 근원(根源)으로 돌아간다."고 하니, 여기에서 벗어나면 다시 무슨 정결한 병이 있겠는가. 어떤 사람이 시끄러운 티끌 속에 들어가서, 거스르고, 순응한 들 무엇이 물들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성나게 하리오. 그러한 이후에 밝음과 어둠 두 가지를 철저하게 타파하여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곳을 향하여, 대비원(大悲院)에서 재화(齋話)가 있다는 화두를 간파하여야 바야흐로 유래(由來)를 알 수 있으며, 바야흐로 낙처(落處)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때에 한 쪽 눈만으로도 산하대지를 조파(照破)하니, 마치 하늘에 장검을 빗겨든 것 같아서 어느 누가 감히 그 앞에서 바라볼 수 있겠는가. 그대에게 이와 같은 힘이 있어야만이 바야흐로 능히 성인의 대열에 들어가서 인행(因行)을 부지런히 닦아 자비와 지혜의 원력을 성취하며,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이로운 법문도 또한 오직 이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고 별도로 다른 길은 없는 것이다."

"신령스런 불꽃의 무궁함을 돌이켜 생각한다."는 것이 반조가 아니겠는가.

"대비원(大悲院)에서 재화(齋話)가 있다는 것을 본다."는 것이 화두를 말함이 아니겠는가.

앙산은 "신령한 불꽃을 돌이켜 생각한다."는 말에 이미 대오(大悟)하였거늘, 심문분(心聞賁)선사는 무엇 때문에 다시 화두를 관(觀)하도록 하였을까?

깨달음을 얻은 자가 모두 앙산과 같다면 다시 말할 것이 없으려니와, 만일 앙산의 깨달은 바에 미치지 못한다면 지견(知見)이 없어지지 않아서 생사의 마음을 타파하지 못할 것이다. 생사의 마음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오(大悟)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는 심문분(心聞賁) 선사가 반조하는 가운데 철저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 이처럼 특별히 말한 것이다.

또한 고봉(高峰)[22]은,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一歸何處)"의 화두를 들다가 '죽은 시체를 끌고 다닌다.'는 언구(言句)를 타파하여 대지가 잠기고 물아(物我)를 모두 잊어서 정(定)을 잡고 주인이 되었지만, 설암스님의 '잠잘 때에 꿈도 없고 생각이 없는 곳에서는 주인이 어느 곳에 있는가.'라는 물음을 받았을 때, 곧 바로 대답할 말이 없고 말할 수 있는 이치가 없었다. 설암스님이 다시 나에게 '일각주인공(一覺主人公)이 어느 곳에서 안신입명(安身入命)을 하는가.'를 관(觀)하도록 하였는데, 결국은 함께 잠자는 도반 스님이 목침을 떨어 뜨리는 소리를 듣고서 그물 속에서 뛰쳐나온 듯이 툭 트이어 한 생각에 작위가 없어지고 천하가 태평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옛 그 사람이오, 옛날의 행리(行履)가 바뀌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각주

17)석두(石頭) : (700~790) 당나라의 승려. 속성은 진(陳)씨. 희천(希遷)선사의 법호. 출가 후에는 조계에 가서 육조스님을 모셨는데, 육조의 유언으로 청원 행사를 찾아가 크게 깨치고 그의 법을 이었다.

18)참동계(參同契) : 당나라 석두희천(石頭希遷)지음. 5언(言) 44구 220자로 된 장편의 고시(古詩). 선종 학문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현상이 곧 실재라는 이치를 기록한 것. 참은 만법 차별의 현상, 동은 만법평등의 본체, 계는 차별이 곧 평등, 평등이 곧 차별인 묘용(妙用).

19)법안(法眼) : (885~958) 선종의 1파인 법안종(法眼宗)의 시조. 법명은 문익(文益). 중국 여항(餘杭) 사람.

20)위산(潙山) : (771~858) 중국 위앙종 초조(初祖). 법명은 영우(靈祐). 속성은 조(趙). 시호는 대원 선사. 복주 장계 사람. 백장(百丈)스님의 법회에 가서 공부하다 크게 깨달았다.

21)심문분(心聞賁) : 생몰연대 미상. 임제종 황룡파, 육왕 개심의 제자.

22) 고봉(高峰) : (1238~1295) 원나라의 승려. 속성은 서(徐)씨. 이름은 원묘(原妙). 운암(雲巖) 흠(欽)의 법을 잇다. 대오(大悟)후 천목산(天目山) 서봉에 들어가서 사관(死關)을 짓고 온거, 16년 동안을 문턱을 넘지 않고 마침내 57세에 그곳에서 입적(入寂)하였다. 참선하는 이의 길잡이가 되고 있는 〈〈선요(禪要)〉〉와 〈〈고봉록(高峰錄)〉〉을 저술함.

이해에 걸리면 불법실천 어려워

문 경소에 부처님 말씀을 따르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해가 좌우되는 문제에 부딪히면 말씀따라 처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인천시 중구 신흥3동 · 이서호)

답 철석같은 믿음이 부족한데서 오는 동요라고 봅니다.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해와 관계되는 문제가 나오면 가르침을 잊는다고 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런 이끝의 가부와 관계되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 열심히 믿으니까 이익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용납하는 세속적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부처님 말씀을 믿으신다면 현실문제에서 넘어지든 일어서든, 가든 오든 그런 것 상관하지 않고 흔들림없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돈이 많이 벌린다해서 그걸 불법의 덕으로 돌릴 일도 아니고, 적게 벌린다해서 또 탓할 일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벌든 못 벌든 그런 일에 걸림없이 보무도 당당히 걸어가는 길을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당당한 길이냐, 바로 '내가' 했다는 생각이 앞서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라고 하니까 이익이 온다, 불이익이 온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이끄시는 삼계도사이십니다. 비할 데 없는 스승이십니다. 그런 큰 스승의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무엇을 믿겠습니까? 철석같은 믿음으로 근본자리에 놓고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요.

마음공부를 거듭 말씀하시는 뜻은

문 스님께서는 거듭거듭 마음공부를 강조하시는데 그 까닭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서울 송파구 방이동 · 박금순)

답 우리가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서 한 철 살다가는데 그 짧은 기간동안이나마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고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불법은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이해하는데는 특별한 자격도 학식도 필요없습니다. 누구나 다 배우고 자하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도리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질문하신 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지구라는 혹성의 생명체로서 살아가려면 먹고 먹히는 전쟁아닌 전쟁을 해야 합니다. 미생물에서 인간이 되기까지 계속 올라오면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겪었겠습니까. 그때마다 또 뼈저린 아픔을 참고 견딘 것은 어떡하구요. 그점을 생각하면 어느 때는 사는 게 하찮고 쓸데없어 보이고 어느 때는 하늘 쳐다보고 웃는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만 모두들 내몸, 내가정 하면서 좁디좁은 생각으로 넓게 보지 못하고 사니 막막해서 그럽니다.

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요? 지금 과학문명이 발달되어서 온갖 물건이 다 만들어지고 땅과 하늘을 주름잡게 되었지만 마음공부와 비교한다면, 아니 마음공부란 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만 아무튼 마음이란 빛보다 빨라서 한순간에 과거로 갔다 올수도 있고 미래로 갔다올수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엄식이라도 녹일 수 있고 윤회성,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업보성 … 그런 것을 몽땅 녹일수도 있는 공부입니다. 또 가깝든지 멀든지 간에 끌어다 폴려면 끌어다 보고 놓아두고 불려면 놓고보고 가져다 먹을려면 갖다먹고, 갖다주려하면 갖다 줄수 있고, 과거생의 살림살이에 따라 지금 찰나찰나 생활속에서 나오는 업보도 녹일 수 있는 공부입니다. 나는 새를 떨어 뜨리려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만명이 있다해도 동시에 내가 될 수도 있는 공부입니다. 만명이란 숫자없는 숫자이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천백억 화신으로 나투어 내가 되지 않는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자유 자재의 대권을 갖는데, 이 우주천지의 모든 대천의 소유자인데, 그야말로 엄청난 공부라서 그걸 어찌 말로 다 하리까.

주위서 개종하라고 성화인데

문 주위 분들이 자꾸만 타종교로 개종하라고 성화를 부려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는지요.

(서울 노원구 공릉2동 · 장순석)

답 불교란 특정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와 비교되는 그러한 종류의 가르침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불교라 함은 이름입니다. 참으로 불교를 배우고자 하면 종교로서의 불교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가르침으로서의 불교를 알아야 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도리를 좇아 부처가 되는게 이 공부입니다.

또 부처란 이름없는 것을 부처라 하지 이름있는 것을 부처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란 부처로 기만히 있는게 부처가 아닙니다. 모든 중생을 위해 수없는 모습으로 몸을 나투기에 사생자부인 것입니다. 진짜 부처는 자유자재함을 이릅니다.

불법이다, 불교다 국한지으면서 사찰에 가고 떴이놓고 부처님 믿는다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부터 밝게 알라고 하셨습니다. "네 몸과 내 몸이 다르지 않고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다르지 않고 일체 생명, 일체 마음이 다르지 않다"하셨습니다. 다만 생각이 다를뿐이지요. 사람들이 기독교니, 카톨릭이니 이슬람교니, 각자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기복으로 빠집니다. 어쩌면 그렇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게 막아놓고는 바깥 상대로만 가게하는지? 그리되면 세세생생 노예밖에 더 되겠습니까?

종노릇이나 하라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눈뜬 장님 되지말고, 귀머거리 되지말고 절름발이 되지말고 당당하게 이 우주 천하는 모두 네 마음에 직결되어 있으니 천상천하에 우뚝하라'고 하신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름에 끄달리고, 이름을 믿지 마시고요.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문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95 을해년 새해에도 부처님 자비 가득한 한해 되십시오

전통문화재 조각회 합장

귀의 삼보하옵고, 저희들을 아껴주시고 격려해주신 재방스님께 찾아뵙지 못하고, 새로운 한해를 맞기가 아쉬워 지면을 통하여 인사드립니다. 송구영신하옵고 부디 대안하소서.

회 장 김익홍
부회장 송근영
운영위원 허길용 · 이상철
총 무 이재순
감 사 김광렬 · 이청원

회 원 김익홍, 허길용, 김영배, 조병현, 이상철, 이진형, 이청원, 송근영, 박상돈, 박찬수, 박찬붕, 김정걸, 김광현, 류수관, 안태수, 신윤기, 정호석, 한봉석, 김태길, 제영진, 하명석, 오윤용, 이재순, 김광렬, 김종화, 양봉철, 남기설, 한주영, 윤만걸, 이기경, 김용섭, 임성안, 정춘식, 김홍복, 이태만, 김대현, 안강수

※ 저희 전통문화재 조각회 회원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엄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 장인으로 일체의 사물에 일체의 불심을(일체중생 실유불성) 표상코저 노력하며 불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5년도 4월 8일 봉축행사의 일원으로 덕수궁(국화전)에서 전시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수요 인터뷰

"부산 광주에도 佛音전달 큰 기쁨"



—지난 8일 부산과 광주에서 불교방송이 성공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때늦은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교계의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의 노고가 크셨는데 두 지역의 개국과정을 설명하여 주십시요.

▲바쁜 중에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교방송의 지방국이 부산과 광주에 설립된 것은 선거공약에 따른 것입니다. 원래는 대구와 청주에도 지방국을 허락하기로 공약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허락하는대로 계속해서 많은 곳에 지국이나 송신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범종단적으로 많은 후원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한 일로 바꿀 수 있으리라 봅니다.

☆☆☆☆☆☆☆☆☆☆☆☆☆☆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스님

☆☆☆☆☆☆☆☆☆☆☆☆☆☆

전국 곳곳 방송추진 위한 범종단 지원 급선무

윤리성 회복에 주력

부산과 광주에 지국이 설치되었는데 모두 서울에 있는 (재)불교방송의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사 1법인의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주무관청에서도 지방무선국허가(93.12.2) 추천을 불교방송법인 앞으로 했습니다. 이에 제11차 불교방송이사회(93.12.23)에서 지방국 운영규정 제정을 위한 위임안이 가결되었고, 제12차(94.2.25)이사회에서 지방국 운영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부산과 광주지역의 4부대중들이 단결하여 뜻 깊은 성도절에 시험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2월1일이 되면 정식으로 첫 전파를 발사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보다 많은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메아리 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간구해 마지 않습니다.

—때맞춰 불교TV도 시험방송에 들어갔습니다. 불교방송과 불교TV가 어떠한 협조 속에서 매체포교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불교방송과 불교TV는 불교라는 한 몸에 붙어있는 양팔과 같다고 봅니다. CATV는 시청자들의 안방에까지 들어가 현장감 있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리라 봅니다. 라디오도 그 나름의 특성이 있습니다. 즉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청취할 수 있는 점입니다. CATV보다 라디오를 청취하기가 훨씬 쉽지요. 따라서 각 매체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 포교효과의 극대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인자의 활용과 합리적인 조직의 운영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불교방송이 인적자원의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판의 소리도 있었는데 이와 관련한 이사장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고 싶습니다.

통일운동에도 나서야

▲회사경영은 사장의 책임이므로 본인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재를 양성하여 잘 활용할 때 불교방송 뿐만 아니라 불교계가 발전하리라 봅니다. 아쉽게도 그동안 교계에서는 전문 방송언론인을 양성하지 못했습니다. 방송언론계에 종사하는 불교신자나 불교방송의 개국 이후 양성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런데 불교TV의 개국이나 언론시장의 확대로 인하여 불교방송에서 일하던 많은 전문인력이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불교방송도 인력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한국방송언론계의 전반적 현상입니다. 불교방송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엘리트들을 선발하여 현재 훈련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현재의 사장께서 잘 해결하리라 믿습니다.

—통일 이후의 북한 지역에 대한 방송문제도 현 시점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볼 때라 봅니다. 흑시 불교방송에서 이 문제에 대한 별도의 준비를 진행할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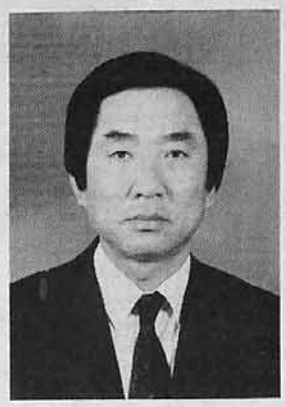
▲불교방송은 이제 다섯살 박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그동안은 내실을 다지기에 급급했으며, 앞으로도 당분간은 내실을 다지는데 주력해야 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통일이 민족의 숙원이며, 북한지역에 있는 동포들에게도 부처님의 맑고 향기로운 음성을 들려주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산과 광주에 지방국이 설치되었고, 점차 전국 어느 곳에서든 불교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마무리가 되면 본격적으로 통일 이후의 불교방송 영역 확대에도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시어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불교방송이 날로 발전하길 앙망합니다.

대담 : 차차석 조사자료부장

나의 수행일기

한규만 <동방계전 대표이사>



〈열반경〉의 일체중생 실유불성(一切衆生悉有佛性) 즉 모든 중생에게는 반드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품을 갖고 있으므로 유정,무정의 일체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성구를 가슴깊이 되새겨 이제는 생활신조가 되다시피 하고 있다.

서울 중심부를 감싸고 있는 도봉산, 삼각산, 북한산의 아랫 마을인 창동이라는 곳이 나의 고향이다.

화계사, 망월사, 천축사 등 크고 작은 많은 사찰 가운데 우리 집안에서 다니던 사찰은 기도 도량으로 유명한 도선사였다.

종가집이며 대대로 독실한 불교집안이라는 덕분으로 어릴적부터 자연스럽게 절을 찾게 되었고, 합장하는것과 부처님께 반야심경등의 염불공양을 드리는 것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으며 불자로써 성장하는데 충분했다.

그러나 6.25의 비극은 우리 집안에도 예외일 수 없었다. 당시 대학에 재학중이던 맏형(종손)이 학도병에 자원하여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고 끝내는 도선사 바로 아래 산턱에서 총살당한 시신으로 발견되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온집안 식구들이 이른 새벽부터 그토록 무사건강을 빌었건만 이렇게 엄청난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나니 모친께서는 충격과 슬픔을 참지 못하시고 마침내 중병을 얻어 오랫동안 병고로 시달리다가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다.

슬픔과 충격 그리고 기우는 집안 형편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의지할 곳 마저 없게된 나는 실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후로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진학을 못하게 되어 흡혼단신으로 상경을 결심하게 되었고 힘들고 외로운 고학생활이 시작되었다. 힘든 생활전선에서 비고품과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나는 자연히 신앙생활과는 거리감이 생겼고 종교와는 인연이 없는 사람처럼 살게 되었다.

결국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오늘날까지 실낱같은 불도의 연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관세음보살같은 아내와의 만남이었을 것이다.

신앙이란 인연이 있고, 때가 있는 모양이다. 어떤 인연에 의해서인지 신심깊은 아내를 만났으니 말이다. 그리고 전폭적인 믿음으로써 자신의 신앙을 주장하는 아내와의 인연으로 인해 조금씩이나마 부처님과의 만남이 다시 시작되었고 신앙의 삶도 찾게 되었다.

깨끗하지 않은 진흙속에서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아름다운 한송이 꽃으로 피어나는 연꽃처럼 수많은 인고의 생활끝에 다시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보니 그 감동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남 위해 살자" 현장포교에 주력



이런 부처님과의 인연으로 자주 절을 찾게 되었으며 다시 발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결정적으로 부처님 제자가 된 동기는 뒤늦게 다니게 된 대학원에서 (주)건영 업상호 회장님과 불자로서의 만남이었다.

특히 85년 여름 조계사 동산반야회에서 주최한 불교교양대학에서 무진장스님과의 만남은 새로운 불법의 세계를 접하는데 충분했다.

하루하루 체계적인 불교교리를 배우게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심이 절로 일어났고 본래 내 마음의 고향을 찾은 것처럼 환희심이 일어났다.

사람들 누구나 고향이 있기 마련이다. 내가 태어난 고향, 어릴적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고향, 부모형제가 함께 동고동락하던 고향 그래서 우리 모두는 고향을 잊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마음의 고향을 찾기 위해 늘쌍 번뇌의 수레바퀴속에서 맴돌고 있는것이 아닐까?

대자대비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여법히 실천할때 이른바 '피안의 고향'을 찾게 되고 본래 자신의 고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피안의 고향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 본격적인 불법공부를 하던중 86년 군불교진흥회 간사장직을 맡으면서 점차 부처님의 대자대비한 불법의 세계로 다가서게 되었다.

전·후방각지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불자를 위한 포교사업이 절실하다고 느끼고 부족하나마 군불교 활성화를 위해 발벗고 나선지 벌써 8년째이다.

장병불자의 대다수가 군에와서 불교를 처음 만난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군포교가 매우 중요하다.

군포교를 담당하는 군승법사를 지원하고 불교중흥을 위해 무소의 뿔처럼 용맹정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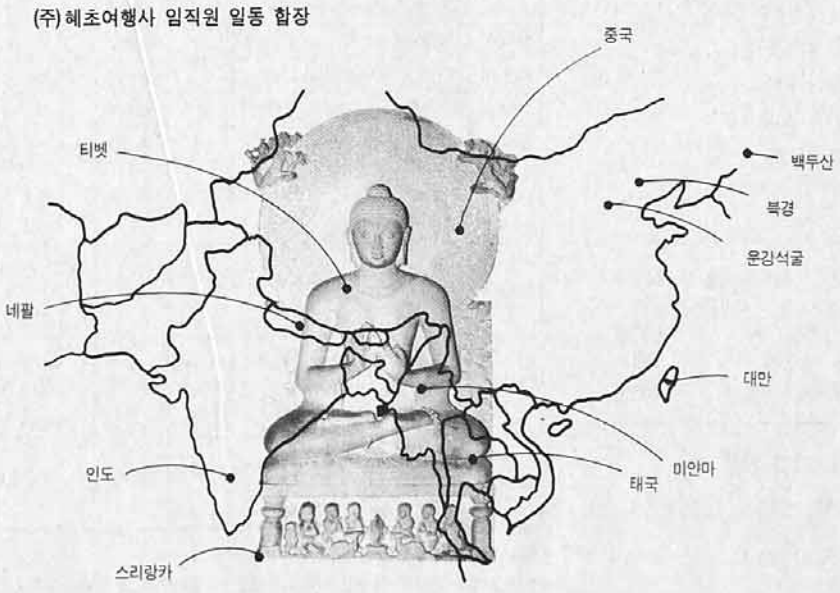
뿐만아니라 전법도생에 목적을 두고 8만4천의 부처님 말씀을 익히고 대중과 함께 살면서 대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나의 작은 서원이다.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말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포교의 현장에서 불자들과 항상 함께 할것과 남을 위해 살아갈 줄 아는 불제자가 되기 위해 부처님께 두손을 모아본다.

불교성지순례

귀의삼보하옵고
지난 해 보내주신 여러 불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을해년 한해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주)혜초여행사 임직원 일동 합장



인도·스리랑카 15일
· 출발 : 2월 12일 · 동참금 : 215만원
· 일정 : 서울—델리—럭나우—발람푸르—룸비니—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나란다—라지기르—부다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오랑가바드(엘로라·아잔타)—봄베이—콜롬보—아누라다푸라—풀론나루와—덤불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싱가폴—서울

인도·네팔·태국 11일
· 출발 : 3월 2일 · 동참금 : 165만원
· 일정 :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취산—죽림정사—바이샬리—쿠시나가르—카필라바스투—기원정사—사윗성—룸비니—카트만두(보드넛·스와이얌부넛)—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사원)—서울

스리랑카 6일
· 출발 : 2월 10, 24일 · 동참금 : 108만원
· 일정 :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풀론나루와—시기리야—하바라나—덤불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인도네시아 5일
· 출발 : 2월 19일 · 동참금 : 85만원
· 일정 : 서울—덴파사—족자카르타—자카르타—서울

대만 5일
· 출발 : 2월 20일 · 동참금 : 65만원
· 일정 : 서울—타이페이—고웅—화련—타이페이—서울

■여행조건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수준) 2인 1실 수준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최소 출발인원 : 10인 ●전문 가이드 동행 ●여행자 보험

HYECHO ADVENTURE TOURS, LTD. 혜초여행사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 544-1533 (代)

다시 푸는 경서

초발심 자경문 (11)

其六 切莫妄自尊大 輕慢他人
(기육은 절막망자존대하고 경만타인이어다)
修仁得仁 讓讓 爲本
(수인득인은 겸양이 위본이요)
親友和友 敬信 爲宗
(친우화우는 경신이 위종이라)
四相山 漸高 三途海益深
(사상산이 점고면 삼도해익심하나니)
外現威儀 如尊貴 內無所得 似朽舟
(외현위의는 여존귀나 내무소득은 사후주라)
官益大者 心益小 道益高者 意益卑
(관익대자는 심익소하고 도익고자는 의익비니라)
人我山崩處 無爲道自成
(인아산붕처에 무위도자성하나니)
凡有下心者 萬福自歸依
(범유하심자는 만복자귀의니라)

여섯째, 망념되이 저를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
어짐(참다운 길)을 닦아 이루는데는 겸손과 양보(하심)가 근본이 되고 벗(도반)과 사귀는데는 공경과 믿음이 으뜸된다.
네가지 상(아·인·중생·수자상)이 높아지면 삼악도 고해는 더욱 깊어진다.
겉보기 형상·거동은 존귀해 보이나 안으로 관하여 터득하는 바 없다면(이 몸은) 마치 낡은 배와 다를 바 없느니라.
벼슬이 높으면 높을 수록 마음은 더욱 왜소해지고 도가 높으면 높을 수록 뜻은 더욱 낮아지느니라.

색을 엄격히 금하시되 '여색을 보거든 마치 호랑이·뱀을 본듯이 하고 금·옥이 수중에 들어오거든 목석과 한가지로 보라' 하셨다.

雖居暗室 如對大賓 隱現同時 內外莫異
(수거암실이나 여대대빈하고 은현동시하며 내외막이어다)
心淨則善神 必護 戀色則諸天 不容
(심정즉선신이 필호하고 련색즉제천이 불용하나니)
神必護則 雖難處而無難
(신필호즉 수난처이무난이요)
天不容則 乃安方而不安
(천불용즉 내안방이불안이니라)

비록 어두운 방에 홀로 있어도 큰 손님 대한듯이 하고(아무도 보지 않는 어두운 방에 있어도 귀한 손님 마주 대한듯 위의지키고) 보일때나 안보일 때나 한가지로 같아서 마음과 행실이 다르지 않을지어다.
마음이 청정한 즉 신장이 반드시 지켜주고 색을 그리워 한 즉 하늘이 용납치 않으리니(※선신과 제천은 제불보살 또는 자성불의 의미임) 신이 반드시 지켜주는 즉 비록 어려운 처지라도 어려움이 없고(마음이 여여함을 의미함) 하늘이 용납치 않은 즉 이에 편안한 곳에 서도(마음은) 편치 못하리라.

頌曰, 利劍揮王弓 獄鎖 淨土佛接蓮臺
(송왈, 이욕염왕인옥쇄요 정행타불접연대니라)
鎖拘入獄苦千種 船上生蓮樂萬般
(쇄구입옥고천종이요 선상생연락만반이니라)

게송으로 말하노라.
이욕에 빠지면 염라왕이 지옥에 가두고 마음 청정하면 아미타불이 연화대로 영접하리 쇠고랑 차고 지옥에 들면 괴로움이 천가지요 배(바라밀)에 올라 연화대로 나아가면 즐거움이 만반이로다.

其八 莫交世俗 令他憎嫉
기팔은 막교세속하야 령타증질이어다.
篤心中愛曰沙門 不戀世俗曰出家
리심중애왈사문이오 불련세속왈출가니라
旣能割愛揮人世 復何白衣 結黨遊
기능할애휘인세니 부하백의로 결당유리오
愛戀世俗 爲 [illegible] 由來 非道心
애련세속은 위도철이니 도철은 유래로 비도심이니라
人情濃厚 道心疎 冷却人情永不顧
인정농후면 도심소니 냉각인정영불고니라

여덟째 세속과 사귀어 다른 이로 하여금 증오·질투케 하지 말라
마음 속 집착애욕(갈애) 여의니 사문이라 하고 세속 인연 그리워 않으니 출가라 한다.
이미 갈애를 능히 베고 인간 세상 뿌리쳤으니 다시 속인과 무리지어 교유하겠는가.
세속을 심히 그리워 함은 도철이니 도철은 본래로 도 닦는 마음이 아니다. 사람 사는 정이 짙으면 도심은 성글어지니 냉정하게 인정물리쳐 영영 돌아보지 말라.

龍 眼

자기를 높이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라
여색·재화·세속인연 멀리해야 출가사문

내다, 너다 둘로 보는 상이 무너진 곳에 함이 없는 도는 절로 이뤄지나니 무릇 하심하는 이에게는 만복이 절로 돌아와 의지하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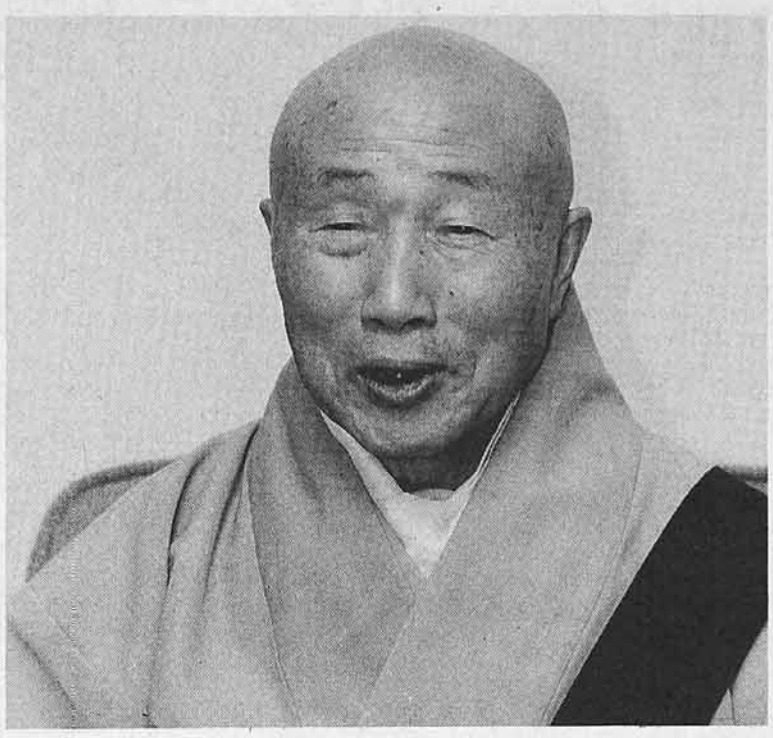
頌曰, 憍慢摩訶藏般若 我人山上長無明
(송왈, 교만진중장반야요 아인산상장무명이오)
輕他不學踰踰老 病臥牟尼限不窮
(경타불학용종로하면 병와신음한불궁이니라)

게송으로 말하노라.
교만한 마음(교만이라는 티끌)속에 반야지혜 묻혀 버리고 아상·인상 높은 뫼엔 무명만 자라네. 남을 업수히 여겨 배우지 않고 뒤뚱뒤뚱이 몸 늙으면 병들어 자리보고 신음·한탄 끝이 없네.

其七 見財色 心須正念對之
(기칠은 견재색이어든 심수정념대지이어다)
害身之機 無過女色 要道之本 莫及財貨
(해신지기는 무과여색이요 상도지본은 막급재화니라)
是故 佛垂戒律 嚴禁財色
(시고로 불수계율하사 엄금재색하사대)
眼覩女色 如見虺蛇
(안도여색이어든 여견호사하고)
身臨金玉 等視木石
(신임금옥이어든 등시목석하라)
일곱째, 재물과 여색을 보거든 모름지기(가르침 따라) 바른 생각으로 대하라.
몸을 해치는 기틀로 색정보다 더한 게 없고 도를 상하게 하는 근본으로 재화에 미칠 게 없다.
이러므로 부처님께서 계율을 세우사 재물과

지상 법석

"가르침 실천 수행하는 불자만



성수스님 <법수선원 조실>

오늘 산승은 여러 대중 앞에서 사바세계의 때를 벗어 던지고 씻어 버리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이 산승의 말을 듣고 신 잘 벗는 것부터 배웠으면 합니다. 자기가 신는 신 하나 제대로 못 벗는 사람은 부처님 뱃속에 들어가도 진리니, 법이니, 설법이니 하는 것을 못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신 하나만 제대로 잘 벗고, 모자 하나만 반듯하게 잘 쓰고 입을 잘관리하면 됩니다. 또 손도 소중한 손, 귀중한 손, 위대한 손인줄 알고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엔 발걸음 한자죽 잘못 내딛으면 3대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을 한자죽만이라도 백번을 생각하고 또 해서 한자죽 옮겨 놓을 수 있는 장부가 돼야 합니다. 좇아가면 다 걷는줄 알지만 생각하고 걷는 것 하고, 생각않고 걷는 것하고 태도와 모습이 천지차이 입니다.
자신의 신체 하나 하나를 잘 관리하지 못한 채 부처님 앞에 절만 꾸벅꾸벅하는 것은 껍데기 불자입니다. 껍데기 불자만으로는 앞으로의 한국불교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5백생동안 자기 눈, 입, 손, 발 관리를 잘 하셨기에 3천년 존경받는 산불자가 되셨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승가와 우바새, 우바이도 이것들을 잘 관리해 산불자가 돼야 함을 숙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한국불교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닐터입니다. 자신의 굳은 심지와 실천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굳은 각오없이는 허사로운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신을 제대로 벗는 사람

우리나라 불자치고 정구업(淨口業) 진언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으나 실천수행하는 이들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것은 '입에 업되는 말을 맑게하고 참말만 하겠습니다'하고 부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발원해 놓고 실행하지 못할 때는 스스로 벌을 설줄 알아야 하고 불제자로서 참회해야 합니다.
또한 자기 허물은 걱정않고 남의 걱정과 허물을 들춰내기를 일삼는 불자는 부처님 앞에 합장할 자격이 없습니다.
남의 허물만 꾸짖지 말고 힘써 내 몸을 되살펴 보아야 합니다. 남을 흉보기 이전에 나는 어떤가 하고 먼저 반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잣대에서 남을 판단하고, 강요하고 하는 것은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닌 남의 생각도 옳을 수 있다고 항상 되돌이켜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만일 이렇게 깨달으면 그 때문에 다툼은 길이 쉬어질 것입니다.
장부는 일언이 중천금이라 했습니다. 장부가 전 인류에 살이되고 뼈가 될 수 있는 장부의 말 한마디가 수백년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구업진언을 발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말만 하겠습니다'하고 아침에 발원하고 저녁에 가슴에 손 얹고 자기하루를 생각해보면 거짓말, 나쁜말도 했고 비겁하고 용렬한 말도 해 하루가, 전 생애가 엉망이 돼 버렸음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업을 지어놓고 부처님께 복달라, 명(命) 달라하는 것은 진정한 참불자의 모습이 아닐 터입니다. 스스로 수행하지 못하고 구복을 일삼는 것은 헛 껍데기에 불과한 불자입니다.
정구업진언 즉 진실한 말, 고운 말, 득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말 아니면 하지 않겠다는 포부와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살아야 합니다.
천타불만타불, 천등만등 달아 발원하느니 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발원은 그에 대한 업만을 계속 쌓아갈 뿐입니다.
그 다음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을 독송 합니다.

「나무 사만다 못다남 옴 도로도로 지미 사바하」
그 입만 잘 관리해서 득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는 말만 하면 아들딸, 온 동네가 다 편안해 질 수 있습니다. 이웃 좋고, 나라 좋고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극락세계가 멀리 있는게 아니고 내 입하나 관리 잘해서 내 마음 편하고 식구모두 편하고 이웃, 나라가 다 편하니 그것이 바로 극락세계인 것입니다. 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수경에서 오방내외안위제신진언 다음에 개경게(開經偈)를 말합니다.
무상심심미묘법(無上甚深微妙法)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의 법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뵙기 어려워라.
아금문견득수지(我今聞見得受持) 내가 이제 다행히도 듣고 보고 지니오니
원해여래진실의(願解如來眞實意) 부처님의 참된 뜻을 알아지게 하소서.
천하의 만물이 선(禪) 아닌게 없고, 세상만사가 도 아닌게 없습니다. 그게 법(法)인 것입니다. 그 법을 알고 살다 보면 인생이 즐거움을 느껴, 나쁜것도 있고, 욕심도 잇는 산불자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일을 볼 수 있는 혜안

내 마음의 구정물이 맑아지면 저절로 피가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눈이 맑아집니다. 그러므로해서 1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이 생기고 부처님이 왕궁과 처자를 버리고 출가한 이유 또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갈 때 내 마음의 법을 스스로 갖고 절을 찾을 때만이 우리 마음 속에 득실거리는 8만4천 마구니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투철한 각오가 없으면 번뇌마구니에 휩싸여 방황하고 고통스런 인생을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단지 구복을 위해 절을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 스스로가 자신으로 인해 복을 구할 수 있는 불자가 되도록 실천수행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5백생동안 자비보시행을 하셨습니다. 자비보시행은 물질적인 보시행 보다 정신적인 보시행에 더욱 중점을 둡니다.
나는 '복짓는 것은 삼세의 원수가 된다'고 말합니다.
물질 복을 짓는다고 한평생 허덕이고, 물질 복을 지어서는 만석꾼이 되어 열쇠로 물질 보관한다고 한생 또 허덕이고.
복 짓는 타령하느라 정신없이 살아 한생을 무의미하게 살게됩니다. 그러니 삼세를 헛 산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 복을 지을게 아니라

아직도! 인도 성지 순례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갑술년 한해 동안 성원하여 주신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년도 성실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수미산 가족 일동—

여행번호	방문지	여 행 일 정	요 금	출 발 일			
				'95.1	2월	3월	4월
INA-01	인도 10일	불교 4대 성지	150만원				
INA-02	인도 30일	인도 전역 자유여행자를 위한 왕복 항공권					
INA-03	인도 12일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기르-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바람푸르)-럭나우-델리-방콕	180만원 (155만)		95년 2월 16일	3월 7일	
INA-04	인도 15일	방콕-델리-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나지기르-파트나-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산치-아잔타-엘로라-봄베이	210만원 (180만)		95년 2월 10일	3월 3일	
INA-05	인도 17일	방콕-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지기르-나란다-파트나-바이샬리-쿠시나가르-룸비니-기원정사-럭나우-아그라-보팔-산치-꼴가온-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맘마드-봄베이-방콕	230만원 (200만)		95년 2월 7일	2월 28일	
INA-06	인도 22일	방콕-카투만두-룸비니-사나울리-기원정사-쿠시나가르-바이샬리-파트나-나란다-라지기르-보드가야-바라나시-상카시아-아그라-델리-보팔-산치-꼴가온-아잔타-오랑가바드-엘로라-맘마드-봄베이-콜롬보-아루라다푸라-폴로나누와-시기리아-캔디-방콕-아유타야-홍콩-마카오	280만원 (240만)		95년 2월 5일	2월 19일	3월 5일

INDIA 인도관광성 | Travelite (India) 인도전문여행사

그럼, 지금 수미산 여행사로 문의하십시오
풍부한 경험과 친절한 안내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모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도라하더라도
저희 수미산과 함께라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출발예정일

대 만	(4박 5일)	1월 22일	(불광사·일월담·화련·타이페이)	65만원
대 만	(4박 5일)	2월 24일	(불광사·일월담·화련·타이페이)	65만원
싱가폴·발리	(5박 6일)	2월 18일	(싱가폴·보루부둘·발리)	90만원
방콕·홍콩	(5박 6일)	2월 4일	(방콕·홍콩·마카오)	75만원
스리랑카	(8박 9일)	2월 14일	(스리랑카 페라헤라 축제)	140만원

(주) 수미산 여행사
SUMER TOUR CO., LTD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9 원딩빌딩 2층
전화 02-720-3241~7 / 팩스 02-720-3248
국외여행업 등록 제358호

여행번호	방문지	여행일정	요금	'95.1	2월	3월	4월
SMR-01	미얀마, 태국 8일	양곤-만달레이-파간-페구-방콕-아유타야(파타야)	129 만원	10	10 21	11 22	5 18
SMR-02	일본 5일	오사까-나라-교또	95 만원	18	17	17	20
SMR-03	일본 6일	동경-나라-교또-오사카	135 만원		15	8	22
SMR-04	대만 5일	타이페이-일월담-고웅-불광사	55 만원	22	24	12	20
SMR-05	대만 6일	타이페이-일월담-고웅(불광사)-화련	65 만원		24	23	8
SMR-06	태국 6일	방콕-파타야-아유타야	60 만원	8	8	15	21
SMR-07	동남아 3개국 8일	홍콩-방콕(아유타야)-싱가폴(바탐)	90 만원	18	21	17	10
SMR-08	동남아 4개국 10일	방콕-아유타야-보루부둘-홍콩-타이페이(불광사)	155 만원		27	19	14
SMR-09	(8박 9일) 스리랑카	홍콩-콜롬보-아누라다푸라-폴론나누와-캔디-누와라엘리야(불족산)〈페라헤라 축제〉	140 만원	10	⑭	9	15
SMR-10	(7박 8일) 태국 스리랑카	방콕-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캔디	108 만원	11	10,21	20	21

*상기 일정중 단체 출발시에는 일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상기 코스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상 법석

부처님 될 수 있습니다"

지혜의 복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 복을 지어 불우한 이웃을 돕거나 유용하게 쓴다면 물질 복을 짓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혜있는 사람은 욕심을 버려 한가지 물건도 가지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깨끗이하여 모든 번뇌를 지혜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승가든, 재가든 물질을 너무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해서 부정부패가 생기고 세력다툼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태국 같은데서는 복을 비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태국엔 역사이래로 전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옳바르게 사니깐 전쟁이 있을리 없는 것이죠. 내전에 의해 나라가 망하지 외적의 침입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일은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자기 일 잘하고 지혜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불교이고 불제자의 도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들이 기도만 하면 부처님이 뭐든 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복하는 것, 복을 지으라는 것이 물질 복을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복을 스스로 노력해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밝은 사람한테는 어둠이 다가올 수 없듯 깨달음을 위해 수행하는 이에게는 고(苦)가 있을 수 없습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오 성냄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거만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애욕과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정신에도 물질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 괴로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피가 독한 피가 되어 돌아옵니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화낼 때 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껴보세요. 험악한 얼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아낄 수 있는 사랑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독한 얼굴을 하고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서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 중에 자살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짓밟지 말고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아끼라고 말씀하신거죠.

부처님 흉내라도 내자

내가 수행할 때 효봉스님과 목욕을 해보면 효봉스님은 마치 백일난 애기 동자와도 같았습니다. 물에 꼭 솜등치 띄워 놓은 것 같았죠. 그러나 효봉스님의 몸을 만져보면 쇠덩이 만큼 단단했었습니다.

또 해인사 방장하실 때 20일동안 등을 땅에 붙이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70노인이 고개도 끄덕않을 정도로 전혀 미동이 없고해서 살짝 옆에가서 장난삼아 가만 들여다보니깐 고개는 들고 숨소리만 색색거리시더군요. 어른을 때릴 수는 없고해서 주장자로 방바닥을 딱 때리니깐 효봉스님이 깜짝 놀래십디다. 그때 잠깐 주무신 모양입니다. 주무셔도 몸은 전혀 움직임이 없으셨던 것이었죠. 그냥 보통 수좌였다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한생 닦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내생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입만 부처라고 말하지 말고 자기를 아끼고 잘 관리하고 실천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산불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자기 몸동이 한번 만나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알아야 합니다. 이 몸동이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만나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짐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몸이 있을 때 좋은 일 많이 하고, 복도 많이 짓고, 수행도 열심히 해서 부처님 근처라도 가는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깨우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진실로 한마음으로 구하면 바로 결의 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실천하는 실천력이 필요합니다. 말보다는 실천의 수행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한국불교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나를 아끼고, 이웃을 아끼고, 나라를 아껴 한마음되어 실천수행하는 것만이 개혁으로 가는 한국불교를 이끌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무조건 절에 가서 빌고 스님에게 절한다고 해서 복 받고, 잘사는 것 아닙니다. 그것부터 불자들은 인식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불자, 실천하는 불자를 지금의 한국불교는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실천수행함으로 해서 옳은 길을 가지 못하는 스님들을 채찍질할 수 있을 것이다. 공부하는 신도들 때문에 스님들은 나태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승가는 승가나름대로, 재가는 재가나름대로 제 모습 찾기에 열중해야 합니다.

알고 믿어야 지혜생겨

하지만 공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선(禪)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참선을 한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불교가 발전하고 재생하려면 우선 각오와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왜 불법을 공부하는지, 왜 절에 다니는지, 왜 기도하는지 알고 난 뒤에 절을 찾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가야합니다. 알고 믿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불교를 믿어야 더 이상 한국불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자를 먼저 세우십시오.

생각이 온전하면 지혜가 생기고 생각이 흩어지면 지혜를 잃는 법. 이 두 갈래 길을 밝게 알아서 지혜를 따르면 도를 이루고 각오가 부철해 집니다.

게으름피지 말고 힘차게 일어나야 합니다. 즐거운 법을 따라 즐거이 나아가십시오.

성불하십시요.

입·손·발등 몸관리만 바르게 해도 극락 "눈앞"

물질 보시보다 정신적 자비행이 더욱 중요

정신이 똑바르면 숨구멍이 트이는 법입니다. 불법을 따르고 실천하면 지혜가 광명이 되어 나옵니다.

물질에 허덕이다보면 눈도 가물가물해지고 정신도 혼미해 지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이 끊기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눈이 맑아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단번에 부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실천하고 부단한 수행을 쌓아야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십시요. 성냄을 버려야 합니다. 또한 거만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애욕과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정신에도 물질에도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해 괴로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피가 독한 피가 되어 돌아옵니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화낼 때 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껴보세요. 험악한 얼굴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짜증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싸우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아낄 수 있는 사랑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독한 얼굴을 하고 부처님 앞에 합장하고 서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 중에 자살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자기를 짓밟지 말고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아끼라고 말씀하신거죠.

부처님 흉내라도 내자

내가 수행할 때 효봉스님과 목욕을 해보면 효봉스님은 마치 백일난 애기 동자와도 같았습니다. 물에 꼭 솜등치 띄워 놓은 것 같았죠. 그러나 효봉스님의 몸을 만져보면 쇠덩이 만큼 단단했었습니다.

또 해인사 방장하실 때 20일동안 등을 땅에 붙이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70노인이 고개도 끄덕않을 정도로 전혀 미동이 없고해서 살짝 옆에가서 장난삼아 가만 들여다보니깐 고개는 들고 숨소리만 색색거리시더군요. 어른을 때릴 수는 없고해서 주장자로 방바닥을 딱 때리니깐 효봉스님이 깜짝 놀래십디다. 그때 잠깐 주무신 모양입니다. 주무셔도 몸은 전혀 움직임이 없으셨던 것이었죠. 그냥 보통 수좌였다면 어림도 없는 얘기죠. 한생 닦아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내생 닦아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입만 부처라고 말하지 말고 자기를 아끼고 잘 관리하고 실천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산불자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불교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어느 것보다도 자기 몸동이 한번 만나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알아야 합니다. 이 몸동이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만나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짐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몸이 있을 때 좋은 일 많이 하고, 복도 많이 짓고, 수행도 열심히 해서 부처님 근처라도 가는 흉내라도 내야 합니다.

깨우침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에서 진실로 한마음으로 구하면 바로 결의 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실천하는 실천력이 필요합니다. 말보다는 실천의 수행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한국불교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나를 아끼고, 이웃을 아끼고, 나라를 아껴 한마음되어 실천수행하는 것만이 개혁으로 가는 한국불교를 이끌 수 있으리라 봅니다.

무조건 절에 가서 빌고 스님에게 절한다고 해서 복 받고, 잘사는 것 아닙니다. 그것부터 불자들은 인식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불자, 실천하는 불자를 지금의 한국불교는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고 실천수행함으로 해서 옳은 길을 가지 못하는 스님들을 채찍질할 수 있을 것이다. 공부하는 신도들 때문에 스님들은 나태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승가는 승가나름대로, 재가는 재가나름대로 제 모습 찾기에 열중해야 합니다.

알고 믿어야 지혜생겨

하지만 공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선(禪)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참선을 한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불교가 발전하고 재생하려면 우선 각오와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왜 불법을 공부하는지, 왜 절에 다니는지, 왜 기도하는지 알고 난 뒤에 절을 찾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고 가야합니다. 알고 믿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불교를 믿어야 더 이상 한국불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주장자를 먼저 세우십시오.

생각이 온전하면 지혜가 생기고 생각이 흩어지면 지혜를 잃는 법. 이 두 갈래 길을 밝게 알아서 지혜를 따르면 도를 이루고 각오가 부철해 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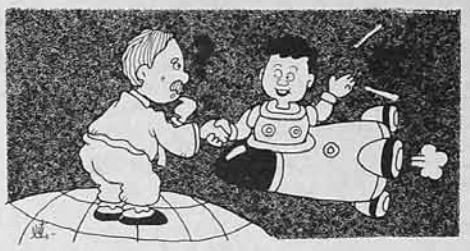
게으름피지 말고 힘차게 일어나야 합니다. 즐거운 법을 따라 즐거이 나아가십시오.

성불하십시요.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⑪

상대론과 연기론 (1)

김 성 규



20세기 최대의 과학자 아인슈타인(1879 - 1955)은 뉴턴까지도 포함하여 과학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과학자로 이미 신화적 존재가 되어버렸다. 꿈 많은 16살 된 소년 아인슈타인이 갖고 있었던 화두는 '빛과 같은 속도로 달리면서 물체를 보면 물체가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이었다. 결국 이 화두가 1905년 발표한 '특수상대성이론'에서 밝힌「광속도 일정의 원리」라는 대전제를 확립하게 하였다.

1, 일정한 속도로 직선운동을 하는 입장에 있는 것끼리는 서로 '상대적'이다.

2, 그러나 어떤 입장에 있는 것이라도 단 하나만은 '절대적'인 것이 있다 — 진공 속에서의 빛의 속도이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일초에 100,000Km로 달리는 비행기를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일초에 300,000Km로 나아가는 빛을 바라본다면 빛은일초에 400,000Km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일 것이며, 만약 비행기가 빛과 같은 방향으로 달린다면 빛은 일초에 200,000Km로 달리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무엇이 이상한 것일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등속직선운동을 하고있는 물체에 한해서 적용되는 '특수상대성이론'의 틀 속에서만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우주에서는 등속직선운동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지구가 태양주위를 공전하듯이 모든 물체는 중력장에 붙잡혀 가속도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15년 아인슈타인은 모든 물체의 운동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상대성이론'를 발표하였다.

1, 가속도가 있는 계에서도 광속도 불변에 근거를 둔 현상은 일어난다.

2, 가속도와 중력은 같은 것이다.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고 있는 동안은 밑바닥으로 내리눌리는 것같은 느낌을 갖게되며, 엘리베이터가 아래로 내려오면 자신의 무게를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더욱 실감나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자. 우리가 로케트를 타고 우주여행을 하고있다면 중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중력은 질량이 큰

빛의 속도로 달릴때
외부 물체 길이는 작아진 듯 하고
시간 진행은 더 빨라보여

그런데 아인슈타인 주장한 특수상대성이론에서는 일초에 100,000Km로 달리는 비행기가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더라도 일초에 300,000Km로 달리고 있는 빛의 속도는 300,000Km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대 속도 V = V1(자신의 속도) ± V2(관측자의 속도), 특수상대성이론에서의 상대 속도 V = (V1+V2)/(1+V1V2/C²)으로 주어진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기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빛의 속도에 버금가는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는 비행기를 타고 어떤 물체를 바라본다면 물체의 길이가 오그라들어 짧게 보이며, 물체의 질량은 더 커지게 되며, 비행기 내에서의 시간진행은 외부에서의 시간진행보다 더 느려지게 된다. 한쌍의 쌍동이가 있는데 한 명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여행을 떠났다고 하자. 우주선의 속도가 광속의 99.9%라고 한다면 바깥 세계의 시간진행을 1이라할 때 우주선 속의 시간진행은 0.045가 된다. 즉 우주선 속에서 16일이 지나면 바깥세계는 1년이 지나가 버리게 된다. 우주여행을 떠난 아이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지구에 남아있는 아이는 청년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쌍동이의 패러독스'이다. 그러면 이 패러독스의 것(우리의 경우는 지구)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인데 로케트가 지구의 인력에서 벗어나게 되면 중력을 잃어버리고 우주공간에 떠돌아다니게 된다. 이 때 로케트가 먼 곳에 있는 별을 향해서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가속될 때) 로케트에 타고 있는 사람은 의자가 뒤로 젖혀지는 듯한 힘을 느끼게 된다(가속도에 의한 효과), 다음은 이 로케트 바로 뒤로 혹성이 하나 지나가고 있다면 이 때 로케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로케트가 가속될 때와 같이 뒤로 젖혀지는 듯한 힘을 느끼게 된다(중력에 의한 효과), 바로 공간의 한 점에서의 중력과 가속도의 효과는 동등한 것이다.

큰 중력 속에 있는 것을 밖에서 바라보면 중력장 속에서는 시간이 늦어지고 중력의 방향에 대해서는 길이도 축소되어 보이는 것이다.

우주선이 광속의 99.9%로 '관성비행' 즉 이미 가속을 중지하고 관성으로 날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면 이 때 우주선과 지구는 완전히 상대적인 입장에 있다.

따라서 우주선에서 지구를 관찰하는 것이나 지구에서 우주선을 관찰하는 것이나 어느 쪽에서 관찰하여도 서로 상대방의 시계가 천천히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영남대 의대교수〉

불교 성지 순례

인도에 다녀오신 모든 이는 부처님의 미소를 닮아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 관광국 후원

인도 · 네팔 순례 14日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룸비니)에서 성불(브다가야), 그리고 설법(사르나트)과 열반(쿠시나가르)까지 모든 수행과 성도의 현장을 직접 순례하시고 성불하십시오. 오랫 동안 부처님의 큰 뜻을 연구해 오신 오국근 교수님(인도 네루대학 교환교수, 한국 · 인도협회 부회장, 한국 불교 청년회장 역임, 현 동국대 교수)께서 전 일정을 동행하시면서 부처님의 큰 뜻을 전해 드릴 것입니다.

- 귀 순례일정: 서울—방콕경유—네팔(카트만두, 히말라야산, 룸비니)—인도(브다가야, 사르나트, 쿠시나가르, 아그라, 아잔타, 발람푸르 기원정사, 라자기르 죽림정사 등 순례) 13박 14일
- 귀 출발안내: —제1차 순례: 12월 4일~12월 17일(신청마감일: 11월 19일) · · · 마감
  —제2차 순례: 1월 15일~1월 28일(신청마감일: 엣 소지자 —1월 9일 예 비스지자 —1월 4일)
  —제3차 순례: 2월 19일~3월 4일(신청마감일: 엣 소지자 —2월 13일 예 비스지자 —2월 8일)
- 귀 동 참 금: ₩ 2,190,000(신청금 포함. 여권인지대 별도)
- 귀 신 청 금: ₩ 200,000

미소의 나라, 불교의 나라로……
태 국 5日 동참금: 655,000 출발일: 1/25 2/1,8,15,22
· 일정: 서울—방콕—파타야—아유타야—방콕—서울

중국 불교의 또다른 발자취
대 만 5日 동참금: 645,000 출발일: 1/26 2/2,9,16,23
· 일정: 서울—타이페이—고웅(불광사)—화련—타이페이—서울

겨울여행특선

—— 최고의 여정, 최상의 서비스, 최대의 기쁨 ——

태국(파타야) 5日 ₩ 715,000	2月 1.4.5.8.11.12.15.18.19.22.25.26日	미국 서부 버스 7日 ₩ 799,000	2月 3.6.10.13.17.20.24.27日
대만(화련) 4日 ₩ 565,000	2月 1.5.8.12.15.19.22.26日	중남미 역사탐방 15日 ₩ 3,990,000	2月 12.23日 3月 2.16.30日
마 닐 라 4日 ₩ 625,000	2月 4.11.18.25日	중남미 일주 20日 ₩ 4,980,000	2月 12.26日 3月 5.26日
홍콩 · 마카오 4日 ₩ 565,000	2月 3.10.17.24日	유럽 5개국 10日 ₩ 1,790,000	2月 2.9.16.23日
동남아 3국 5日 ₩ 745,000	2月 1.3.4.6.8.10.11.13.15.17.18.20.22.24.25.27日	유럽 6개국 11日 ₩ 1,990,000	2月 5.12.19.26日
홍콩(마카오) · 방콕 · 싱가폴 8日 ₩ 1,020,000	2月 5.12.19.26日	유럽 8개국 버스 13日 ₩ 1,990,000	2月 4.11.18.25日
방콕 · 싱가폴 6日 ₩ 865,000	2月 2.7.9.14.16.21.23.28日	모로코,스페인,포루투칼 10日 ₩ 2,290,000	2月 2.9.16.23日
동경 · 하꼬네 4日 ₩ 945,000	2月 2.9.16.23日	사 이 판 4日 ₩ 735,000	2月 2.3.5.9.10.12.16.17.19.23.24.26日
일 본 일 주 5日 ₩ 1,235,000	2月 7.14.21.28日	괌 4日 ₩ 735,000	2月 2.9.12.16.23.26日
일본(혼슈 및 큐우슈우) 6日 ₩ 1,345,000	2月 7.14.21.28日	시드니 · 골드코스트 5日 ₩ 1,145,000	2月 5.12.19.26日
하 와 이 5日 ₩ 679,000	2月 1.2.4.8.9.11.15.16.18.22.23.25日	호주 · 뉴질랜드 8日 ₩ 1,745,000	2月 2.4.5.7.9.11.12.14.16.18.19.23.25.26.27.28日

※ 성수기 요금 변동있습니다.

여행조건: 특급 및 일급 호텔 사용, 10人이상 출발, 전일정 식사 제공(기내식 포함) 해외 여행 보험 가입

불교 성지순례 전문 (주) 아 태 관 광 국외 여행업 제817호
저희는 이익금의 일부를 불우 이웃돕기성금에 사용합니다.
☎ 732-3200 (代)

고은 불교 대하소설

수미산 〈12〉

구조(救助)

섬의 바닷가이므로 쉽사리 파도 위에 떠있는 우녀를 건질 수 있다고 생각한 인담의 예상은 파도자락의 급작스러운 난조(亂調)로 말미암아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기는커녕 물 속에 뛰어 든 인담 자신의 몸조차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연달아 엄습 해오는 사나운 위력의 파도더미에 그는 오래만의 헤엄질이 제대로 풀릴 겨를도 없었다.

그러는 사이 우녀는 썰물이 시작되는 파도더미에 저만치 멀어져가며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였다.

인담은 해가 수평선에 푹 잠기고 난 뒤의 덧없는 박명(薄明)에 의지해서 그런 우녀에게 다가가려고 발버둥쳤다.

그는 입었던 젖은 옷을 다급하게 벗어야 하였다. 웃통은 맨몸이고 그 아랫도리는 잠방이가 걸쳐졌다. 한결 몸이 자유스러웠다.

그 자신의 절박한 의지와 파도더미의 횡포와 횡포사이의 어떤 의지가 하나로 되어 그는 휩씬 멀리 가 있는 우녀에게 가까스로 다가갈 수 있었다.

벌써 바다 전체는 어둠 속이었다. 배고픈 갈매기 따위도 온데간데 없었다.

거기에 난데없는 상앗대 부러진 낡은 막대기가 짠 물에 실컷 담가져서 마치 고려시대의 장경(藏經) 목판(木板)으로 쓰일 재목의 하나가 표류하고 있는 것처럼 나타난 것이다.

인담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짐승이 독초를 분간할 줄 모르고 먹어대는 것처럼 무조건 그 막대를 차지할 수 있었다.

"우…행자…"

하고 그는 그 길쭉한 막대를 손에 잡자마자 외쳤다. 그 입안에 짠물이 들이닥쳐 벌컥 삼켜야 하였다.

어쨌거나 막대 하나가 그에게 그렇게 외쳐댈 힘을 낳은 것이다. 하지만 우녀의 대꾸가 있을 리 없었다.

인담은 막대로 거친 파도더미를 헤쳐대면서 어둠속의 우녀 쪽으로 헤엄쳐 갔다. 헤엄쳐갔다기보다 파도에 떠밀리는 덕택에 의존한 셈이었다.

하지만 인담과 우녀의 만남은 어둠 속에서 바라는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가 꼭 쥔 막대 끝에 무엇인가 접촉된 것 같았다. 그 일대를 몇번이고 돌며 한쪽 팔을 내저었으나 그것은 한참 북으로 북으로 내달리며 긴 여행을 하고 있는 조기떼 속의 몇마리 조기들이 잠시 물속의 조류에 의해서 물위로 솟아올랐다가 막대를 건들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우행자…"

인담의 목소리는 처절해졌다. 그러나 그 외침은 외친 입에 파도의 물 한 부분이 다시 몰려 들어와서 그것을 토해내는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어둠 속의 긴 모색이 얼마나 지났을까.

그가 다시 한번 "우행자…"하고 외쳤을 때 그가 여기저기 어둠속의 하얀 아가리같은 파도의 거품을 막대로 휘젓다가 그 막대를 잡아다니는 힘을 느꼈다. 자칫하면 그것을 빼앗길뻔 하였다.

인담이 그의 막대를 힘껏 잡아다녔을 때 그 막대 끝을 꼭 잡고 있던 물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녀였다. 아니 우녀의 혼령인지도 몰랐다.

"우행자…"

인담은 갑자기 온몸이 긴장되며 그녀의 어깨죽지를 잡아당겨서 그의 겨드랑이에 단단히 끼고 파도를 때리면서 곤두박질치다싶이 헤엄쳤다.

어떻게 그가 섬의 화강암 바위골짝에 당았는지 몰랐다. 그는 정신을 놓아버릴 수 없었다.

당장 우녀의 몸을 좀 평평한 바위위에 눕히고 몸 속의 물을 꺼내야 하였다. 그는 그녀의 입에 대고 몸속의 공기를 빨아냈으며 배를 주물러 삼킨 물을 꺼내기에 여념이 없었다.

상앗대 도막의 막대는 얼떨결에 다시 파도 위에 떠내려 가버렸다. 그것은 마치 내가 그대들의 목숨을 건져주었으니 내 할 일을 다함이로다 하고 미련없이 떠나버린 것 같았다.

인담이 우녀의 배를 불이 나도록 문질러댄 다음 그녀의 따귀를 냅다 갈겨댔다. 그러자 그녀가 콜록콜록 기침소리를 내는 것이었다.

"됐어!"

하고 인담이 비로소 기쁨 가득히 우녀의 젖은 머리칼을 손으로 쥐었다.

"됐어! 우행자" "…"

우녀의 막힌 몸에서 물이 나왔으니 그 몸이 다시 숨을 내쉬기 시작하였다.

"추워!"

라고 그녀의 입에서 첫 마디의 말이 나왔다.

인담은 맨몸 밖에 없었으므로 그녀를 등짝에 업고 몇군데 발등과 다리를 다치면서 암자에까지 허겁지겁 갈 수 있었다.

그런 다음 우녀를 눕히고 인담 자신도 그 자리에 쓰러져 당장 기절한 것처럼 깊은 잠에 곯아떨어진 것이다.

인담이 눈을 뜬 것은 다음날 새벽 예불시간에 맞춰서였다. 그런 형편에서도 예불때에 대한 그의 빼놓을 수 없는 일과의 의식이 살아난 것이 틀림없다.

그러자 어제 저녁때부터 몇시간 동안의 캄캄한 파도 위의 일이 다시 한번 그의 마음 가운데서 반추되고 있었다.

우녀는 그의 옆에서 진작 잠을 깨어서 인담이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새벽 도량송은 생략되었다.

"오늘 인사는 그만 두어야겠오."

우녀는 누운 채 그러는 인담에게 딴소리를 하였다.

"나 수미산에 오르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

"어제밤 내내"

"…"

수미산에 오르면서 스님과 함께 올라가야 하는데 어찌 나 혼자일까 하고 뒤를 돌아다보고 돌아다보다가…그만 아득히 더 아래의 대함해(大鹹海)로 떨어져 가다가 허공 중의 나무가지 하나를 붙들었어요."

"허공 중의 나무가지라…"

"그런 뒤 몇번인가 다시 수미산으로 오르게 되었는데 스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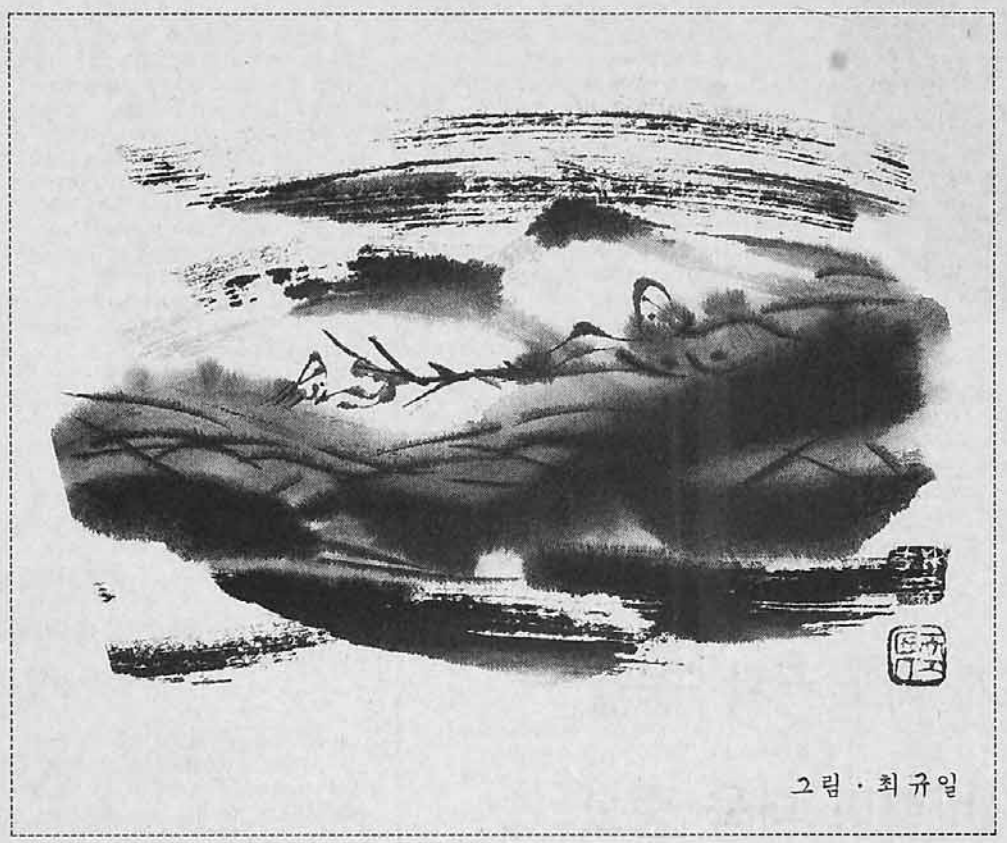


그림 · 최규일

인담이 그의 막대를 힘껏 잡아 다녔을때 막대끝을 꼭 잡고 있던 물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녀였다.

"그랬을테지. 암 그랬을테지."

새벽이 다하고 있었다. 인담은 우녀가 어떤 소리를 해도 그저 풍년든 들녘처럼 넉넉한 심정이었다. 아니었다. 그는 그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생각에까지 이른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오전의입정(入定)은하지 않고 두사람이 함께 밤바다의 시련을 겪은 심신을 쉬고 있었다. 대강 몸을 씻었다하나 아직도 머리칼이나 귓불에 짠 것이 남아 있었다.

"해가 없다면 시간이 있겠어요?"

"해가 없다면 시간이 있겠어요."
죽을 고비를 가까스로 넘긴 우녀는 어느새 우주를 감지하고 있었다.

이 말은 우녀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그녀의 입에서 나온 한 마디였다.

어느 사이에 그녀는 우주를 감지하는 철리(哲理) 따위에 들어가 있었다. 물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가까스로 넘긴 고행이 이렇게 한 여자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인가.

인담은 물의 한 방랑승이 유난히 밤을 좋아하여 잠을 자지 않았던 사실을 떠올렸다.

그 방랑승은 본사(本寺)도 없고 물론 일정한 주처(住處)도 없이 떠돌고 있으며 더구나 약간의 낮잠 밖에는 밤은 숫제 눈뜬 귀신과 같았다.

인담이 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다.

"스님께서는 왜 주무시지 않으십니까?"

"흐흐…자네가 나를 밤새도록 기찰이라도 한 모양일세…. 나야 밤하늘 없이는 못사는 사람일세. 별들을 보는 일이 내 일이라네. 아니 나는 낮에도 해를 보아야 한다네."

"해를 보면 눈을 버리지 않습니까?"

"음. 그런 눈이리면 버려도 좋겠지…. 상고시대 천축의 세계에서는 말이야…. 태양(太陽)은 태음(太陰)의 지아비이지. 그 태양의 마차(馬車) 차축(車軸)의 맨 앞쪽이 마나소타라산맥 위를 한 바퀴 돌 때가 이 세상의 하루라네… 그런데 나는 그런 천축 사람들이 아는 시간 말고 커다란 우주의 시간을 알고 싶다네…. 인간의 1년은 신(神)들의 하루인데…. 그 몇천 신년(神年) 내지 몇만 신년까지도 내가 떠돌고 싶은 것이라네."

"스님께서는 수행은 하시지 않으십니까?"

"수행? 수행이라…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것이 수행인가? 나같이 지향없이 떠돌아서 우주의 운행과 함께 하는 것이 수행이라면 어떻겠는가?"

지난 날의 이런 대화가 떠오르면서 우녀가 해를 시간의 등기로 삼고 있는 바에 저으기 마음을 움직였다.

인담은 마치 눈이 커서 허공의 눈구멍처럼 느껴지던 그 방랑승으로부터 '우주란(宇宙卵)'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사실인즉 그 방랑승은 바라문의 성전(聖典) '비쉬누 · 푸라나'를 정나라 학승으로부터 익혔던 것이다. 바로 그 성전에 우주의 허공계에는 아주 커다란 알이 떠있다고 묘사되어 있다.

일러 '브라흐마신(神)의 달걀껍질'이라 하는데 그 달걀 안이 브라흐마신의 창조 장소이고 둘레 또한 인간의 대지나 일월성진(日月星辰)의 천계(天界) 그리고 성현들이 수행하는 성계(聖界)가 들어있다 한다.

그 우주란 밖은 바로 물로 에워싸여있고 그 물의 두께는 우주란 지름의10배이다. 그 물의 밖은 불이고 불의 밖은 바람이어서 언제나 바람만 부는 곳이었다. 그 바람의 밖은 '나바스-에테르'가 두껍게 끼어있고 나바스 밖은 부타 · 아디라는 원소(元素)의 근원이 끼어있다. 그 부타 · 아디 밖은 '커다란 세계'가 이어지고 있다.

이 '커다란 세계'란 근본원인으로서의 세계인 푸라다나이며 그것은 원리(原理)를 뜻하고 있다.

바로 이 원리의 두께는 무한대인 것이다. 모든 세계와 사상(事象)의 원인이 되어주고 있는데 이런 지극히 커다란 세계도 하나가 아니다.

말하자면 우주란은 우주 속에 몇천만 개로 널려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무한한 우주의 모든 세계에 대한 근본원인 가운데는 하나의 우주정신인 '푼스'또는 '푸르샤'라는 신령스러운 추상의 핵심이 들어있다. 마치 목재 가운데 불이 잠재해 있는 것처럼. 어미의 몸 가운데 아이가 잠재해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정신을 지지하는 것이 비쉬누신이고 다른 제신(諸神)이기도 하다.

바로 이같은 태초의 우주 문턱에 지난 날의 심성한 남자 우녀가 한 그윽한 수행자로서 들어서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의 몸이 환흘한 육감을 자아내고 있으면 있을수록 그 몸을 능가하는 햇살의 눈부신 우주의 정신이 그 몸 가운데 엄연히 들어있는 것을 인담이 전율을 피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서 짐작하게 되었다.

절찾아 가는 길

점점 녹슬어가는 "우리절 이정표" 이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큰 맘 먹고 장만한 「우리절 이정표」 막상 비 오고 시간이 흐르면 녹슬고 칠이 벗겨져 보기 흉해집니다. 간판을 자주 할 수도 없고, 칠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고 보면, 처음부터 잘 만드는 곳에 맡기셔야만 합니다.

저희 「가람기획 이정표」는 녹이 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반영구적인 스텐레스 재질로 디자인까지 산뜻합니다.

또한 저희 「가람」에서는 불교의 전문화·고급화·대중화를 위하여 불교미술문화를 소재로한 디자인의 현수막과 전국사찰지도·사찰연혁판·게시판·리본·상패·포스터·팜플렛·세계불교기·법륜기·만불기 등과 각종행사 기획을 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람기획」은 오직 「불자」됨을 자부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0
☎ 720-5121, 2874 FAX 732-3769

가람企劃 대표 이 주 영 合掌

모집

* 본 학원은 큰 규모와 탄탄한 강의를 자랑합니다.

● 일본어를 배우면서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 기초부터 고급회화까지 자유스럽게 구사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합니다.
● 사무보조 내근직 아르바이트도 제공됩니다.
● 불자라면 특히 좋습니다.
●

문의 전화:737-5689

니시무라(재일교포)/ 한국명 : 김광섭

일본어 문화원

불교의 孝

효를 강조한 경전

〈효의 세상 정토의 세상〉에 인용된 효(孝)관련 경전은 무려 70여경에 이른다. 이들 경전속에서 말하는 효는 주로 부모의 은혜와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애틋한 사랑을 적고 있다. 효사상을 강조한 주요 경전을 소개한다.

▲불승도리천위모설법경=부처님의 생모 마야부인을 제도 해탈시키기 위해 도리천에서 설한 법문.

▲불설정반왕반열반경=부처님의 부왕인 정반왕이 열반에 들자 부처님이 직접 향로를 들고 장지까지 가셨던 내용.

▲불설보살섭자경=세상에 널리 효도를 권장하기 위해 어떤 소경부부의 집에 태어나 효행의 모범을 보였다는 전생 이야기.

▲대방편불보은경=부모에게 효도로써 봉양하면서 고행한 인연을 소개하고 있다.

▲대반열반경=부처님이 열반에 드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재가자들을 위해 4가지 수습법 가운데 첫째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진심으로 효도 봉양하라고 말씀하셨다.

▲기세인본경=8재일날 사천왕과 그 권속들이 세간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로써 따르는 지를 살핀다는 내용.

▲십상경=불 법 승 계 정 부모를 공경하는 6가지 물러서거나 나아가는 법.

▲선생경=선생이라는 장자가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의미하게 6방에 예배하자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가르쳤다.

▲불설시가라월육방예경=자식이 부모에게 다섯가지 섬기는 다섯가지 방법과 부모가 자식을 돌보는데 다섯 가지 해야 할 일.

▲잡보장경=왕자가 자신의 살을 베어 부모를 구제하는 등의 121조의 인연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복을 짓는 것과 계를 지키는 것을 권하는 경.

▲관보현보살행법경=다섯가지 참회법 가운데 제2 참회법은 부모를 효도로써 공양하는 것과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는 것.

▲관무량수경=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인연을 닦는데 효도가 으뜸이라고 설했음.

▲지장보살본원경=목련존자가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제도하는 내용.

▲불설부모은난보경=부처님이 부모의 은혜에 대해 설하셨다.

▲불설효자경=어버이 은혜를 갚는 것을 설하고 부모의 잘못에 대해 선교방편으로 고치게 하는 방법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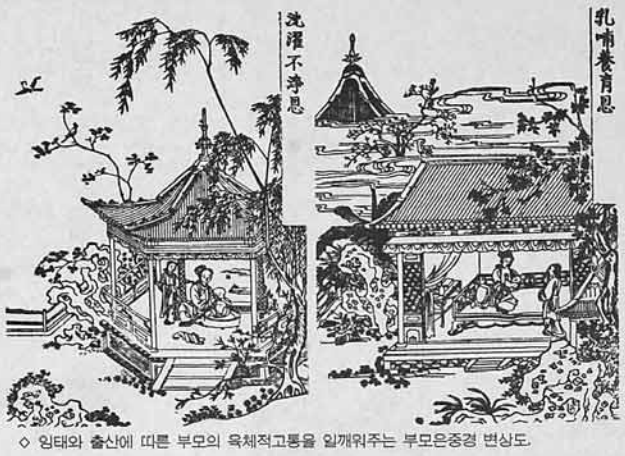
▲부모은중경=부처님이 제자 아난에게 부모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부모의 10가지 은혜를 설하고 있다.

▲매의경=부처는 아버지요,법은 어머니이니,부처의 말을 따르고 법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부모의 행이라고 강조.

▲묘법성념처경=부모의 은덕을 모르고 오히려 원수의 마음을 내는 것을 경계.

▲불설제석업비밀성취의궤=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경을 설하지 말라고 당부.

이외에도 부처님은 법망경,욕야경,증일아함경,오분율,오고장구경, 유행경, 육도집경 등의 경전에서 효에 관해 설하고 계신다.



◇ 임태와 출산에 따른 부모의 육체적고통을 일깨워주는 부모은중경 변상도.

해탈·중생구제 더 큰 효

효는 곧 보살의 이타정신 … 자비실천이 핵심

우리는 세상이 떠들썩할 만큼 커다란 사건들이 난무한 시대를 살고 있다. 못된 소식이 들릴 때마다 황상 인간성 상실이니, 도덕의 부재니 하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전통적인 윤리를 회복하자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모든 행의 근본이 되는 효를 불교에서는 어떻게 보고 또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은 효를 어떻게 실천했는지를 서술한〈효의 세상 정토의 세상〉(사찰문화연구원 간)이 출간되어 불자는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시대에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불교의 효, 윤리관을 이 책을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이제껏 불교는 '자손을 못 낳아 조상의 대를 끊기게 하는 큰 불효를 짓는 종교'라며 효(孝)관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러나 이는 유교적 도덕규범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불교에서의 출가는 더 큰 효를 실천하기 위함이다. 이는 혈육지정의 효에 집착하지 않고 대승적 중생구원이라는 차원높은 효를 지향하는 것을 뜻한다.

효의 범위로 유교는 가족제도라는 울타리 안이 중심이 되지만 불교는 일체 중생 모두가 그 대상이 되는 차이가 있을뿐 부처님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효를 강조하셨고 실천하셨다.

부처님은 〈대방편불보은경〉을 통해 "여래는 본래 나고 죽는 동안 일체의 중생이 일찍이 여래의 부모였고 여래 또한 일찍이 중생들의 부모였느니라" "쉬거나 게으름이 없이 부모에게 효도로써 봉양하거나,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았기 때문에 이제 아뇩다라삼막삼보리를 속히 이룰 수 있었느니라"라고 하셨다.

이것으로 보아 불교의 효사상은 연기법에 의한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사상이 그 근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불교의 효는 마음에서 나오는 효를 중요시하고 있다. 결국 효와 불심(佛心)은 하나이며, 이는 대승불교의 보살관에 입각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불교의 효는 금생에 국한하지 않고 삼세를 관통하여야 하며, 궁극에는 보살의 이타정신으로 일체중생과 함께 부처를 이루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처럼 불교에서 말하는 효의 핵심사상은 보살의 이타정신에 있고, 보살의 이타정신은 곧 자비심이요, 자비심의 원천은 공경심이며, 공명심의 근원은 효순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망경〉에 "효를 이름하여 계(戒)라 한다"고 했다.

결국 단순한 물질적인 봉양에서 벗어나 참해탈을 위한 정신적인 봉양을 강조하는 불교의 효사상이야말로 이시대에서 되찾아야할 새로운 가치관의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준엽 기자〉

역사속에 숨쉬는 스님 · 불자들의 효

진묵대사는 초막 짓고 어머니 지극히 봉양

진정 · 서산스님 효행 유명 … 김대성 부모위해 불국사 창건

이 땅에 실질적인 불교가 처음 전해진 역사적인 사건이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아도스님의 효행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원광법사가 화랑도에게 세속오계를 주면서 '부모를 효도로 섬기라(事親以孝)' 하는등 한국불교는 효행을 근간으로 하는 민족종교로 맥을 이어왔다.

특히 출가전과 출가이후에까지 효를 실천한 진정법사, 왕으로 계신 부모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출가한 대각국사 의천, 어머니 봉양을 위해 환속했다가 〈법화경〉을 써서 어머니의 명복을 빌고 다시 수행자가 된 환암 혼수국사, 나이 쉰 여섯에 '부모님께 제사드리는 글'을 써 부모님에 대한 지극한 마음을 보인 서산대사 휴정, 어머니의 봉양을 위해 절 부근에 초막을 지어 부모님을 공양한 진묵스님, 의천 선사, 일연스님 등 수 많은 스님들의 효행은 불도를 이루기 위한 수행과 함께 후세에까지 아름다운 이야기로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스님들의 효행을 따라 재가불자들도 세속에서 효의 실천을 으뜸으로 삼았다. 대표적인 재가자의 효행으로는 부왕을 위해 감은사와 이견대를 세운 신문왕과 전생과 현세의 부모를 위해 불국사와 석굴암을 창건한 신라 김대성의 효행이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전남 곡성 관음사는 심청전의 모태가 되는 효녀 홍장의 효행이 남아있으며 조선 정조임금은 사도세자에 대한 간절한 효성으로 용주사를 창건해 오늘날까지 용주사가 '효의 근본 사찰'로 내려오고 있다.

한편 효에 대한 결정체로 신라 손순의 효행을 들수 있다. 손순에게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늘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어서 어머니의 굶주림이 심했다. 손순부부는 생각다 못해 어머니의 배를 부르게 해드리기 위해 아들을 땅에 묻기로 했다. 그러나 땅속에서 석종이 나와 기이한 일이라 하여 돌종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이후 돌종소리에 임금이 손순내외의 사연을 듣게 되었고 나라에서 큰 상을 내렸던 것이다.

◇신년특집 낱말풀이 정답

돼	지	해	ㅁ	ㅁ	ㅁ	주	인	공
ㅁ	ㅁ	태	아	ㅁ	유	지	ㅁ	즉
생	ㅁ	ㅁ	미	ㅁ	비	ㅁ	ㅁ	시
불	화	ㅁ	타	심	통	ㅁ	ㅁ	색
ㅁ	현	대	불	교	신	문	사	ㅁ
ㅁ	ㅁ	자	ㅁ	ㅁ	ㅁ	수	미	산
사	명	대	사	ㅁ	불	보	ㅁ	문
천	ㅁ	비	구	ㅁ	성	살	ㅁ	출
왕	생	ㅁ	ㅁ	ㅁ	ㅁ	ㅁ	게	송

만화

法구경

마음의 장
잘 지켜진
마음이
안락을
가져온다

이 함 원



불음 가득 · 법향 가득

책방 여시아문은



국내 최대의 불교 전문 서적만을 취급하는 서점입니다.

60여 평의 여유로운 공간에
국내외의 불교관련 서적으로만 3천 2만 여 종을 갖추었습니다.
책방 여시아문은 초심자에서 학자에 이르기까지
독자들 한분한분의 기대에 따르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갈증을 풀어드립니다.

국내외의
서지정보(희귀본, 서적, 논문, 잡지) · 불교학술논문 · 불교문화예술정보 등
다양한 불교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이외에도
항상 불자 여러분의 공부에 충실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의 편안한 휴식공간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가 배치, 컴퓨터 검색 체제,
그리고 언제라도 편안히 앉아서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분들의 만남과 함께 법향 듬뿍 음미할 수 있는 곳,
책방 여시아문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여시아문은 불자들의 자랑입니다.

여시아문은 삼보에 귀의하는 서점입니다.
불법 홍포를 위해 회향하는 서점입니다.
그리고 불교의 현대화 · 생활화 · 세계화를 실천하는 서점입니다.

책방 여시아문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 - 33 · 전화 (대표) 737 - 8881 (서점직통) 737 - 0695 · 팩스 737 - 0696 교통편 전철: 1호선 종각역, 3호선 안국역 / 버스: 32, 98, 84, 159, 331, 588 - 2번

올 불서출판계 전망

출판유통시장 속속 개방
전문서점·필자개발 시급

출판유통시장이 올해부터 개방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출판시장도 열린다.

출판유통시장 개방은 외국의 자본이 서점과 유통회사를 설립해 기존의 서점과 유통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된다는 것이다.

아직 외국자본의 국내유통시장 참여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출판들에 따르면, 서울강남지역에 1백~2백평 안팎의 중대형 매장에 서점과 문구점 음반판매점 등을 결합 복합문화공간으로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시장 개방으로 당장에는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양적인 확대 속에서 상대적 협소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베스트셀러와 유명출판사의 책들이 서가를 독차지할 것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여시아문 편집부 윤제학차장은 "외국자본의 국내시장 잠식이라는 유통경제적 측면을 넘어 문화적 혼란과 충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화산업으로서의 출판업이 설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불서전문 대형서점의 설립이 개방에 대응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자본과 경험 부족으로 부정적 전망에 머물고 만다. 불일서점 등 사찰직영의 전문서점이 주요한 대안으로 주목된다.

출판시장은 빠르면 96년, 유예기간을 거치면 97년 개방된다. 외국출판사가 국내에 진출, 직접 또는 국내출판사와 합작출판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일부 출판사에서는 번역출판물의 재고처리에 고심하고 있다.

원고료 및 저작권료 인상과 출판물의 가격파괴도 예상돼 자본경쟁력이 약한 불서전문 출판사에 미치는 타격도 심각하리라는 전망이다.

출판시장 개방에 따른 불서 출판계의 대안은 무대책이다. 불교시대사의 고광영 편집차장은 "젊은 연구자 및 필자들의 활발한 연구·저술활동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뚜렷한 대책이 없음을 밝혔다.

이미 일부 출판사에서는 당장 책을 펴내지 않더라도 연구자와 작가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주변환경의 변화를 개별적으로 염려하고 있을 뿐 심각성을 공유하고 대처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구조가 없다는 데 있다.

올해 이런 불서들이 나온다

사전·경전등 대형기획에 초점

시장개방 대비 번역물 줄고 국내저작 늘듯



◇불교학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불교사전이 3종이나 편찬되는 등 올해의 불서출판은 한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불서출판의 가장 큰 특징은 대형기획물인 사전편찬으로 꼽힌다. 가산불교대사전 선학사전 현대불교사전이 각각 가산불교문화연구원과 불지사 시공사에서 나온다. 또 출판시장 개방에 따라 번역물보다 국내 저작물이 기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

출판문화의 꽃으로 불리는 사전은 불교학 연구 성과의 축적과 출판역량을 가늠하는 척도라는 점에서 올해 3종의 사전발간은 불교출판의 한단계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풀이된다.

가산불교대사전은 불교학은 물론 한국문화의 집대성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아왔다. 지난 83년부터 준비해온 전10권 가운데 올해에 한국불교와 인도불교편 1,2권을 펴낼 계획이다. 각각 2만, 1만2천여 항목의 표제어가 수록된다.

선학사전은 지난해 펴낼 예정이었으나 감수가 늦어져 올해 출간된다. 우리나라 선종사를 중심으로 선가의 용어 공안 선사 선서 사찰 등의 주제별로 9천여 항목의 풀이를 싣는다. 시공사도 현대불교사전을 펴낼 계획으로 이미 표제어 선정 및 항목풀이를 마치고 감수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전의 한글번역 및 선어록 발간도 주목되는 출판기획이다. 민족사가 지난해 12권까지 펴낸 경전시리즈를 올해 30권까지 발간해 마무리한다. 민족사는 이와함께 〈한국의 선어록〉을 전6권으로 펴낸다. 보조진각 혜심 일연 태고스님 등의 선어록 및 상당법어 등을 정리, 한국선 정립의 계기가 되는 기획물이다. 백운 무비 종진 일지 지현 돈연스님과 권기종교수(동국대 불교학) 등이 필자로 참여한다. 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고승들의 주요저술에 대한 해제를 담은 〈불교전적사전〉을 펴낼 계획이다.

현암사의 〈한영대역 불교성전〉은 외국인을 위한 경전이 없었던 지금까지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값진 출판으로 평가된다. 해인사 포교국장 해운스님이 편찬책임을 맡아 진행하는 〈불교성전〉은 부처님 및 부처님의 가르침, 불교입문, 한국불교사를 아우른다. 현암사는 또 한용운의 〈불교대전〉을 가로짜기 조판으로 바꿔 개정판을 펴낸다.

불교역사 및 고승전기 출간도 활발해진다. 〈근세한국불교1백년사〉(박경훈,불광) 〈한국불교사산책〉(김상현,우리출판사) 〈한국불교사〉(불교시대사) 〈한국인물고승평전〉(민족사) 〈현대고승인물평전〉(불교영상) 〈한국 고승열전〉 시리즈(우리출판사)가 지난해의 〈이야기한국불교사〉 〈인물로보는 한국불교사〉 〈한국불교사의 재조명〉 〈불교사 100장면〉에 더해져 우리불교사를 더욱 풍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학 분야에서는 출판시장 개방에 대비해 번역물출판을 지양하고 국내저작물을 중심으로 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중론송〉(김인덕,불광) 〈선과 일본문화〉(보광,〃) 〈유식이란 무엇인가〉(강순용,세계사) 〈원효연구〉(이평래, 민족사) 〈고려무신정권과 불교계〉(김광식,〃) 〈보조국사의 화엄론절요〉(최성열,〃) 등이 관심을 모은다.

불교미술 분야에서는 〈감로탱의 세계〉(강우방 김승희, 예경) 〈돈황의 예술〉(권영필,〃) 이 도록과 해설집으로 출간된다.

이밖에 불지사의 〈부처님땅〉 시리즈, 〈연꽃마을 이야기〉(광덕,불광) 〈경전등화〉(동봉,〃) 등의 어린이불서, 신행수기집 및 성인을 위한 체계적인 불교입문서(불광)가 선보인다.

또 관심권 밖에 머물렀던 불교시집 출간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불광출판부는 지난해에 이어 정운 성운 진관 지원스님 등의 승려시선 시리즈를, 민족사는 세계명상시선(전15권)을 펴낼 계획이다.

〈정성운 기자〉

대승불교 정수담긴 최고의 애독서



김 용 구 〈언론인〉

반야심경 명사추천 불서100선

새해의 광채가 눈부시다. 나는 새 아침의 빛이 나에게도 어떤 새로움을 요구하고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저 아침빛에 담하여 나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한다고 느낀다. 하나의 불경을 읽어야겠다. 이 건 쉽게 얻은 생각이 아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언제던가 나는 어떤 불자들의 모임에 참석하였다. 순서에 따라서 회중이 함께 불경의 독송을 시작하였다.

독송은 천천히 그러다가 빠르게, 어떤 데서는 억양이 높았다가 다음에는 낮게 울리는 음향미가 있었다. 그렇게 경건하면서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오래지 않아 회중의 목소리가 어떤 심오한 억양이 되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세번 되풀이 하는 이 구절은 산스크리트어로 "가는이여 가는이여 피안으로 가는이여 피안으로 온전히 가는이여 깨달아지이다"라는 주언인데, 어디서나 불자가 원어로 부른다 한다.)

내가 불설에 눈을 뜨고 불자와 가까이 하면서도 이 독송의 자리에서처럼 놀라움과 알 수 없는 기쁨을 겪은 적이 일찍이 없었다.

법회의 경건, 선남선녀의 독송의 감동, 독송에 함께 하지 못하는 고립감, 그러면서도 독송의 그럴 수 없는 아름다움….

땅 위의 모든 불국토에서 어디서나 가장 많이 본다는 〈반야심경〉,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독송이 그칠 날이 없는데…. 어찌하여 여지껏 나는 이 주옥같은 불음에 접하지 못하고 그렇게 생소할 수 있었는가.

한 마디로 내가 불법의 스승을 못 만난 때문이다. 내가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60년대 초엽부터 였다. 그러나 내가 접한 첫 불서는 불설을 담은 경이 아니었다. 불설에 대한 논서였다. 나는 내내 논서를 놓지 않았던 거다.

그리하여 〈반야심경〉은 내가 펴보려는 첫 불경이 된다. 나는 그것이 가장 작은 불경이면서 불자들이 가장 애독하는 불경이라는 데서 각별히 끌리고 있다. 그야말로 이제사 나는 불설에 첫 입문을 하려한다. 〈반야심경〉은 적은지 모르나, 우리에게 전해진 불교, 대승불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줄 안다.

늦었지만 지금의 나의 생각은 불경을 봄으로써 불설 자체를 들으려는 것이다. 불교의 원전이 경이므로 〈반야심경〉을 열심히 읽고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그러노라면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으리라 믿는다. 한마디로 불설 자체에게다.

나는 〈앎〉보다 〈함〉의 패러다임으로 〈반야심경〉을 읽고자 한다. 대승불교의 기원의 보람도 불법의 실행에 있었다. 〈심경〉은 작은 경이면서 거기에 다섯번이나 되풀이된 말이 있다. 다름 아닌 '반야바라밀다'이다. 지혜의 완성을 그 실행으로 이루려는 근본 태도의 풋말이다.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심경〉을 읽고 또 읽어 마음에 새기고 삶에 실행하도록 하련다. 물론 나는 탁월한 스승들이 밝혀주는 불빛으로 공부를 하겠다. 일찍 원효성사가 초한 〈반야심경소〉가 인멸되어 볼 수 없어도, 그의 읽기의 흔적은 〈금강삼매경론〉 같은 문자에서 찾을 수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 원측법사가 적은 〈반야심경소〉가 남아있다. 그밖에도 〈심경〉은 안팎의 고승대덕의 소초가 많기로 유명하다. 그렇다면 이 작은 경문의 읽기와 공부가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알겠다.

세해는 이렇게 새로운 계약을 나에게 준다. 신선한 마음으로 바삐 움직이지 않으면 안된다.

실행통해 이루는 지혜완성의 길 보여

월간 「불교춘추」 창간

옛절터 복원·고승자취 재조명 눈길



불교문화 정립과 잃어버린 불교역사 발굴을 취지로 내세운 월간〈불교춘추〉 창간호가 나왔다.

발행인 최석환씨는 창간사에서 조선조의 억불정책으로 신라에서 고려말에 이르는 고승의 행적비가 50% 이상 수난을 당했다고 밝히고 "전국 곳곳에 방치된 폐사지를 찾아내 역사를 복원하고, 해외에까지 이른 구법승의 행적을 비롯한 우리 불교사에 위업을 남긴 고승들의 자취를 재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간호에는 기획특집으로 '죽음을 초월하는 길'-△죽음을 초월한 살아있는 부처 △ 죽음에 대비 △자재하게 죽어간 선사들 △김일성 시체처리와 불교의 등신불을 비롯 '인물연구-석주스님' '특별법문-정중무상선사와 염불선(청화스님)' '최초의 선종사찰 단속사지를 가다' '역사인물기행-진표율사와 불사의방' '도선탄생지 영암 성기동을 가다' '경허의 생애와 사상' 등을 실었다.

특히 단속사지(경남 산청군 단성면)는 구산선문 이전에 유입된 선종사찰로 한국불교사의 복원에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곳으로 밝혀지고 있다. 〈불교춘추사 발행, 4천5백원〉

「한국불교사상사개관」 동국대, 영문판 간행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서윤길)은 최근 영문판 불교학 술서 〈Buddhist Thought In Korea(한국불교사상사 개관)〉를 출간했다.

한국불교의 해외홍보를 위해 펴낸 이 책은 한국의 선사상·화엄사상·천태사상·미륵사상·정토사상·밀교사상·관음신앙등을 압축·요약해, 일반인들이 한국불교사상사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비교적 쉽게 서술하고 있다.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 서 명	저·역자	출 판 사
1	천수경	무비	불일
2	자네, 도가 뭔지 아나	효림	대원정사
3	영원한 자유의 길	성철	장경각
4	일기 쉬운 불교	권성부	불교방송
5	감을 건넜으면 뗏목을…	관심	대원정사
6	참된 사람들의 이야기	윤승운	불지사
7	인도기행	법정	샘터
8	능엄경 주해	운허	역경원
9	화엄경	무비	민족사
10	법구경	라즈니쉬	태일

구입문의:(02)737-0695

정신·육체를 얽매고 있는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 병없는 완전한 건강이 이루어지고, 인간이라는 굴레의 속성이 근절되어 높은 정신세계의 삶을 누리게 된다.

선관단식

■ 국민학생들도 쉽게 수행하는 대중적인 수련법입니다.
· 제산제 복용·기아·공복감이 없다.
· 生水, 해독차, 염분·자연당 식물성단백질 섭취
· 수련내용:엄불삼매수련·선관삼매수련·연단수련
· 선관단식수련을 쌓고나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활발해져(美캘리포니아대학 호르몬연구소 발표) 청소년들의 성장발육이 촉진되고, 건전한 인생관을 세우게 됩니다.
· 수련 희망자에게는

현대인을 위한 선관단식(禪觀斷食)
가 이 드 북

을 우송해 드립니다.

단식으로 효과보는 병
•불면증, 우울증, 열등감 등 신경성 제증상
•암, 중풍, 혈압, 당뇨, 신장병 등 모든 성인병
•위장병, 변비, 간장병, 천식, 디스크, 신경통
•축농증, 피부병, 부인병, 성병, 악물중독 외

■ 수련장:경남 사천군 용현면 와룡산 용림선원
■ 안 내:☎ (0593)34-1115~6

한민족 정통
신선도 수련법



회원모집:수시접수 (영구회원 접수중)
수련과정:단전호흡법, 철산법, 신선기공 36동작, 생식법, 벽곡법, 토굴에서 생활하는 법, 단식법
문의전화:(02) 735-6795 · 6796 / FAX (02) 730-9298
서울 종로구 인사동 4-2 중원 B/D 4층

한국 신선도 협회
회장 이해창(성오) 합장

불교에 대한 관성적 관념을
그 근저에서부터 부정하는 비판신서

연기와 공
-여래장사상은 불교가 아니다-

우리가 아무런 고민없이 불교의 기본적 교리라고 믿고 있던 관념들을 뿌리채 뒤흔들어 놓는 책.
불교의 중심사상은 여래장사상인가, 연기설인가?
이 양자는 양립가능한 것인가?
양립불가능한 상반된 것인가?
상반된 것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왜 버려야 하는가.
이 책은 그 해답을 줄 것이다.

松本史朗 저, 혜원역, 신국판, 352쪽, 6,500원

대지관좌선법(마하지관) 1,2
김무득 주석, 각권 8,000원

능엄경연구입문
김진열 저, 15,000원

조선불교유신론
한용운 저, 5,000원

돈오요문
대주혜해 저, 혜원 역, 5,000원

미륵성전
이종익 저, 3,500원

백교회통
이능화 저, 4,5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종로구 청진동 6번지 ☎(02)720-9372 · 3 Fax (02)723-0646

불심시심 〈9〉

더함도 덜함도 없다

少者添一歲 (소자첨일세) 어린이 한 살 더하고
老者減一年 (노자감일년) 늙은이는 한 살 감했으면 하나,
非干老少者 (비간노소자) 늙은이 어린이할 것 없이
無減亦無添 (무감역무첨) 덜함도 없고 더함도 없다.

윗 시는 고려 조계종의 제2세 진각국사의 정월 초하룻날 상당법어이다. 법어이니 진리의 말씀이다. 시와는 거리가 있다. 그러함에도 여기서 시로 소개하는 것은 언어적 결함이나 내용이 시로 수용하여도 흠될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에 불교 선이 시와 쉽게 만날 수 있고 그러기에 선시(禪詩)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진각국사께서 설날 당에 올라, '오늘 아침에는 시절에 따른 인연을 들어 말하리라' 하면서 위와 같은 시적 법리를 말씀하시고는, 더하거나 덜하는 것이나, 더함이나 덜함도 없다는 그 생각 자체를 모두 집어던져라 하였다. 큰 스님의 설날 설법으로 두고두고 새길 만한 말씀이다.

설날 그믐과 정월 초하루의 시간 거리는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이건만 사람사람의 느낌은 그 처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믐날의 아침밥상이나 초하루의 아침밥상이 다 같은 밥상이요, 마주 앉은 할아버지나 손자도 다 같은 그 할아버지 그 손자일터인데 할아버지는 한살 더 먹었으니 더 늙었다하여 서글퍼하고 손자는 더 컸다 하여 즐거워 한다. 떡국 한 그릇 앞에 놓고 느끼는 시간의 개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인가.

시간의 거리란 항시 변함 없이 같은 것이로되 그 시간을 대하는 사람 사람의 느낌은 그야말로 찰나와 영겁의 거리로 무상하다. 그러니 모든 것이 너의 처지, 너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스님은 너의 처지대로 느끼는 그 생각, 더했으면 덜했으면 하는 그 생각을 저 멀리 집어던지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을 때 떡국을 마주하고 있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마음은 같아질 것이요, 마음이 같았으니 손자와 할아버지라는 시간 거리가 없을 것이 아닌가. 그러니 십세 고금의 긴 시간도 찰나에 수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종찬 〈동국대교수〉

'95 미술의 해 화가스님들의 계획

화폭에 법열담아 중생 속으로

자선·해외 초대전등 다양… 불교미술 영역 확대 시도


◇만봉스님


◇성파스님


◇일장스님


◇수안스님


◇설봉스님


◇원학스님


◇성륜스님


◇통칙스님

미술의 해를 맞아 화가스님들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미술활동을 통해 수행과 포교의 길을 개척해 온 스님들은 올 한해도 다양한 개인전 단체전은 물론 해외 전시도 구상하고 있다.

전통불화의 맥을 후학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만봉스님은 93년 10월 전시에 이어 금년에도 50~60여점의 불화를 내놓는 대형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다. 아직 일정과 장소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스님의 개인전은 우리시대 거장의 작품들을 만나는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로원 불사에 바쁜 성라암 법성스님도 가을에 색채화 개인전을 가질 예정이다. 4월에는 국제선명회가 유럽지역에서 개최하는 작품전에도 참여할 계획인 스님은 양로원 기금마련을 위한 전시회도 7월쯤에 가질 계획이다.

통도사 축서암에서 그림에 몰두하고 있는 수안스님도 5월 중순경에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 스님의 전시회는 운현궁 미술관에서 한 언론사의 초청으로 마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자대장경 불사를 추진중인 성파스님은 오는 4월11일부터 16일까지 프레스센타 서울갤러리에서 사경작품전을 갖는다. 이 전시에서 스님은 직접 개발한 천연 감지에 금으로 쓴 금강경, 반야심경, 아미타경등의 사경작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제주에서 활동중인 일장스님은 개인전을 가질 계획은 없지만 각종 불사나 기금모금을 위한 교계내의 작품전에는 기꺼이 작품을 내겠다는 생각이다.

지난해 11월 「우주를 만난 희열, 만다라전」을 열었던 도열스님은 작품의 중심테마인 만다라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수행 체험을 위해 9월쯤에 티벳으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스님은 티벳 인도등지를 기행하며 체험을 통한 그림의 주제찾기 작업을 해 보다 구체화된 만다라의 세계를 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동양화 전시회를 가졌던 원학스님은 그간 소홀했던 단체전에 두루 참여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스님은 섭외가 들어오는대로 전시회의 성격이 자신의 화풍과 맞으면 기꺼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각·회화에 이어 설치 미술의 경지를 넓게 펼쳐 보인 성륜스님도 금년에는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세워 놓고 있다. 스님은 지난해에 가진 설치 미술전 「근」으로 미술평론가들에 의해 94년에 가장 돋보인 미술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와관련 9월에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스님의 작품과 국수호씨의 무용이 어우러지는 공연도 마련될 계획이다. 또 스님은 봄에 개인전과 설치미술전을 가질 계획이며 여름에는 시카코와 토론토등지에서도 초대전을 갖는다. 이밖에도 스님은 몇개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구상중이며 여러군데서 전시 제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판화로 잘 알려진 통직스님은 퇴촌의 토굴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스님은 지난해에 이어 「선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한 개인전을 10월쯤에 가질 생각이다. 스님의 이 전시는 서울과 부산 광주지역을 순회하며 열리게 된다.

논산훈련소 연무사 설법전 건립 기금마련을 위한 전시회를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어 신년 벽두를 장식한 설봉스님은 올해 심장병어린이돕기와 무의탁 노인돕기를 위한 성금모금 전시회를 봄과 가을에 개최한다. 심장병어린이를 위한 전시회는 3월에, 무의탁노인을 위한 전시회는 가을에 가질 계획이며 이들 전시회에 스님은 도예작품과 생활도자기 마나석등을 내놓을 생각이다. 또한 스님은 부산의 토향회로부터 일본 초청전도 섭외받고 있어 해외 진출의 문도 올해 열 것으로 기대된다.

〈임연태기자〉

□ 영화평 리틀부다


◇동양의 신비가 압권인 영화 리틀부다의 한장면.

라마승 환생통해 '깨달음' 제시

네팔풍물 볼만… 윤회 참뜻 변질우려도

리틀 부다는 마지막 황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이 3천5백여 달러의 제작비를 투입,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그의 또하나의 역작이다.

내용은 우리에게도 다소 낯설은 티벳불교의 전통인 환생제도를 다루고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 라마가 콘라드 부부의 아들 제시가 그의 환생한 스승임을 알아 보는데서 시작된다. 이 주장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부탄에서 3명의 라마로 구성된 조사단이 파견된다. 이 라마들의 출현은 미국의 평범한 가정에 큰 충격을 남기고 소년 제시는 부탄으로 떠난다. 극의 진행을 따라 제시는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에서 고마타 싯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어 샤캬무니 부다가 되기 까지의 삶을 배운다.

웅대한 스케일로 펼쳐지는 동양의 신비는 서구인을 매료시킬 충분한 소재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윤회와 환생에 대한 서구인들의 인식에 다소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본래 죽음도 태어남도 없지만 업과 인연의 결과에 따라 형상으로 나투어져 윤회를 거듭한다. 그러므로 현재를 보면 과거를 알 수 있고 현재의 생각과 행동 속에 미래도 함께 담겨있는 것이므로 윤회가 주는 가르침은 개인으로 하여금 현재에 더욱 깨어있고 책임감을 지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윤회를 벗어나게 하는데 그 근본정신이 있다. 그러나 이 사상에 낯선 사람들에게는 윤회나 환생이 자칫 동화속의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여져 전생의 왕, 내생의 세계지도자를 꿈꾸는 허황한 사상으로 전락해 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내용의 전개를 통해서도 만족할 수 없는 여러 장면들에 부딪친다.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싯다르타 태자의 생애속에서 관객은 그의 생로병사에 대한 고뇌를 읽어내고 공감하기 보다는 이해심 없는 아버지, 매력없는 아내로부터 누구라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희화화 되어 제목 자체에서 이미 드러나듯 부다의 무게가 감해진다는 우려가 높다.

언어를 넘어선 무언의 교감, 언어 이전에 표현되는 보살행 보다는 끊임없이 자비를 설하면서도 어떤 자비행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승려들의 행동은 불교를 오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물결을 거슬러•그릇을 띄워 흐르게 하는 장면은 물위를 걸었다는 예수의 기적에 부처님을 대비시키려는 흔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이런 흠들을 제외한다면 이 영화는 현대인에게 불교의 메시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전달했다고 평해진다. 실제의 라마가 분장한 라마들의 섬세한 동작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암시, 이전에 공개된 적이 없는 네팔과 부탄의 여러 사원에서 느껴지는 생생한 현장감, 델리에서 온 소년 라주가 주는 활력, 대라마의 임종에 이르면서 새로운 힘과 파토스를 얻을 때 분위기는 고조되어 침묵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감독의 역량을 엿보게 한다. 흰 천에 싸인 라마의 시신이 녹은 양초처럼 보일 때에는 생자필멸과 자아의 유약성의 의미를 전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종말에 이를수록 관객은 마침내 사원의 고요한 독경소리와 같은 분위기에 압도되어 언어보다 깊은 세계를 맛보게 된다.

〈TRICYCLE FALL1994 발췌·번역·박미영기자〉

건봉사 복원사업추진

10억 지원받아 3월부터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건봉사(주지 현소)는 고성군(군수 장상국)의 지원하에 올 3월부터 건봉사 복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공사는 지난 93년부터 계획된 고성군의 「건봉사 복원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도·군에서 지원되는 4억원과 건봉사 자체부담금 5억8천2백만원을 합친 총 9억8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집행된다.

1백56평규모의 '만일원(萬日院)'과 주지실·화장실등이 복원될 예정.

영화 「리틀부다」 대성황

호암아트홀에서 상영 12일째인 3만천여명의 관객을 동원한 「리틀부다」가 연일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구랍 30일 열린 특별시사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쉬운 말과 훌륭한 영상으로 인생의 무상함과 드높은 정신세계를 그려내 물질과 향락에 짜들고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 에 멍든 현대인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김영만 목판화전

다보빌딩 25일까지

광주에서 활동중인 판화가 김영만씨의 목판화전이 13일부터 25일까지 마포 다보빌딩 4층 서남미술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판화집을 간행하고 기념전을 광주에서 가졌던 김씨는 이번 서울전시에 「고향가는 길」「생사윤회」등의 작품을 내놓는다. 김씨는 목판화뿐 아니라 유채 수채, 파스텔화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생명의 본질 찾기 작업에 몰두해 왔다.

성보문화재 관리 "종단 앞장서야"

한국불교문화원 설문, "관리 안되고 있다" 95%

절대다수의 불자들이 성보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통계는 한국불교문화원(원장·홍무흠)이 구랍 16일부터 20일까지 남녀 불자 2백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보문화재 인식에 관한 설문」을 통해 나타났다.

이 설문에 응한 응답자는 불교에 입문한지 1년이내(46명)에서 5년이상까지의 불자들이며 연구원은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과 불자들의 성보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파악을 위해 설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설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성보문화재 관리에 대한 불자들의 의견.

응답자중 36%가 매우 안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59%는 안되고 있다고 답해 성보관리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가 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10월이후 원각사지탑과 경천사지탑의 훼손이 사회적 관심사가 됐으며 교계내에서 성보문화재 관리의 허상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성보문화재 관리에 대한 현재의 비관적 견해는 '앞으로는 어떨까'란 물음에도 그다지 희망적이지 못한 쪽으로 답한 사람이 56명으로 2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현재와 같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은 1백24명(44.6%)인데 반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사람은 98명(35.3%)에 그쳤다.

그렇다면 성보문화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은 종단이 앞장서 관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51%로 가장 많았다. 또 27.3%는 이미 훼손된 성보문화재 복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불교중앙박물관의 설립을 주장한 경우도 32명(11.5%)이 었다. 관리단체는 총무원이 합당하다는 쪽이 47.5%, 문체부가 맡아야 한다는 의견은 24.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보문화재 관리 실태



◇성보문화재 관리의 당면과제

이 설문에서 불자들의 성보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자체가 70% 정도 잘 모른다는 결과를 보여 이에대한 홍보작업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조계종 신설기구인 문화사업부에 홍보의 적극성, 전문인력 보강, 투자확대, 미래지향적 발굴과 보존책 수립등의 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요구는 총무원의 성보문화재 관리에 대한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는 불자들의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분석된다.

〈태〉

"묻어버리자니 장소가 없고, 태워버리자니 냄새가 나고 …"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동식 소형 소각로'
제트 1, 제트 2 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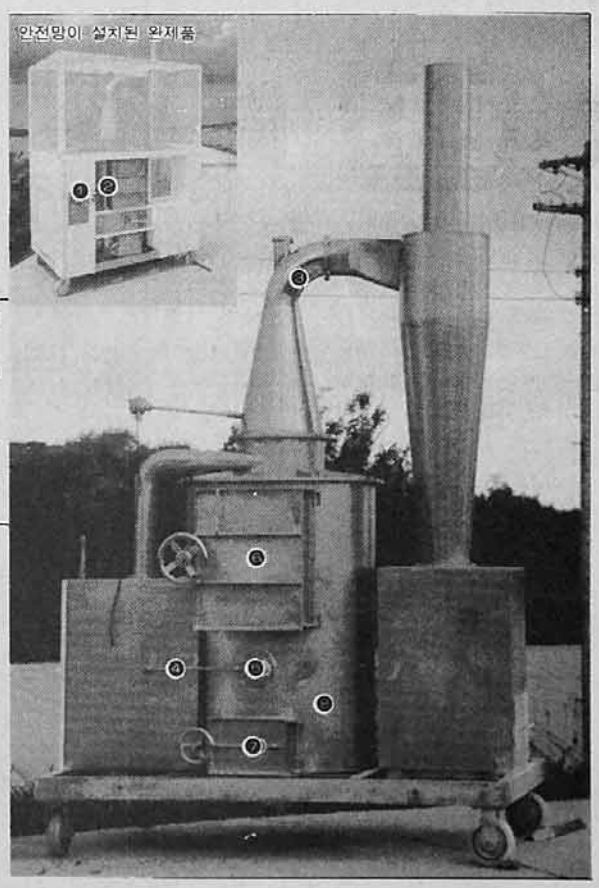
폐 비닐·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각종 지류, 병원 쓰레기 등 가연성 폐기물이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매연이 없이' 완벽하게 소각·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트1, 제트2 이동식 소각로는 연소 드럼에 강력한 송풍 장치인 모터 블로워를 장착해 연소통 내에 제트 기류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보조연료의 사용 없이 성냥불만으로 완전연소를 실현시킨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일 회 소각용량은 30kg이며 완전연소에 40분 정도 소요되어 소형 한 대만으로 하루 3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 형, 이동식이므로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 없고 붙박이와는 달리 폐기물이 있는 곳을 따라 옮겨 다니며 소각할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출원 94-8644 의장특허출원 94-8470 8471, 8472



소형 소각로 제조 전문
영우실업
본사·공장: 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267-1
전화 : (0344) 64-7236, 62-3488
팩스 : (0344) 62-7012

환경관리공단 및 생산기술 연구소
성능 검사 합격!!

불교TV

채널32 틀면 "안방이 법당"

3월1일부터 10시간 방송…영상포교시대 개막

지난 5일 시작된 불교텔리비전의 시험방송은 다음달 28일까지 55일간 계속된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방송시간은 매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이며 1시간분량의 방송을 두번 연속으로 내보내고 있다. 또한 밤8시부터 10시까지도 재방송된다. 중견아나운서 이정부씨가 진행하는 시험방송은 교계소식, 찬불가, 5분설법, 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 한국의 명찰, 불자의 건강등 다채롭다. 정식개국 이후 방영될 프로그램들을 상세히 안내하는 시간과 정규프로그램으로 이어질 프로도 함께 방영되고 있다.

불교텔레비전의 채널은 32번. 방송지표는 '정법을 온누리에 펼치는 방송, 인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방송, 사회를 건강하게 가꾸는 방송, 문화를 아름답게 일구는 방송'등이다. 방송 목표는 '불자들의 바른 신행생활 선도, 불교교리와 문화의 우수성 선양, 불교 전문 채널로서의 특성확보'등에 두고 있다.

이같은 방송 지표와 목표는 3월1일개국과 동시에 매일 10시간(낮:10시~15시 밤18시~23시)주당 70시간의 방송을 통해 가정으로 배달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용해된다.

불교텔리비전의 방송 스튜디오는 마포구 마포동 금호전기빌딩 1층에 2백80평규모로 설립되어 있으며 방송사의 직원은 제작국 80여명을 포함 1백50여명이다. 각 프로그램에는 프로의 성격에 따라 각 분야의 유명인과 전문인이 대거 동참하게되며 자체 제작은 80%이상의 비율을 갖는다. 나머지 20%는 외화나 기존의 영상물들로 대치된다.



◇ 3월1일 개국을 앞두고 불교텔리비전이 55일간의 시험방송을 하고 있다. 사진은 불교텔리비전 주조종실.

불교텔레비전의 시청을 위해서는 우선 전국 54개 케이블 TV 방송국중 거주지역 방송국에 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이때 컨버터 설치비4만원과 보증금 3만원을 납부하면 케이블 TV 전용회선을 TV수상기에 연결해준다. 시청자는 매월 수신료1만5천원과 컨버터 임대료 2천원을 내면 불교텔리비전을 비롯한 30개 채널을 시청할 수 있다. 특히 불교텔리비전의 경우는 한국통신과 위성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가정에 위성안테나를 설치할 경우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임연태기자〉

이런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시험방송 (매일 오전 10~12시)

·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오전 10시20분) : 교계 및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불교텔리비전의 개국을 기다리는 염원과 바램을 듣는다. ·5분설법 :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는 지혜를 일깨우는 큰스님들의 법문. ·한국의 명찰 : 황의수 문화재 보존협회 이사와 함께 한국의 유명사찰등을 찾아간다.

개국특집 (3월 1일~5일) · 백남준 비디오쇼(1일 낮 12시15분) : 세계적인 비디오 예술가 백남준씨의 화려하고 환상적인 비디오 쇼. ·북한불교의 어제와 오늘(1일 밤 8시) : 공산체제하에서 변천되어온 북한불교의 모습을 본다. ·특집다큐 일본속의 불교(2일~4일 오전 11시) : 일본에 영향을 준 한국불교의 모습을 현지답방을 통해 3부작으로 알아본다. ·달마가 서쪽으로 간 까닭(2일~4일 밤 8시55분) : 미국 불교의 개척사와 현황을 3부작으로 방송한다.

정규프로 ·지비의 천수천안(월·화 오전 10시25분) : 어렵게 살아가며 희망을 버리지 않는 이웃들을 소개한다. ·비법공개, 절음식(월~수 오전 11시50분) : 사찰음식의 보존과 보급, 대중건강의 생활화를 위한 사찰음식 공개. ·염화실 탐방(월~목 낮 12시25분) : 고승대덕을 찾아 구도 이야기와 덕담을 듣는다. ·퀴즈특급, 이뭐꼬(일요일, 오후 1시35분) : 사찰·가족 대항으로 풀어보는 교리퀴즈프로그램. ·촛점 32(수, 오후 2시) : 불교계의 현안이나 불자들의 관심을 끄는 주제를 선정, 토론형식으로 풀어본다.



◇ 시험방송에 들어간 부산불교방송(좌)과 광주불교방송(우) 사옥

영·호남에도 '깨침의 소리'

BBS 부산·광주지국 2월1일 개국

'깨침의 소리 나눔의 기쁨'이 지난 8일 오후4시 부산 광주지역을 성도절의 기쁨과 함께 뒤덮었다.

이날 실시된 두 지역의 불교방송 시험방송은 지역불자들에게 전파를 타고 들리는 법음의 갑미로움을 안겨주었다.

부산불교방송국의 위치는 동구 범일동 보생빌딩 10층과 11층이며 가청주파수는 FM89.9MHz다. 송신출력은 3kw이며 가청지역은 부산·김해시등 인근 5개시와 양산군등 8개 시군 일원이다. 방송국측은 이지역 1백20만가구 이상이 불교방송을 청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주불교방송의 위치는 북구 임동 78-2번지 자체사옥이며 가청 주파수는 FM89.7MHz이다.

송신출력은 부산과 같은 3kw이며 가청지역은 광주시등 18개 시군전역과 김제군등 17개 시군일원으로 60여만 가구가 청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 지역의 지국 설립은 각각 30여억원의 설비투자로 이루어졌으며 PD, 아나운서, 기술, 총무직에 20여명의 직원이 상근하고 있다. 시험방송과 개국 준비를 위해 서울 본사에서는 계속적인 지원체제를 가동하게 된다. 이와관련 서울의 PD와 아나운서 기술직 사원들이 파견형태로 두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으며 이미 진영종 PD와 전승환 PD를 부산과 광주로 발령했다. 또 지역 자체에서도 수습사원과 경력 기술직 사원등을 채용했다.

시험방송은 개국 하루전인 이달 31일까지 실시된다. 방송시간은 매일 아침9시부터 12시까지이며 23일부터는 오후6~7시까지 1시간 연장 방송할 계획이다. 시험방송 기간내의 주요 프로그램은 방송개시음악과 종정 월하스님의 법어, 김태호사장의 인사말에 이은 아침예불을 시작으로 찬불가, 법구경, 음악프로그램,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불교의 명시, 종료음악등으로 이어진다.

23일부터 추가되는 시간에는 저녁예불과 음악, 교리좌등이 방송된다. 음악시간중에는 정규방송의 프로그램들도 상세히 소개된다.

불교방송은 이 두 지역의 방송자체 제작율을 10%내외(2시간)로 책정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개국이후에는 서울의 방송프로그램이 전용회선을 통해 동시 방송된다. 부산과 광주 불교방송은 개국이후에도 꾸준한 불자들의 동참과 성원을 기다리고 있다.〈부산:(051)7644-5114, 광주(062)520-1114

화면앞 불자들 환호의 박수

시청소감

불교TV가 첫 영상을 내보던 날 불교TV에는 환희에 감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는 불자들의 전화가 빗발치듯 했다.

불교TV의 시험방송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젊은 불자 김숙이씨(25)는 "신림동 집에 전송망 설치가 미처되지 못한 관계로 종합유선방송협회에서 시청했다"고 전하면서 "30여개의 케이블TV를 동시에 시청 가능한 협회에서 TV를 시청하면서 나는 자신했다. 다른 어떤 채널에도 뒤지지 않는 방송으로 가히 다채널시대를 선두해 나갈만 하다고."이어 김씨는 "젊은 불자들도 함께 호흡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면 더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며 불교TV를 통한 불교활성화에 커다란 기대를 보였다.

또 부산 북구 주례에 살고 있는 송인재(39), 이숙향(37) 부부는 "절에 가야 마음이 고요해지고 정법을 인식했던 저희 부부에게 불교TV는 가까이에 있는 인도자로 충분한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갖게 했다"면서 "1월5일 첫 시험방송날 방영된 성철스님의 다비식 장면은 다시 한번 삶의 자세를 추스리게 했다. 앞으로 불교TV의 영상과 말씀을 통해 인간다운 세상, 법열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법의 메아리에 가슴벅차"

청취소감

BBS부산·광주불교방송국의 시험방송이 첫 전파를 타면서 지방국 개국을 고대해 오던 영호남권 불자들은 불교방송의 네트워크시대를 실감했다.

부산 대연4동에 사는 양대법각(55) 보살은 "10년동안 발원해 오던 불교방송을 부산에서도 들을 수 있다니 꿈만 같다"며 "불교방송은 기복에 치우치기 쉬운 불자들을 충분히 정법의 세계로 이끌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밝혔다. 또 "성공적인 시험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월 개국의 본방송때에도 무난히 잘 해나갈 것 같다. 사실 바람 잦았던 부산지국 개국의 행로에 걱정이 없잖아 있었지만 이제는 안심이다. 불교방송을 통해 고승의 명상의 말씀을 많이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공부하는 불자의 모습으로 영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사는 조주연씨(65)는 "얼악하기만한 호남지역의 불교문화에 불교방송국의 개국은 정체된 호남불교에 활기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라며 "시험방송을 계기로 의심을 없애고 깨침을 이룰 수 있었을 한다. 그리고 하나되는 불교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시험방송의 청취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목탁소리

'한국적 세계화'

이경숙 〈취재1부 차장〉

「세계화」란 말이 지난 연말부터 넘쳐흐르고 있다. 아마 연말에 한 해 최대 유행어를 집계해보면 「세계화」가 첫번째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나 아닌지 모르겠다.

지난 해에 한참 떠돈 「국제화」와 어떻게 다른지, 「세계화」란 말에 이젠 익숙해졌으면서도 이것을 어떻게 수용해야할 지 개념정립에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도 꽤 되는 것 같다.

아무튼 21세기를 얼마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비약적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세계가 지구촌화 되어가는 이 시대에 경제분야의 경쟁력을 가속화시켜 세계일류국가로 부상하자는 것이 주 골자인 것 같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무한 경쟁시대에 세계일류국가가 되기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논리를 아침 저녁으로 듣다보니 저절로 숨이 가빠진다.

이제 깃발을 든 대통령의 뒤를 따라 모든 국민들이 전후좌우 돌아볼 새 없이 뛰어가면 되는 걸까.

「세계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고,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만 한다는 지적이 벌써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세계화를 향해 냅다 달음박질칠 만큼 기초체력은 충분한가 한번 돌아볼 일이다.

우리 말의 존대말 쓰는것조차 제대로 모르는 네살바기이 아이에게 시키는 영어조기교육 바람, 우리의 국악기 이름조차 모르면서 피아노, 바이올린은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 필수가 되어 있는 풍조, 김치·된장 못 먹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것과 반비례로 피자, 햄버거 장사는 날로 번창, 우리나라에 접심쿰은 아이들과 노인들이 전국에 5만명이나 되는 사실과 임금착취등 인간적인 대접을 못받고 있는 수천명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정에는 무관심하면서 외국 난민에게는 관심을 보이는 아이러니, 술 소비·교통사고 세계 1위… 우리의 전통·문화 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소중히 하고 확고히 한 후에 세계와의 조화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란 말이 새삼 떠오르는 요즘이다.

이유없이 아프거나 되는일이 없거든 수맥을 막아라!!

현대인의 질병, 그 큰원인이 수맥(水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수맥은 과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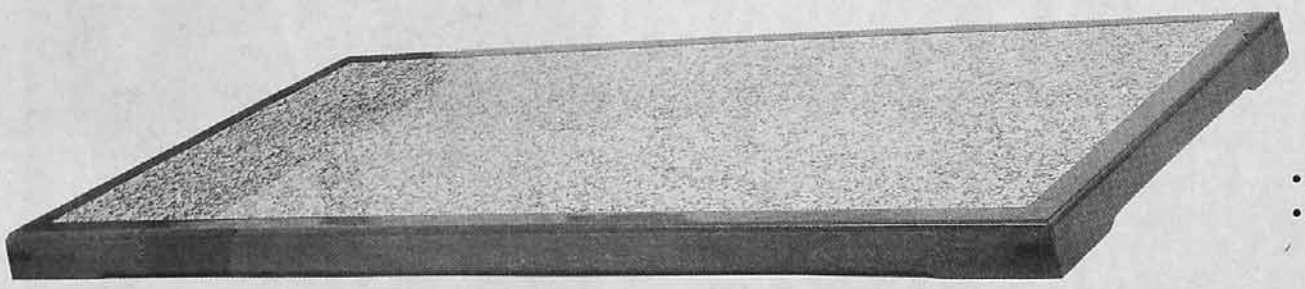
수맥의 기(氣)는 인체의 조화를 깨뜨리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현대인은 이 수맥과 콘크리트벽, 바닥에서 뿜어져 나오는 방사체와 독소로 인하여 건강을 잃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적외선 온돌침대〈파워스톤〉은 이러한 수맥을 방지하고 실내의 유해한 공기를 정화하여 편안한 숙면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돌찜질기 입니다.

임상실험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전대학교·원광대학교 양 부속 한방병원의 임상실험 결과가 효과를 입증합니다.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이삭 파워스톤은 원적외선을 이용한 찜질효과로
■혈액순환의 촉진 및 신진대사의 활성화
■통증의 경감작용과 조직의 재생작용으로
신경통·류머티스·관절염·디스크·고혈압·당뇨병·중풍·냉·대하증·산후조리·불면증·교통사고후유증 등 각종 성인병과 부인병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피로회복·비만·미용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습니다.
■문의하시는 분께 임상실험자료와 수맥관련 책자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규격〉 : • 200×104×8
• 200×138×80

• 실용신안특허 : 제068614호
• 상표등록 : 제245216호
판매원 민영실업
(02)208-7974~5
부산 (051)412-9351

인류의 건강을 추구하는
이삭産業株式會社
※전기용품 Q마크획득·전자파 장해 시험필
품질보증
전자파장해시험필 EMI 공업진흥청

"개혁의 과제, 중흥도약대 삼겠다"

월주스님 「조계종 종무계획」 발표 6월내 대사면 표명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개혁회의 기간동안 제적이하 징계받은 69명과 그 전에 징계받은 10명등에 대한 사면 경감 복권을 오는 6월안으로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월주스님은 지난 9일 조계종 총무원 청사 1층에서 교계 내외 기자들을 대상으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상반기 종무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찰 주지 및 종무원의 재임기간 동안의 업무수행상황을 기록 인사정책에 반영하겠다"며 인사고과에 의해 주지가 임명될 것을 밝혔다.

스님은 조계종의 종무행정의 기조로서 △수행·교육·전법 작풍 진작 △개혁회의 계승과 발전 △종단의 안정과 화합 △불교중흥의 초석 수립 △불교의 사회문화적 역할 확대 △민족종교로서의 위상과 역할 제고 △21세기 문명사회를 선도하는 불교정신 구현 등 7가지를 밝히고 △제도개혁의 정착과 보완 △수도·교육·포교·역경사업 적극 추진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 추진 △재정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 등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주요종무계획〉

- 종책 자문위원회 구성
- 주지 인사고과제 시행
- 신행혁신운동 전개
- 월간「설법교안」발행
- 종단 상설교육장 설치
- 환경 인권 봉사운동 강화
- 광복50년기념 통일사업
- 신협설립, 수익사업전개

「제도개혁의 정착과 보완」에 대해서는 △종단 법령집과 해설 자료집 배포 및 종헌종법 교육(주요사찰 사무장 대상) △고시위원회법, 법계법등 종법과 중앙신도회 설치령, 군승준직등 총령제정 개정 △사찰운영위원회 구성 등을 실시키로 하고 "사찰의 예산 결산서 제출, 분담금 납부기한 엄수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월주 스님은 이어서 "역대 총무원장 중앙종회의장 각기관 주요 소임자 등으로 종책자문협의회를 구성해 종책 협의와 자문을 구하고 종무행정에 활용토록 하겠다"면서 "문화재 관리·도덕성 회복·복지사업·환경·사회정의·통일·불교와 21세기 등 각분야의 전문위원을 위촉 자문위원회를 구성 종책수립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교육·포교·역경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행자교육원, 중앙연수원 등 상설교육장 건설, 기초선원 설립 △중앙승가대 이전 및 정규대학 인가를 얻기 위한 시설 완비 추진 등을 제시했다.

한편 신행혁신운동으로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를 캐치프레이즈로 △재적사찰 갖기 △신도오계받기 △신도회 가입 등 6가지 실천덕목을 전개키로 했으며 재가단체와 조직을 망라한 전국신도 조직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월주 총무원장은 "21세기 인류문명의 전환기를 세계사의 흐름을 통해 전망하며 포교방략과 목표, 10개년 사업계획등을 담은 청사진 작성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다"며 오는 5월부터 '설법교안(가칭)'을 발행 전국사찰에 제작 배포하겠다고 말했다.

성도절을 기점으로 범국민운동으로 확대시킨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의 구체적 내용으로 "도덕성 회복, 환경, 인권, 사회봉사등을 펼치겠다"며 불교사회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납골제도 활성화도 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광복50주년을 맞아 오는 광복절을 즈음해 남북불교지도자대회를 판문점(또는 미국이나 중국)에서 개최하고 통일을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 등을 제시했다.

월주총무원장은 이밖에도 재정의 합리적 관리와 운용을 위해 △사설사암 및 법인체 실태파악과 등록 유도 △주요사찰 재정실태 파악 및 종단목적사업에의 재정 확충 △종단소유 토지의 전산화 및 망실·유휴재산 추심 △타종단 점유 조계종 사찰재산 해결등에 역점을 두겠으며 사업부 신설에 따라 △불자신용협동조합 설립 및 보험·관광·생수·불구제작 등 수익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경숙 기자〉

「태고·조계 사찰분규 종식위」 구성

태고종 7인위원선출, "대화에 적극 나서겠다"

태고종은 지난 5일 열린 '종단 중진간부회의'에서 지난해 구성된 조계종측의 「조계·태고 분규위원회」에 맞서 「태고·조계사찰분규종식위원회」를 구성하고 봉원사, 백련사, 선암사, 안정사등의 관계자와 총무부장 자월스님, 이규범 행정원장등 7명을 위원으로 선출했다.

이번 문제와 관련한 해결방안에 대해 태고종의 한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양 종단의 분규를 해결하자는 원칙만이 있을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하고 "조계종 측에서 면담을 요청해 올 경우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와함께 태고종은 봉원사 매각뿐 아니라 지금까지 조계종과 마찰을 빚어온 선암사 백암사 안정사등 분규사찰의 문제를 이번기회에 모두 종식시키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태고종과 봉원사, 태고종과 조계종, 조계종과 봉원사 등 각각의 입장이 전혀 절충되지 않은 상태여서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깨달음의 기쁜 소식 온누리 덮었네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 성불한 날인 8일 성도절을 맞아 각 종단과 사암은 일제히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특히 금년은 광복 50주년을 맞는 해로 조계종에서는 '깨달음의 사회화'라는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선포하는등 성도절의 의미를 현대에 맞게 재조명하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다. 사진은 서울 진관사 어린이회가 은평경찰서 대강당에서 성도절을 주제로 소년소녀가장돕기 연극공연을 펼치는 모습.

신임 단장에 김종환법사

전국 교법사단 정기총회, 새해사업 확정

전국교법사단은 지난 5~8일까지 경주 불국사에서 전국 22개교 25명의 교법사가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연수회를 갖고 95년 사업계획과 새 임원을 선출했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창단 4주년 기념행사 개최(4월초) △청소년 통일법요집 발간 △종립학교 연합수련회 개최등의 사업과 예산 2천6백만원을 확정했다.

앞으로 전국교법사단이 총무원 교무부에서 포교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불교교육을 통한 포교에 역점을 둘 것과 청소년 불교포교에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앞장 설 것을 결의했다.

새임원진으로 단장 김종환(금산중) 부단장 고우익(능인고) 박영동(동대부고) 사무총장 김형중(명성여고)등이 선임됐다.

고침 지난호(12호) 신년축하 광고중 학교법인 승가대학을 학교법인 승가학원으로, 금강경 독송회의 주소를 성북구 성북 2동 131-80으로 바로 잡습니다.

한·태 국제불교대회

2월15일부터 방콕서 세미나등 개최

제1차 한·태 국제불교대회가 오는 2월15일부터 2박3일간 태국 방콕 붓다몬톤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

한·태 불교협회(회장 법장, 수덕사주지)가 주최하고 한 태불교협회 태국측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개회와 더불어 북방·남방의 선 연구와 교육 교류등에 관한 세미나가 열리며 15일 오후에는 포티얀에서 6.25전쟁 전몰 태국용사를 위한 합동 수륙고혼대제를 봉행한다.

또한 태국불교의 상징인 프라상카랏 법왕을 직접 친견하는 시간도 갖는다.

이번 대회를 주최하는 법장스님은 "태국에는 6천여 한국교민이 있으나 영주권 문제등 어려운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불교국가인 태국과의 교류를 통해 교민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양국 승려및 재가불자의 교육 및 유학 교류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태 국제불교대회와 성지순례 법회 동참자는 (02)725-1424로 연락하면 된다.

구미 선산 통합 축하법회

구미사암연 주최

구미시와 선산시 군 통합을 축하하는 만찬법회가 지난 11일 오후6시 구미 그랜드호텔에서 성료됐다.

구미시암주지연합회(회장 법등)가 주최한 이번 법회에는 구미시 및 선산시 사암 주지와 신도회장단 시장 교육감 시 군 의회의원 등 2백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등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역과 인맥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시군이 화합해 지역발전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암주지연합회는 지난 12일 성도절을 맞아 지역내 불우 소년소녀가장 20명에 각 10만원씩의 성금을 전달 격려했다.

17세기 조성확인

대운암 관음보살상

경북 청도읍 대운암(주지 현종)관음전에 봉안중인 관세음보살 좌상이 3백 40년전인 조선 효종6년(1655년)의 목조 관세음불상이라는 사실이 확인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운암에서는 구랍 29일 개금불사중 불상내부에서 복장유물로 능엄경1권, 연화경3권, 다라니경을 비롯 칠보사리 불상 조성기가 발견됐다.

청도군은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동국대 총장선거

송석구교수등 후보자 7명

오는 15일 실시되는 동국대 제13대 총장 선거 후보자로 민태진교수(58,화학과) 오형근교수(63,불교학과) 김인재교수(61,경제학과) 조희영교수(57,경영학과) 홍치유교수(57,물리학과) 송석구교수(55,철학과) 박준학교수(64,행정학과) 총 7명이 확정 공고 됐다.

10일 현재 각후보들은 서울, 경주에서 두차례 선거유세를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천태종 1백5개사찰 새 신도회장 임명

천태종(총무원장 전운덕)은 구랍 7일부터 실시해오던 동안거 해제식과 함께 지난 6일 총본산 구인사에서 서울 삼룡사 등 전국 1백5개 사찰의 신도회장을 새로 임명하고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현대불교 지면이 새로워 집니다

현대불교가 새해를 맞아 보다 풍성한 읽을 거리를 마련, 지면이 한층 다양해집니다.

부처님의 지구사랑 3면
부처님은 위대한 환경보존의 실천자였습니다. 날로 심각성을 더 해가는 환경오염문제의 해결을 위한 길을 전재성 교수가 안내합니다.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3면
혼탁한 사회, 황폐화되어가는 정신문화는 각종 사회병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참다운 불자가 행해야 할 실천덕목들이 무엇인지 조계종 총무원과 본사가 선정한 과제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는 신행 캠페인 입니다.

한국 사찰 주련 (柱聯) 6면
고찰에서 만나는 주련. 그 의미에 궁금증을 갖지않은 불자는 없을 것입니다. 사찰마다 독특한 서체로 장엄돼 있는 주련의 내용과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7년간 전국사찰을 다니며 자료를 수집하고 일일이 해석을 해 온 권영한 선생과 함께 한국 사찰의 주련의 의미를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아라한들 (젊은 학승 탐방) 7면
인재양성은 불교계가 당면한 최대의 과제입니다. 전국 16개의 승가대학, 그 진지한 면학도량을 찾아서 내일의 불교를 가꾸는 현장을 지켜 봅니다.

불교미술의 어제와 오늘 13면
미술의 해를 맞아 불교미술의 좌표를 점검해 봅니다. 전통과 현대화의 이정표는 어떻게 서 있는지. 미래로 이어질 오늘의 불교미술은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는지를 밀도있게 분석해 불교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한눈에 파악코자 합니다.

그림이 있는 불교에세이 13면
우리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불교미술가들을 초대해 대표작과 함께 신선한 에세이를 독자들에게 선사합니다.

문체부 조사 북한불교 현황

사찰 해방전 3백60여곳 현재 61곳
승려 3백여명·신도 1만여명 추정

최근 북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지역의 불교현황이 문화체육부의 조사로 발표되었다(북한지역 종교자료집, 1994.12).

이 자료에 따르면 해방 전까지 북한지역에 있던 사찰 3백60여 곳 중 현존하는 사찰은 경기도 3, 강원도 9, 황해도 12, 평안도 26, 양강도 1, 함경도 10곳으로 총 61사찰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묘향산 보현사가 북한불교의 구심점이었으나 1990년 이후 조선불교도연맹 본부를 평양 광법사에 두면서 현재 광법사가 총본산을 이룬다.

북한불교의 종파는 조계종이며 승려수는 3백명, 신도수는 1만명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승려는 대부분 해방전 신행활동을 하던 대처승이다. 승려의 일상생활은 아침예불, 청소, 신도와의 대화로 이루어지고 절에서의 의상은 양복위에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그 위에 흉가사를 걸친다.

북한의 불교문화재는 신앙적 차원보다는 역사적 교양자료, 문화유산, 명승고적, 문화휴식처로서의 가치가 두드러진다. 중요 불교문화재로는 해주 5층탑을 비롯한 국보급 문화재 19점, 평양종을 비롯한 보물급 문화재 39점, 사적 7점으로 총 65점이 지정되어 있다.

1945년 불교총연맹의 설립으로 구체화된 탄압정책은 계속되어 1946년에는 토지개혁으로 5정보 이상의 사찰재산 및 사찰소유 산림이 몰수되었다. 이때 몰수된 토지는 전체 토지의 1.4%로 추산된다.

1958년부터 1960년까지는 북한주민의 의식구조를 개조하기 위해 중앙집중지도사업을 벌였다. 즉 종교인을 반혁명계층으로 분류, 특별 감시대상으로 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주체적 입장에서 역사·문화전통을 보존, 발전시킨다는 움직임이 1966년부터 일어 6·25때 파괴된 사찰, 문화재를 복구하기 시작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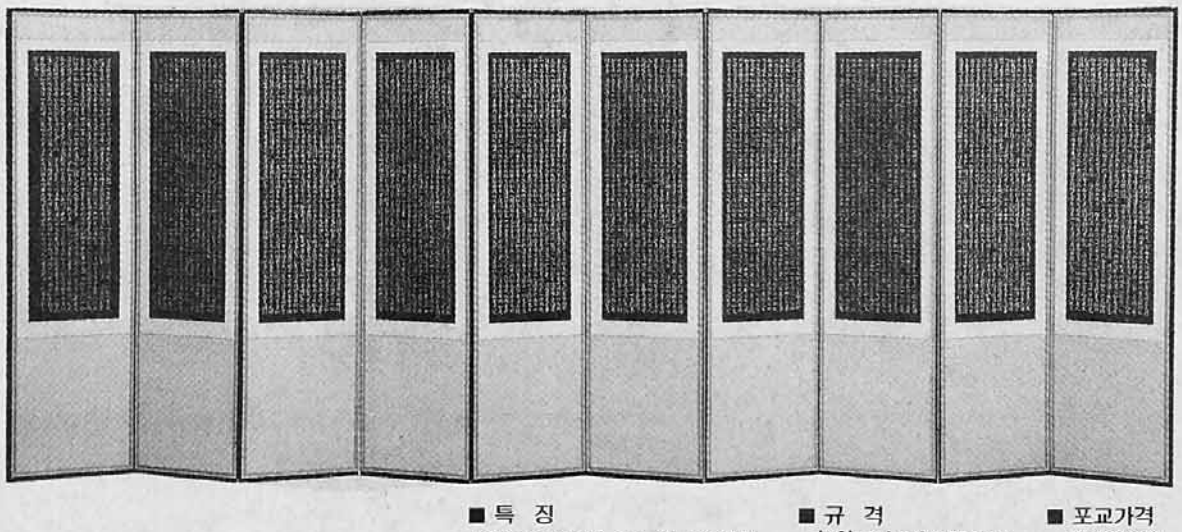
1970년대에는 유일사상이 종교사상도 흡수하였고 1980년대에는 묘향산 유적 복원, 고려대장경 번역등의 활동으로 외부적으로 북한불교의 실재를 선전하기도 했다.

〈박미영 기자〉

금강경(후면 연화도진품) 10폭 병풍

한없이 자애로운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운데 으뜸이신 금강경—살아있는 호신병풍
설명절 특별보급으로 가격 부담없이 모실 수 있습니다.

● 밤색공단에 금분사경



■ 특 징
· 전면 : 원력 높은 스님께서 사경하신 금강경을 영인본 金書로 조성하였습니다.
· 후면 : 국전작가 재가불자화백의 연화도 진품

■ 규 격
· 높이 : 5자 8치 (175.8cm)
· 폭 : 14자 5치 (439.5cm)
· 재질 : 스기목, 양면비단, 스모사 특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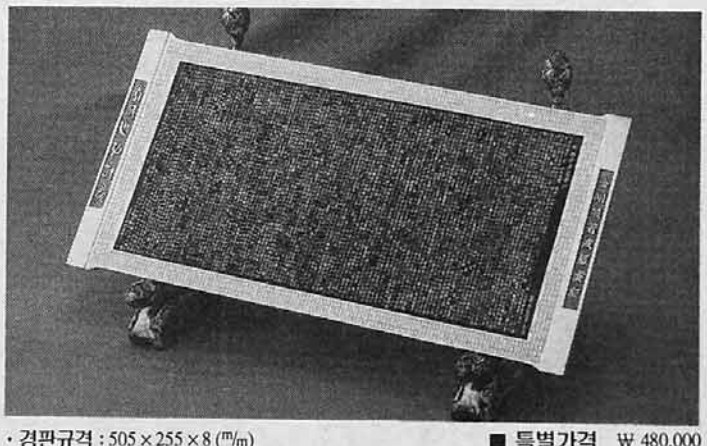
■ 포교가격 ₩ 490,000 (· 현금 · 은행신용카드)

불법홍포와 자비원력의 시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정진대중께 포교의 일환으로 정성을 다하여 조성한 금강석 같은 금강경 병풍을 저렴하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모시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을 쌓는 성품
살아있는 호신경전

秘經 천불 금강경

경판테두리에 단을 쌓아 전불을 조성하여 공덕을 기리고 가운데에 금강경을 양각으로 입체 사경하여 원력을 담게 하였습니다.



· 경판규격 : 505×255×8 (m/m)
· 재질 : 주석(99.9%) 순금(24K) 양표면처리

■ 특별가격 ₩ 480,000

(글로버써비스)전화 080—023—1101, 지방에 계신분은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 글로버써비스 전화를 이용하세요.

불교전통불화공예연구원
기획 제작 三田佛事 (조계사 후문)
■문의처 : (02)732-6095~6

불교전통표구, 각종 불교행사기념품, 사찰인쇄 기획에서 제작까지 저렴하게 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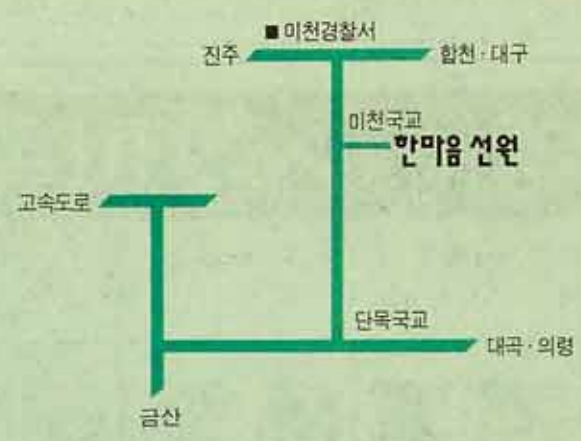
대행스님 진주 대법회

- 일시 : 불기 2539년 1월 22일 (일) 11:00
- 장소 : 한마음선원 진주지원(신축강당)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누구든지 불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불법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세간의 지식처럼 누구에게는 이해가 되지만
누구에게는 이해되지 않는다면 진리일 수 있을까요.
마치 태양의 광명이 누구에게나 고루 비치듯이,
또 공기가 누구에게나 호흡을 허락하듯이,
불법은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불법의 도리를 알아 사람다운 사람이 됩시다.

진주 한마음선원이
넓고 조용한 곳에 터를 마련,
새로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여래의 집'을 신축·이전하며
감사한 마음을 회향코자
법회를 개최하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한마음선원 진주지원
주소 : 진주시 미천면 오방리 50
TEL. 746-8163, 44-1321, FAX.41-7125